

12. 2월 + 0  
2월 17  
3





# 4

## 5월의 테마 토크

### 일상을 축제로, 생활을 예술로

서울문화재단이 기존 공공예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 우리 몸에 흐르는 춤사위와 리듬의 피를 끊게 만들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이 바로 그것. 각자의 사연을 가진 모든 시민 참가자가 춤꾼이 되어 풀어놓는 거대한 난장 파티를 통해 건강한 서울살이를 제안한다. 가두고 있던 자신을 대놓고 풀어놓을 기회를 주는 이 프로젝트가 춤으로 도시살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내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춤을 추며 우리는 진정한 혁명을 꾀하는 매일의 혁명가가 되는 거다!



# 20

## 사람과 사람

### 김윤진 서울댄스프로젝트 기획감독

춤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의 기획감독을 맡은 무용가 김윤진에게 물었다. 한국 무용가이자 현대 무용가, '김윤진 댄스 컴퍼니'의 예술감독,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겸임교수인 김윤진. 그녀는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의 기획감독으로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다. 춤이 어떻게 우리 삶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안에 내재된 감정들을 어떻게 춤으로 폭발시킬 것인지가 성공 관건인 이 프로젝트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윤진이다.



# 54

##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 마음속 별이 빛나는 밤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기특한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에 소개할 프로젝트 참여 작품은 이은열 작가의 사진 작품 <별이 빛나는 밤-별이 빛나는>이다.

# Contents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조선희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제이콘텐트리 디자인 시호워크  
사진 스튜디오 봄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3년 5월 6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  
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  
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2 커버 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류노아

## 테마 토크

### 일상을 축제로, 생활을 예술로

- 06 왜, 춤인가 왜, 추어야 하는가  
공공예술로 춤이 소환된 이유
- 10 온 도시가 춤으로 흥하려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언
- 12 춤추는 서울을 꿈꾸다, 서울댄스프로젝트  
프로젝트 전격 해부
- 14 Shall We Dance?  
춤 워크숍에서 만난 시민 춤꾼들
- 16 춤단 인터뷰  
춤단 5인방의 다짐과 포부

## 사람과 사람

- 20 김윤진 서울댄스프로젝트 기획감독  
춤은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생존 방식이다
- 24 조성환 조아제약 대표이사  
세상에는 수치화되지 않는 덧셈이 있다
- 26 예술가 김형수와 김효진 부부  
창조적 공존이 예술을 이룬다

- 30 진실 혹은 대답  
세상도, 예술도 기브앤테이크야
- 36 예술가의 밥그릇  
예술가와 예술감사 사이, 이영미의 삶
- 38 서울 할나

## 이슈&토크

- 40 쟁점 1  
'예술인 복지법' 왈가왈부
- 42 쟁점 2  
예술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 44 화제  
불경기 문화 충전 필살기

## 공간, 공간

- 46 이 책은요, 별뿔별이 만들었어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창작공방
- 48 수상한 그 공장,  
문래예술공장 사용설명서
- 50 인생 '막장'에 놓인 독약과 꽃 한 송이  
연극 <농담> VS 뮤지컬 <레미제라블>
- 52 Art Book & Toy  
예술이 된 책과 예술이 된 장난감
- 54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 예술적 상담소

## SOUL OF SEOUL

- 58 이장희의 서울 스케치 여행  
서울의 오래된 고등학교들
- 62 서울 단상  
소설가 김사과가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 64 결정적 순간  
5월의 꽃, 메이퀸이 사라진 이유
- 68 조운석의 썰(說)  
인디밴드 지원센터를 건설하신다고요?
- 70 장병욱의 재즈 스토리  
피아니스트 이발차

- 72 세상을 살리는 아이디어  
공동체의 삶, 희망을 나누기 시작하다

## 서울문화매뉴얼

- 74 5월 Calendar
- 81 재단 공모 사업 가이드
- 82 공유 페이지
- 84 편집 후기



고민상담, 130×162cm, 캔버스에 유채, 2013

## 이달의 표지 작가 류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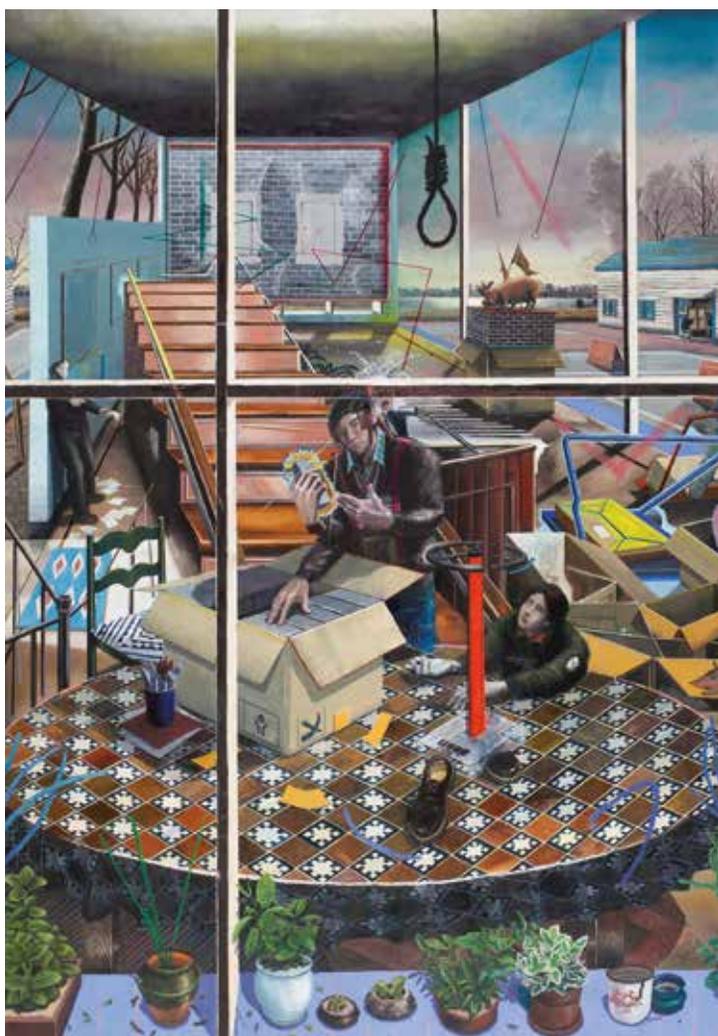


(표지작)  
마케팅,  
300x220cm,  
캔버스에 유채, 2011

“표지작 <마케팅>은故 오윤 작가의 <마케팅 II>를 보고 영감을 받아 2011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오윤 작가의 <마케팅 II>는 힘든 노동현장에 내몰린 소녀들과 그들의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화장품 광고를 병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풍자한 작품인데요, 저는 거기서 영감을 받아 예술 작품은 물론이고 이제는 예술가 본인도 상품성과 생산성을 인정받으려고 스스로를 ‘마케팅’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자신을 홍보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항상 약간의 비애감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한 번쯤 이런 감정을 느껴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림의 출발점이 된 오윤 작가의 <마케팅 II>가 그림 안에 포스터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양이, 45.5×53cm, 캔버스에 유채, 2013



Bricks, 300×210cm, 캔버스에 유채, 2012

“제 작품을 하나의 주제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가 있다면 아마도 ‘불안함’이나 ‘긴장감’일 것 같습니다. 저는 불안감을 느끼고 긴장하게 되는 상황 자체를 그대로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나 이념갈등 같은 전 지구적 이슈에서부터 이웃 간에 존재하는 사소한 갈등까지 저를 긴장하게 하는 일들을 큰 제한 없이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의 네오 라우흐(Neo Rauch)나 마티아스 바이셔(Matthias Weischer), 피터 도이그(Peter Doig) 같이 동시대 화가들은 물론이고, 이전의 화가들에게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피터르 브뤼헐(Pieter Bruegel)을 특히 좋아했고 북부 르네상스 그림들의 치밀함도 좋아했습니다. 20세기 발튀스(Balthus) 같은 작가에게서는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림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작가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과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들을 보면서 전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해진 계획은 별로 없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꾸준히 작업을 하는 것이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류노아

200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졸업  
2010년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대학원 수료  
2011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스튜디오 입주  
2012년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스튜디오 입주  
현재 하남시의 작업실에서 작업 중

일상을 축제로,

*dance*

dance

# 생활을 예술로

서울문화재단이 기존 공공예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 우리 몸에 흐르는 리듬의 피를 끓게 만들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이 바로 그것. 각자의 사연을 가진 시민 참가자가 춤꾼이 되어 풀어놓는 거대한 난장 파티를 통해 건강한 서울살이를 제안한다. 가두고 있던 자신을 대놓고 풀어놓을 기회를 주는 이 프로젝트가 춤으로 도시살이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내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춤을 추며 우리는 진정한 매일의 혁명가가 되는 거대!

dance

# 왜, 춤인가 왜, 추어야 하는가

진화하는 공공예술의 형태, 그 종착지로 춤을 택한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  
왜 지금 이 시대에 춤을 택했을까? 춤을 통해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이  
언어내려는 그 지점을 분석하다.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 모여 춤단이 되고, 이들은 본래 춤이 가지고 있던 신명과 힘을 다시 우리에게 전파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진행되는 예술의 형태가 다채롭게 진화하고 있다. 고전적 형태의 공연과 전시에서 벗어나 공간과 창작의 주체가 변화하고 있고 감상과 창작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던 일반 관람자와 전문 예술가 집단의 구분이 깨진 지 오래다. 여기에 공공예술의 여러 형태가 소개되면서 단순한 우리 마을 예쁘게 가꾸기에서 벗어나 좀 더 진지한 시선을 가진 예술가와 작업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공공기관과 정부단체의 공적 자금이 투여되면서 ‘공공성’과 ‘예술성’의 결합이라는 이상을 꿈꾸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국내 한 복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상으로 3,4년 전부터 경기 지역과 몇몇 지자체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더니 올해는 서울문화재단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다른 기관이 많이 시행한 미술이 아닌, 춤으로. 춤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인지라 미완이고, 다분히 실험적인 것이라 아직은 예측 불허다.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로 명명된 이 사업에서 예상되는 것들을 굳이 따지자면 춤으로 서울 시민과의 예술적 소통, 대중의 자발적 창의성 창출, 예술가와 대중의 만남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미션들은 주체 측인 서울문화재단이 먼저 밝힌 것이고 이를 위해 기획감독으로 임명된 무용가 김윤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 춤과 공공예술, 그 낯선 상관관계

먼저 우리는 아직은 생소한 ‘예술의 대중적 결합’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사실 대중의 사회적 반응이자 예술로의 전조는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등장한 프롤레타리아 예술과 1960년대와 1970년대 불었던 반문화예술은 부르주아 계급의 일방적 복종과

기존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거부하며 등장한 예술적 대안이자 탈출로였다. 그런데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인 예술과 공공성을 추적해보면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의 ‘연방(Commonwealth)’이라는 개념이 낯설지 떠오른다. 그는 이미 동일한 제목의 저서에서 ‘다중’, ‘일반 지성’, ‘생체 권력(Bio-Power)’ 그리고 ‘사랑’과 같은 개념들이 최근의 사회적 분석을 위해 다시 현실화되고 다듬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보, 아이디어, 문화적 산물의 사유화에 반대하면서 자연적인 문화적 공동성과 커뮤니티 삶에 대한 열린 접근이야말로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 주장한다.

일방적인 해석과 한정된 적용은 다소 위험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논지들은 현재 진행되는 공공예술로서의 여러 작업들을 관찰하고 그 관련성을 통찰하는 데는 분명 큰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 세계 여러 예술가들이 표방하는 관계미학과 예술의 새로운 사회적 위임, 다양한 예술적 색채의 범위를 설명할 때 참고가 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공공예술이 일반적 트렌드에 머물면서 단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유의해야만 한다. 무료 무용 강습이나 동호회 발표회가 시대적 조류를 타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버무려져 커뮤니티 아트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현장을 국내에서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다. 공공예술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단어’임을 인식하고 아직은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 역시 도식적 접근으로 일방적인 ‘커뮤니티 아트’로서의 ‘커뮤니티 댄스’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모로 성급한 감이 있을지도 모른다.

출판 워크숍 현장에 모인 시민들. 이들은 이날 사소한 동작을 춤으로 연결하며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공간에서만 추는 전형화된  
춤에서 벗어나 춤을 본연의  
자리인 우리의 몸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프로젝트로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을 이해하고 싶다.  
다소 소박하게 보이겠지만  
춤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대중에게 다시  
환원시키는 프로젝트로  
말이다.



#### 계급화된 문화, 춤을 제자리로 돌려놓다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을 조금 쉽게 이해해보자. 춤은 원래 우리의 몸에 존재해 감정표현, 의사전달, 제의, 상징 등의 기능을 태곳적부터 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예술이 등장하자 춤은 우리의 몸을 떠나 대상이 되고, 예술이 되었다. 그러면서 춤은 전문가만의 영역이 되었고 감상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별히 배워야 하는 것이 됐다. 경제적 능력과 시간이 없는 사람은 춤출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찍혔다.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전문가 집단이 서는 공연장의 무대뿐 아니라 물 좋은 강남의 무도회장에서도 유행에서 벗어난 막춤은 '정화'를 위해 특별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사람만 추는 전형화된 춤에서 벗어나 춤을 본연의 자리인 우리의 몸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프로젝트로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을 이해하고 싶다. 다소 소박하게 보이겠지만 춤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대중에게 다시 환원시키는 프로젝트로 말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원래 대중이 가지고 있던 춤을 무용가가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즉 무용가가 독점하고 있었던 예술적 권리를 이양해 대중의 새로운 인식과 각인을 시도하는 프로젝트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춤추고 싶은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것, TV나 인터넷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상의 춤이 아닌 현실의 실존적 춤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직접적인 동력을 부여하는 서울의 행사로 말이다.

이를 위해 여러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곳곳에서 진행된다. 자발적으로 모인 서울 시민들이 추축이 되어 집단의 능력을 모아 서울의 공공장소를 습격하며 춤판으로의 변신이 진행되는 '게릴라 춤판'이 준비된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다양한 커뮤니티에 춤이 들어가 어떻게 작용하고 수용되는지에 주목하는 공연 행사 '춤바람 커뮤니티'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춤 야유회가 한강 둔치에서 진행되고 서울무도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2층 버스를 개조해 서울 곳곳을 누비게 하는 '춤바람 버스'도 함께 운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춤바람 선포식이 5월 12일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다.

그리하여 닫힌 공간에만 존재했던 춤을 열린 공간으로 불러낸다. 광장에서 춤을 추고, 거리와 한강 다리와 고수부지에서 춤춘다. 전문가만이 특별히 배워서 추는 춤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기가 추고 싶은 춤, 원래 자신의 몸에 존재했던 춤을 드러내 시민들과 공유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전문가(무용가)의 조언에 따라 작품을 만들면서 나와 같은 너와 소통을 시도한다.



### 춤, 무용가, 그리고 공동성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혼돈에 휩싸인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과연 예술적 창작 작업의 확장된 형태로 봐야 하는가, 혹은 춤을 활용한 사회적 환기와 활동으로 봐야 하는가를 말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가(무용가)는 어떠한 존재이고 각자의 예술적 영역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역시 동시에 제기된다.

이 역시 쉽게 풀어보자. 우선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반인들의 춤을 보면 대부분 아마추어적이다. 그들이 추는 춤은 유희, 율동, 즉흥의 형태일 것이며, 그러한 춤들이 이번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적 시각에서 보면 춤으로 드러나는 대부분의 형태는 비전문적이고 세련되지 못했으며 예술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춤의 대중화,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 운동이나 봉사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필자는 맨 처음 언급한 안토리오 네그리의 '연방'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예술(춤)이 작동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삶의 공동성을 회복시키는지, 자본화되면서 발생한 반공동체적 축적에 대한 비판과 건강성 회복, 예술의 독선적 모습에 대한 반성, 공간에 대한 해방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본다면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물론 예술가(무용가)의 역할도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무대 위에서 진행되었던 고전적 의미의 안무가 변형되어 새롭게 등장한다.

기획감독 김윤진은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것들을 기획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며 공간을 선정했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전문가 집단인 무용가들을 선정하고 현장에 투입하면서 면면들을 예측하고 검토한다. 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설계하고 장치한 부분, 대중에 대한 인식과 실험적 태도, 사회관계의 균열을 메우려는 예술가로서의 노력과 제안들, 공간에 대한 감각적 인식들이 바로 고전적 의미의 안무에서 조금 변형된 새로운 안무인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문 기획자나 큐레이터가 예술적 범주에서 창작의 주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경향에 비추어본다면 이 프로젝트의 새로운 시도들 역시 현대적 의미에서 안무의 범주에 충분히 해당된다.

이 프로젝트에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다분히 유희적이고 심지어 우리의 기대와 상상보다 더 형편없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속성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도 매우 높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기상과 공간, 현장에 모인 불특정 다수의 즉각적 반응 등은 아직 미지수이며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건드리는 춤과 공동성의 본질적이고도 예민한 부분들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충분히 관찰해볼 가치가 있다.

글 박성혜

한성대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숙명여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무용전문지 <몸>의 편집장을 역임했고 현재 공연예술 네트워크 <판>의 발행인이다. 한예중, 한성대, 단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매체에 기고도 한다.

사진 김춘호

# 온 도시가 춤으로 흥하려면

서울문화재단이 아심차게 선보이는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이 생활형 춤꾼의 질편한 한판 놀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쓴 몇 가지 제언들. 도시 예술 프로젝트의 새로운 장이 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서울문화재단이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 신청사, 동호대교 등을 무대로 신나는 춤판을 벌이겠다는 각오도 들린다. 일방향 무대에 갇혀 있던 춤꾼들과 관객들의 몸짓 본능을 도시 곳곳으로 불러낸다는 발상에 동감해 나의 '막춤' 실력을 뽐내볼 그날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울렁증을 일으키는 '푸르딩딩한' 서울시 신청사에 빨간색 추리닝을 입고 습격 아닌 습격을 통해 '짜다리' 춤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고, 동호대교 위에서는 옆으로 지나가는 지하철 3호선 승객들에게 서플댄스를 선보일 수도 있다. 뭐, 여기뿐이겠는가? 선유도공원이나 서울역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서울 성곽이나 한강 둔치의 어느 후미진 곳이라도 신명 나는 춤판을 벌여줄 수 있다.

## 즐거운 공상을 막는 선례를 참고하라

이런 신나는 공상을 하다 보면, 내 안의 악마가 '그래서 뭐?'라고 불쑥 시비를 걸며, 곧 천상에 있던 꿈의 조각들을 현실로 끌어내린다. 특히 어떤 기시감이 느닷없이 덮쳐올 때는 더욱 그렇다. 한국 미술계의 선례가 그것이다.

한국 미술계에서 2000년 이후 '도시 문제'를 미학적으로 다룬 작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청계천 개발, 용산 참사, 4대강 사업 등 정치적 이슈들에 자발적으로 개입하는 작가들도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진행한 '도시갤러리' 사업과 같은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예술정책의 수혜를 받는 방식으로, 상당수의 예술가들은 도시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

2000년 전 몇몇 예술가들이 도시를 구경꾼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도시의 빈 공간에 침투하거나 전유하는 등 장소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략 처음에는 소위 낙후된 공간을 재생한다거나 삭막한 도시를 예술로 치유한다는 이슈였다가 점차 '도시 경쟁력 강화' 쪽으로 비중이 옮겨갔다.

그리고 공공미술(Public Art)로도 불렸던 이런 작업들은 몇몇 미술평론가의 지적과도 같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융합하기 위한 정치적 결속 장치(김장언)"로 작동하게 되면서 공공미술의 개념은 "도시미화 프로젝트 및 시민 생활 개선과 관광객 유치 전략의 일부로 전략한 홍보성 조형물 및 이벤트가 주"를 이루게 됐다. 그러고는 최근 몇 년간은 주민들이 직접 '예술'을 하는 주민 참여 방식의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

점점 더 동네 같은 작은 공동체로 들어가고 있고, 주민들과의 접촉면도 넓히고, 평범한 지역 주민을 예술가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행사로 끝난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마저도 힘을 잃고 있는 중이다. 더군다나 예술가들이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했더라도 제도나 정책과 만나면서 국가 정책의 수단과 도구로 이용되고 역으로 그런 분위기를 예술가들이 이용하면서 작업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몇몇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신자유주의의 상품화와 자본화의 풍경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경향이 고착되는 것은 많은 수의 행정가나 전문가들이 도시적 사건(Event)이 고유한 장소성에 기인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식적으로 각 지역마다 고유성을 부여하고, 그 지역을 하나의 상품처럼 마케팅하고 브랜딩하면 도시적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의전당이 있는 서초구의 '조이(Joy) 서초'가 대표적 사례인데, 이런 사고방식은 슬프지만 이미 붕괴 중이다. 어쩌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런 시도들은 도시를 몇 개의 큰 건물과 화려한 조형물로 이루어진 고정체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이와사부로 코스의 말대로 오늘날의 도시는 "일시적 사건으로 형성되는 운동체"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서울의 대표 이미지가 2002년 붉은 악마에 의해 점령된 서울시청 앞의 모습이라면,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의 사고방식을 넘어서며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고 있는 것이다.

### 서울 시민의 관계, 그 유기성을 확인해야

그럼 다시 <서울댄스프로젝트>로 말문을 돌려보자. 나는 이번 <서울댄스프로젝트>가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리로 뛰쳐나와 서로의 관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것이 작동하려면 완벽하게 조직된 것보다는 '조직된 우연'을 기반으로 시민들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가로지름과 섞임에 대한 욕구를 발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일시적이라도 거리를 점령하거나 폐쇄적인 공공 공간을 전복하는 경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한다. 뉴욕의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라는 집단 자전거 주행 이벤트가 세상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같이, 그런 경험은 새로운 정치사회를 향한 상상력을 갖게 한다. 그것이 춤단 첫 번째 워크숍에서 김정현 선생이 말한 "이게 혁명이지! 춤 동지들!"의 구현일 것이다.

기획단에서도 '조직된 우연'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 '게릴라 춤판', '참여형 프로그램', '대규모 파티'를 큰 틀로 잡고, 이를 위한 워크숍을 열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 '멋진 그림'에 치중하는 딱딱지근한 행사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덧붙이고 싶은 말은, 내부적으로 눈치를 보게 되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술가가 '그저 생각한 것'을 구현하는 쪽으로 가야 이 행사는 폭발력을 갖게 된다.

'그저 생각한 것'은 예술가의 정체성이다. 시인 구상 선생이 말한 대로 "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시가 될 만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많은 예술가들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가혹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지 않는다. 어찌 됐건 예술의 임무는 예술의 내부건 외부건 뒤집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미술이건 커뮤니티 디자인이건 커뮤니티 댄스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치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 관계 속에서 변화의 씨앗을 심는 것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어야 한다. 김윤진 기획감독의 작품인 <구룡동판타지 : 신화재건 프로젝트>같이.

그래서 이번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우리는 왜 춤을 추는가?"란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참여자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기회였으면 한다. 사실 가족이나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춤을 배우고 나누는 과정은 보이는 스펙터클 이상으로 그들 사이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춤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지만, 춤을 출 때도 '호흡'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가? 춤은 공동체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예술 장르로, 자유롭게만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

### 가능한 많은 시민과의 접점 찾아야

여기서 더 나아가다면 실험적인 것도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무용가들이 시민들을 만났으면 한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좋고, 방과 후 수업으로도 좋고, 동호회 모임과의 워크숍으로도 좋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특히 문화적 번두리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용수가 되거나 철학을 가르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각 커뮤니티마다 개성 강한 작품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도시 관련 문화예술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보다는 하드웨어의 가치가 중심으로 보인다. 또한 예술가의 의도와는 달리 이런 작업이 정부 정책 수단의 구색 맞추기로 전략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주문을 했지만, 어찌 됐건 이번 <서울댄스프로젝트>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서울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가?'란 질문을 할 수 있는.

글 박성태 정림건축문화재단 사무국장 사진 김춘호



# 춤추는 서울을 꿈꾸다, 서울댄스프로젝트

바쁘게 돌아가는 경쟁사회,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지쳐 있는 고단한 현대인에게 몸을 움직이는 것의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아주자 2013년 서울문화재단은 새로운 공간이 하나를 모색했다. 춤추는 사람, 춤추는 서울을 꿈꾸는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의 수상한 전모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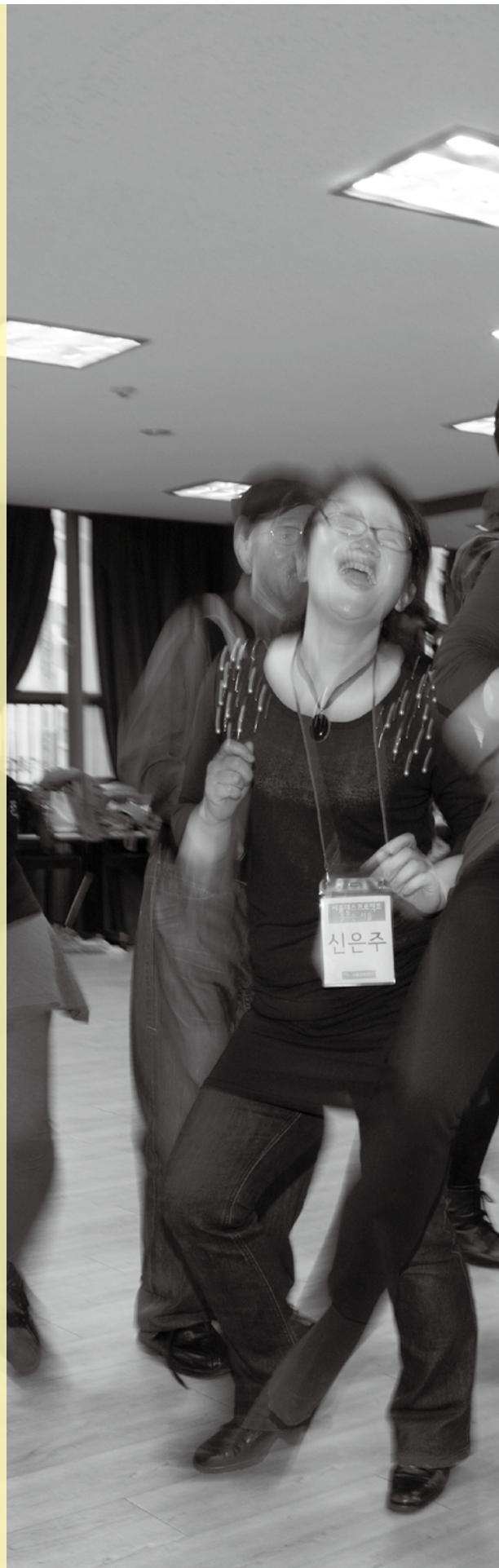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은 '서울 시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춤을 출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생각의 밑바닥에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몸짓에 대한 욕망이 있고, 이것을 바깥으로 꺼내놓고 풀어놓는 '해방'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몸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활력과 카타르시스를 서울 시민 모두에게 되돌려주고 싶은 믿음과 바람 속에서 서서히 영글어진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오는 5월 12일 '춤바람 선포식'을 시작으로 서울의 시공간을 거대한 춤판으로 바꿔놓을 예정이다.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릴라 춤판'은 치열한 오디션과 한 달여간의 집중 워크숍을 끝낸 50여 명의 '춤단'이 매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벌이는 소규모 춤판이다. 누구나 쉽게 따라 출 수 있는 테마댄스를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동시에, 게릴라 춤판이 벌어지는 장소에 어울리는 특별한 움직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명칭에도 나타나듯 특별한 사전공지 없이 진행될 게릴라성 이벤트이지만 이 지면을 빌려 약간의 힌트를 주자면 ○○대교, ○○○광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는 공간을 습격할 예정이라는 것! 이 신나는 게릴라 이벤트와 함께하길 원한다면, 매일 보는 장소라도 주말에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자. 어디선가 심상치 않은 몸놀림이 벌어진다면, 바로 그곳이 게릴라 춤판이다. 특히 <서울댄스프로젝트> 홈페이지에 다음 춤판이 일어날 곳에 대한 힌트를 올려놓는다고 하니, '게릴라 춤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열혈 팬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길 바란다.

또한 사전공모에 지원한 시민동호회 40여 개를 대상으로 전문 댄스 강사를 파견하는 '춤바람 커뮤니티'를 연간 운영하며 기존 동호회와 <서울댄스프로젝트>를 하나의 그림으로 엮어내는 작업을 한다. 춤바람 커뮤니티로 선발된 40여 개 동호회는 경로당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의 모임, 싱글 모임 등 기존의 다양한 동호회를 포함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신규 동호회 등 그 대상의 계층이나 범위가 다양하다. 춤바람 커뮤니티에 선발되지 않았다고 춤을 배울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춤바람 커뮤니티는 전담 예술가와의 워크숍뿐만 아니라 시민과 만나는 열린 춤판을 계획하고 있다.

춤바람 커뮤니티의 작업 결과를 선보이는 '춤야유회'는 8월의 한여름 밤 한강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댄스파티다. 일반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춤을 배우고 출 수 있는 자리이자, 춤바람 커뮤니티 수업에서 깨워진 몸의 표현과 그 표현들이 하나의 커뮤니티 안에서 만들어내는 교감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좁고 어두운 클럽을 탈피하여 자연광 아래 춤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원한다면, 올 여름 휴가는 한강에서 보낼 것을 추천한다. 입장료도 없다.

마지막으로, <서울댄스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 대규모 댄스 페스티벌 '서울무도회'는 10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50여 명의 춤단과 40여 개의 춤바람 커뮤니티의 활동을 담은 영상전과 사진전으로 서울이 춤으로 반짝이는 순간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한다. 일상생활 속 춤의 즐거움을 체험한 시민들이 함께 춤바람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언제 어디서나 춤출 수 있는 자유를 원한다면 무조건 오라. Let's Dance!



# Seoul Danc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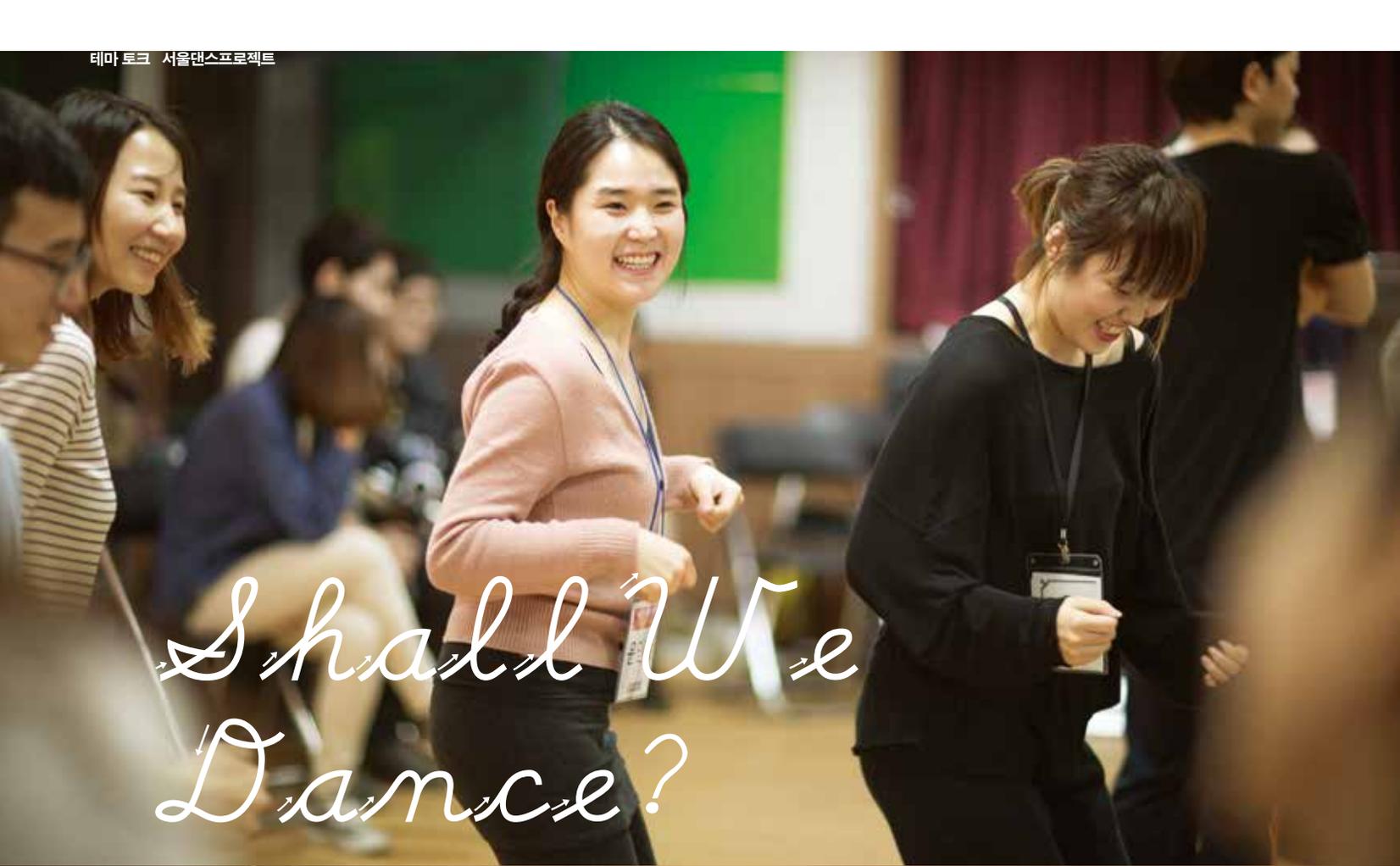


##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 총정리

공식사이트 : [www.seouldance.or.kr](http://www.seouldance.or.kr)

프로그램 문의 : 서울문화재단 축제기획팀 02-3290-7168

구분	기간 및 장소	내용
춤단, 시민기획단	4~10월	<p>은·오프라인을 총망라해 서울댄스프로젝트의 메신저가 되어 시민과 소통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를 모집·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춤단 : 매주 도시 곳곳에 출몰하여 춤판을 벌이고 시민들에게 춤의 생기를 전달하는 생활예술인</li> <li>시민기획단 : 온라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 아이디어 제안, 현장취재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를 확산시키는 온라인 서포터즈</li> </ul>
춤바람 커뮤니티	5~9월	<p>삶의 활력과 관계성을 재발견하는 춤 워크숍 운영 (※ 사전공모를 통해 현재 마감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프로그램 : 공개 모집한 40여 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8회의 댄스 워크숍 실시, 시민동호회 활성화 지원</li> <li>기획 프로그램 :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서울의 상징적 커뮤니티를 발굴하여 맞춤형 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0~12회 워크숍 및 오픈스튜디오 지원)</li> </ul>
춤바람 선포식	5월 12일(일) 3~4시 30분 시민청 활짝라운지	<p>서울댄스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 오프닝, 축하공연, 홍보대사 위촉식, 시민 춤판 서울댄스프로젝트 홍보대사 8인</li> <li>김규리(배우), 김영광(배우), 김완선(가수), 데이브레이크(가수), 스티브J &amp; 오토티(디자이너), 이루마(음악가), 남상일(국악인), 장성규(아나운서)</li> </ul>
게릴라 춤판	5~10월	<p>매주 금·토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게릴라성 춤판 (총 30회 운영 예정)</p>
춤야유회 @한강	8월 중	<p>한여름 밤 시민이 함께 춤추며 더위를 물리치는 대규모 열린 춤판</p>



# Shall We Dance?

서울문화재단의 수상한 공공이에 동참한 춤 동지들.  
몸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의 쾌감을 맛본 이들은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단으로 도시에 춤바람을 일으킬 예정이다.







부녀는 함께 춘다, 부녀 참가팀  
**서동진, 서준하**



타고난 몸치라 춤추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딸아이와 추억 하나 만들고 싶어서 용기 내 신청했습니다. 올해 열 살인 딸은 움직임이 어색한 저와는 다르게 달리기를 좋아하고 재즈 댄스도 곧잘 춥니다. 특히 춤출 때 흘리는 땀이 무척 기분 좋다고 합니다. '땀이 기분 좋다...' 몸치에 움직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에게는 그다지 실감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워크숍에 참석해 춤을 배우면서 아이가 한 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제멋대로 팔다리도 흔들어보고, 말로만 하던 감정표현을 몸짓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땀이 참 기분 좋더군요, 정말. 아이 말대로, 함께 땀 흘리며 아이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큰 수확이죠.

춤은 정말이지 건강하고 솔직한 자기표현이었고 업무와 일상에 지친 저의 심신을 치유해주었습니다. '추억 하나 만들어보자'는 단순한 심산으로 시작했건만 오히려 제가 더 큰 치유 효과를 경험하고 있네요. 저에게도 아주 유익한 탈출구, 배출구가 되어주었고 나아가 우리 부녀 사이도 더 돈독해지겠지요. 우리 딸아이가 이다음에 나이 들어 어른이 되면 아빠 생일은 깜빡할 수 있어도 함께 춤춘 2013년의 이 시간은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거면 대만족입니다.

## 내겐 춤이 바로 램프의 요정 송예담



3년 전,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한 친구를 알았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하로 잠자고, 매일을 수영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상황마저도 괜찮은 상황으로 끌고 가려 매사 노력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 오겠지만 그 친구의 마음은 끝내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허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수영 같은 거 한다!' 그 친구의 수영 같은 것이 제겐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춤으로도 흥을 돋우는 사람이 되어 건강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을 들어줄 램프의 요정이 실제로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 놀라워라, <서울댄스프로젝트>! 제가 경험한 요정의 힘,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느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 고단한 서울살이, 지속할 에너지를 얻고파 이승훈



출근길 지하철은 너무 혼잡하고, 서울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 보이고, 도로에 자동차도 너무 많고. 한마디로 '삭막'하게만 보입니다. 저는 서울이 더 여유롭고 즐거운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이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해준 한마디에 기분 좋아져 웃으면서 길을 걷고, 좋아진 기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하면 그 말에 기분 좋아진 아르바이트생은 다른 손님에게 더 친절하게 되고. 이렇게 '기분 좋음'이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친절함, 즐거운 기억은 바이러스같이 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춤을 통해 이런 즐거운 서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으로 비롯된 즐거움이 서울 구석구석에 퍼지겠죠? 이 행복 바이러스에 서울이 전염되기를, 그렇게 변할 서울을 기대하며 춤단에 지원했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서울댄스프로젝트> 반드시 성공하기를!

40대 가장의 에너지를  
끄집어내려다  
**고길성**



2012년 아내와 딸과 <사심 없는 댄스>라는 공연을 보고 무대에서 제 가족과 출연진이 함께 피날레로 신나게 춤을 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그리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와 40대 아빠가 함께 소통하는 언어로서 '춤'이 제격임을 신명 내리듯 알게 된 것이죠. 서울문화재단의 뉴스레터를 보고 "바로 이것이다. 때가 왔어"라고 외치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40대 가장의 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고 싶습니다. 어두운 노래방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햇빛 속에서 추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타인과 눈 맞추며, 손 잡으며, 숨소리 느끼며 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춤단, 저의 가족 그리고 춤단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 세상은 살 만하구나! + 아, 저 아저씨 재미나게 노네 =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판을 꾸미고 싶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춘다  
**곽은정**



얼마 전에 실연을 해서 좀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서울댄스프로젝트>에서 춤단에 대한 소개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듯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주위 시선 의식하지 않은 채 신나게 춤 한 번 춰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개 동영상을 보고 난 후 자신만의 몸짓을 가지고 춤을 춘다는 게 감동적이었고, 저도 저렇게 나만의 춤을 추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저에게 서울은 항상 누군가와 경쟁해야만 하는 공간이었어요. 뛰어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곳으로까지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덧입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춤단 활동이 그동안 부정했던 나의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첫걸음이랄까, 한 걸음 내디뎠으니 앞으로 속도를 조금만 내보려고요.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

www.seouldance.or.kr  
www.facebook.com/seouldanceproject

서울댄스프로젝트와  
서울시민의 두근거리는 첫만남!

# 춤바람 선포식

2013.

05.12(일)

15:00~16:30

시민청 지하 1층  
활짝라운지

개막축하공연



## 춤은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생존 방식이다

**김윤진** 서울댄스프로젝트  
기획감독

춤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의 기획감독을 맡은 무용가 김윤진에게 물었다.

한국무용가이자 현대무용가, '김윤진 댄스컴퍼니'의 예술감독,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겸임교수인 김윤진. 그녀는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의 기획감독으로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 춤이 어떻게 우리 삶에 흘러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안에 내재된 감정들을 어떻게 춤으로 폭발시킬 것인지가 성공 관건인 이 프로젝트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윤진이다.



**〈서울댄스프로젝트, 춤추는 서울〉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아직 본 적이 없다. 이런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기획해서 실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는가?**

내가 강의하는 국민대에서 무용이 사회와 만나는 지점, 춤이 삶과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을 항상 고민해왔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에선 장르별로 무용을 가르치지만, 국민대는 특성화로 무용교육 콘텐츠 개발과 무용예술교육 차원에서 고민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10여 년 전부터 지향하던 것인데 이제 만나서 반가웠다. 창작자로서 최근에 작업한 〈구름마을 판타지 : 신화재건 프로젝트〉, 충무아트홀에서 작업한 〈춤추는 꽃중년〉 같은 작품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이다.

**여태까지 해온 프로젝트와 이번 프로젝트의 차이점이 있다면?**

많이 다르다. 기존에는 대학에서 강의로 이뤄지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업했던 것인데, 이 프로젝트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 수천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스케일 면에서 다르고 지향점도 다르다. 도시적인 삶과 춤을 생각하고 있다. 공공성도 생각해야 한다. 공공성이 무엇인지, 공공성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은 뭔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공성이 돈을 1/n로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나. 이 프로젝트에서 나는 춤이 삶을 어떻게 만나는지 보고 싶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 난 서울살이라고 부른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해왔던 작업과는 매우 다른데, 김윤진이라는 예술가가 이런 관 주도의 행사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며 걱정했지만 나는 주저 없이 달려들었다. 전문가들은 관 주도의 행정에 대해 100%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오히려 재미있어한다. 욕구에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주제적인 방식을 조직해나가는 것에 성패가 달렸다. 일상과 일탈의 경계, 다양하게 영역화된 춤 간의 경계, 관 주도와 자발적인 시민 참여 사이의 경계, 삶의 느슨한 경계를 넘나들어 볼 생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개입이 가능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이다. 걱정을 회피하거나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나. 난 비판을 수용하고 그것을 거름 삼아 발전시켜나가고 싶다.

**클럽에서 춤추고 트렌디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촌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소위 논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기존의 행사가 관제적이었기 때문이다. 형식성, 획일성, 일회성이 시민들의 자발성, 자유로움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다. 우리 프로젝트는 도전이고 모험이다. 시민의 잠재적 욕구를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우리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른다고 본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우리의 계획이 시민들의 다른 제안으로 대체될 수 있다. 열려 있는 프로젝트로서 중간에 도발과 전복이 가능하고 변혁할 수 있는 것이다. 재단 입장에서는 위험을 수반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다. 시민들에 의해서 자체 진화하는 프로젝트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인가.**

전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춤단의 안무 레퍼토리는 춤단에 들어온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진다. 또한 시민기획단은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정해지면 시민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서울의 어디에서 춤추고 싶으세요?’ 같은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시민이 응답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뿐만 아니라 ‘춤바람 커뮤니티’ 같은 사업에서 기존의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와 커뮤니티의 요구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토론이 있었다. 각각의 커뮤니티가 가진 일상, 장소, 배경을 제시하고 커뮤니티 댄스 전문가가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재미있을 것이다.

**춤단을 오디션으로 뽑는 것이 일반 시민에겐 이미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은가.**

책임을 가지고 주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 오디션이란 절차를 거쳤다. 일반 오디션과 다른 의도로 춤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고, 여기에서 뽑힌 춤단은 곳곳에서 게릴라 춤판을 통해 다른 시민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춤단은 자극제, 매개자이자 〈서울댄스프로젝트〉가 발굴한 커뮤니티이기도 하다.



서울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가 아닌 <서울댄스프로젝트>란 이름이 나는 맘에 든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힐링이다. 도시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서울댄스프로젝트>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 오디션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보는 것 외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게릴라 춤판에서 다양한 형태의 춤판이 벌어질 것이다. 테마댄스라는 주요 레퍼토리가 있고 이 댄스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테마댄스를 배우고 어디서나 출 수 있다. 춤은 완전히 짜인 것이 아니라 리듬에 동조된 형상이다. 춤판이 벌어질 때 시민이 이 리듬에 응하면 그것이 바로 참여하는 것이다.

**다른 플래시 몹과의 차이는 있는지.**

보통 플래시 몹(Flash Mob)은 단순히 특정 장소에 모여 춤을 추는 것인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첫째, 장소성이 매우 중요하고 둘째, 현장 시민과의 접점이 중요하다. 아주 순간적이지만 그 안에서 에너지의 장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춤을 통해 그 시공간에 머물게 된다. 순간적인 공동체, 춤이 촉발시키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흥미로울 것 같다.

**<서울댄스프로젝트>에 대해 감독님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게릴라 춤판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시민들이 자원한 시민 춤꾼이 만드는 춤판이고, 게릴라의 의미가 시스템을 교란하고 리듬을 깨는 전복적인 것이라 볼 때 두 가지의 조합이 항상 성공적이진 않겠지만 시도하고 좌절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야외에서 춤판을 벌이기 때문에 다같이 공유하게 된다. 항상 공연이 박수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같이 춤을 추는 것이다.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도 재미있다. 멋있게 추는 성공적인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와 관련하여 가장 어렵고 고민되는 것이 있다면.**

이분들의 자발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고민이다. 춤단의 경우 연습을 하며 춤을 추는 시민들의 에너지 레벨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고 있다. 이분들의 에너지가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있는데, 자발성, 모티베이션, 도전정신이 유지될 수 있게 우리가 판을 만드는 것이 고민스럽다.

**춤단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꾸리는 것인데, 막상 춤단의 공연을 보는 시민들이 생동맞게 쳐다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우리는 박수받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는데, 이런 것이 허물어지는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수받는 게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쇼다. 쇼는 정형화되어 있다. 감동받고 박수받는 고정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생경함과 낯설음 경험하는 것 자체가 창조적인 방식이다. 익숙한 것, 일상적인 것과의 결별, 낯설이 있어야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시민에게 이 도시는 굉장히 익숙하다. 도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춤단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아트다. '비생산적이다.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연고 없는 사람들이 다같이 춤을 추고 깔깔거리고 낯설어하는 것이 창조적인 활력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댄스프로젝트〉를 이끌 춤단 리더 5인.

(좌측부터)김윤진 기획감독  
박순호 선생님(춤 전담 예술가)  
김주현 음악감독  
김기훈 선생님(춤 전담 예술가)  
임소연 선생님(춤 전담 예술가)



**춤 이외의 것이 포함되나.**

서울의 의미 있는 장소를 습격해서 시민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싶다. 시민들의 제안을 받을 것이다. 강연을 할 수도 있고 퍼포먼스를 할 수도 있고, 춤이라는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발상을 실현하는 과정 자체가 흥미로울 것이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만들고 싶다. '춤단' 외에 백수연합회라든지 잉여인력이라든지 다양한 가치를 지닌 목소리를 충돌시켜보고 싶다. 사회의 전 영역이 시골벽적으로 부딪히는 소란스러운 장이 되면 좋겠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공동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기존의 영역화된 춤, 예술화된 극장 춤이 아니라 경계를 넘는 춤을 기대한다. 장르 구분, 춤추는 장소, 관계, 호출되는 방식(예를 들어 방송에 나오는 댄스들, 극장에서 예술이란 이름으로 작동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춤의 본령이자 가치가 드러나는 프로젝트이길 바란다. 더불어 이벤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담론이 되길 바란다.

**스스로에게도 큰 도전이겠다.**

위험하지 않은 프로젝트는 곧 죽은 프로젝트다.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도할 가치가 있다. 〈기생 비컴스 유〉란 작품에서는 당일 관객 3명을 로비에서 섭외해 그 자리에서 동의를 쓰고 투입시킨다. 트레이닝과 리허설이 있긴 하지만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한 번은 섭외한 관객이 무대에 서자마자 갑자기 못하겠다고 했다. 쓰러질 것 같다는 것이다.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설득하고 안정시켜서 그녀가 결국 역할을 하게 됐다. 그녀가 시조를 읊으면서 기생의 역할로 스며들어 가니까 모든 사람이 일시에 감동받으면서 박수를 쳤다. 관객들이 질문했다. 왜 이렇게 위험한 공연을 하느냐,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대답했다. 너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느냐. 삶은 통제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위험을 직면하는 수밖에 없다. 삶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삶의 거울이다. 우리가 그것의 균질화된 면만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삶과 도시는 균질화된, 잘 정돈된 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예술은 당연히 삶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잘 통제된 공연으로 담을 수는 없지 않을까?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겠다. 춤이란 뭘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경험이다. 춤단 워크숍에서도 볼 수 있었다. 춤단에는 잘 추는 사람, 못 추는 사람 다 섞여 있다. 그런데 테마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가 모두가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이 1초 정도 있었다. 온전하게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인 동시에 타자가 수용되는 시간이란 것은 재미있는 지점이다. '느낌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원래 춤은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날 너무 와해됐고 관리되는 것이란 의미로 변질됐다. 결국 몸에 대한 억압과 공동체의 붕괴 때문에 '커뮤니티 댄스'라는 말로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것이 원래 춤의 본질적인 가치다. 서울 '커뮤니티 댄스' 프로젝트가 아닌 〈서울댄스프로젝트〉란 이름이 나는 맘에 든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힐링이다.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서울댄스프로젝트〉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담고 있다. 서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개인으로 남아 있는가를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춤이 그 생존 방식에 대한 고민이자 힐링이라고 생각한다.

글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김준호

## 세상에는 수치화되지 않는 덧셈이 있다

### 조성환 조아제약 대표이사

사회공헌에 대한 야심 찬 대답을 기대했던 기자의 헛된 야심은 무너졌다. 대신 그는 제약회사라면 응당 그러해야 할 본질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사회공헌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긍정의 시선과 '기업을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고자 하는 비효율적인 행동'이라는 부정의 시선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시선과도 일치한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이 사라지면 당장 소비자인 우리가 불편해진다. 그러나 그 기업의 결과물이 우리 삶을 잠식하고 인생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시선 모두를 가진 채 조아제약 조성환 대표이사를 만나러 갔다. 걸치레에 가까운 사회공헌 활동인지,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캐묻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렇다.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란다. 그렇다면 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인터뷰를 위해 조아제약을 검색하자 '국내 몇 안 되는 일반의약품 중심 회사',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제정', '아마추어 복싱대회 지원', '영화 <연가시> PPL 진행' 등의 몇 가지 키워드가 회사를 대표했다.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키워드가 담고 있는 회사의 성격은 무엇일까?



조아제약의 착한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모든 행동에 대한 답이 그곳에서 파생된다. 창업주인 조원기 회장은 약사 출신으로 부산에 처음 약국을 차리며 제약업과의 인연을 시작했다. 좋은 약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저렴하게 공급하고 싶다는 생각은 점점 커져 1988년 부산의 삼강제약을 인수, 조아제약의 모태를 만들게 됐고 1995년 조아제약으로 상호를 바꿔 지금까지 처음의 창립이념을 지켜오고 있다. 조아제약은 그때나 지금이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만을 만든다. “제약회사의 본질, 가장 큰 사회공헌이 무엇일까 고민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좋은 약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제약회사의 본분이자 가장 큰 사회공헌이 아닐까 하는 답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멋진 포장을 기대했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다.

질 수 없다 싶어서 2009년 제정한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과 '아마추어 복싱대회 지원'에 관해 물었다.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하며 대중에게 자랑하기 쉬운 스포츠를 사회공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고. 이래도 사회공헌에 별 목적이 없냐고. “스포츠를 생각한 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다가보다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10년 전쯤 회사에 위기가 닥쳤다. 직원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착안한 것이 바로 사내 동호회, 그중에서도 야구 동호회였다. “직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해서 시작한 것이 사회공헌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돌아가며 시상을 한다. “시상대에 직접 직원이 오르면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그 과정에 직원이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 뿌듯함. 이런 건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약을 파는 회사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나름 사회에 기여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모르게 갖게 되는 것. 사회공헌이 사람을 위함이라면 조성환 대표이사야말로 안팎으로 제대로 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은 사회에 환원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은 스스로 가치 있는 회사,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이 착한 순환 고리. “그냥 직원들을 위해서 시작했다”는 그의 가감 없는 대답이 현답이었음을 느낀다.

이번에 조아제약은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장애아동 창작지원 사업 '프로젝트 A'에 후원을 나섰다. 장애아동 5명을 선발해 예술가와 멘토-멘티의 개념으로 함께 공동 예술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예술의 치유능력과 소통의 힘을 심분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이 프로젝트의 어떤 점이 조성환 대표이사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처음 프로젝트 후원 제의를 받았을 당시, 그를 사로잡은 것은 한 작품이었다고. 담당자가 들고 온 그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것을 제품 패키지에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사업적 측면에서 우선 접근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런데 그 작품을 장애아동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는 다시 회사의 이념으로 돌아가 봤다. “장애를 만약 질병이라고 본다면, 약으로는 한계가 있는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을 공급하기에는 저희 회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예술이 그들을 낫게 하고, 사회와 소통하게 한다면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제약회사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이것이 가외의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대답을 들려준다. 앞으로 조아제약은 단순히 금전적인 후원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 시 임직원이 함께하거나 작품을 제품 패키지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후원사업 참여를 설명하며 이런 말을 했다. 사회공헌의 가장 좋은 면은 '더하기'라 생각한다. “이런 무형의 과정을 통해 1+1=2 라는 정량적 측면의 더하기 말고, 숫자로 매길 수 없는 더하기의 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를 걱정하고, 직원의 안위를 걱정했던 단순한 질문과 바람에서 출발한 조아제약의 행보는 아마 계속될 것이다. 그에게 앞으로 사회공헌의 계획을 묻자 사람 좋은 얼굴로 배시시 웃으며 말한다.

“이제껏 보여줄 목적, 효용성의 가치를 계산해 일련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 것이 아니듯,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미리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할 줄 알았다. 그저 기업의 이념과 논리에 맞는, 응당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대답이 성의 없다 생각될 수 있지만 생각해보자.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기업. 조성환 대표이사께서 작성한 '해야 할 일'의 리스트가 좀 남다른 것뿐이고 실제 많은 기업이 이 해야 할 일을 따로 떼어서 이윤을 남기려 든다. 물론 그도 셈을 할 줄 안다. 그의 셈이 조금 더 특별할 뿐. 그의 특별한 셈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

# 창조적 공존이 예술을 이룬다

예술가이자 과학자이며 비평가인 부부,  
김형수와 김호진





미디어 퍼포먼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11.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예술 영역을 이끌어낸 이들 부부의 직함은 복잡하다. 예술과 과학, 예술과 비평. 서로 대치되는 장르의 온화한 융합, 공존을 이끄는 이들의 작업물 역시 융합과 협업으로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스코틀랜드 페스티벌 초청을 앞둔 이들 부부를 만나 끊임없는 창조의 원천과 협업의 근원, 그 세계관을 물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시간을 붙잡아 두지 못하는 회화의 무능력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 인간은 캔버스를 ‘창(窓)’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기계 인터페이스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창’의 역할은 캔버스가 아닌 스크린이 대신하고 있다. 아예 시간을 단위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게다가 그것을 지속시킬 수도 있게 되었으니 스크린은 그야말로 마법의 세계 그 자체와 다름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비물질을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보여줌으로써 물질과 공간 사이의 오랜 제약 관계로부터 벗어나게도 해준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동요는 결국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자연스럽게 체화한 인간의 창의성에 의해 그 미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글의 두 주인공 김형수 교수와 김효진은 전자 미디어의 유동적인 속성과 해체적인



관계성을 관습적으로 대하는 현대인의 경험 구조를 씬 없이 성찰해온 예술가이자 과학자이고 엔지니어이자 비평가다. 르네상스 시대의 보편적 인간상이 이들 예술가들에게서 또 다른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사람이 서로 손을 잡듯이, 스크린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은 세상을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표현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미디어의 진화를 예술의 진화, 나아가 인간의 진화로 확장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융합적 예술 영역을 제안하고 개척해온 김형수와 김효진은 부부다. 김형수는 미국 칼라즈에서 사진을 전공한 후 1993년 금호갤러리에서 개인전 <미국낙서>를 열었다. 디지털 이미징을 적극 도입한 당시 작품들은 스승인 세계적인 사진가 앨런 세쿨라(Allan Sekula)의 격찬을 받았지만 ‘순수’ 개념을 둘러싼 한국 미술계의 이분법적 지형은 그를 ‘순수한’ 사진 예술가로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을 거쳐 지금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 전공 주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기술이 문화콘텐츠 창작의 주요 동력이 되어가는 시대의 정신은 김형수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다. 그 길에 부인 김효진이 함께해왔다. 이화여대에서 무용을 전공한 김효진은 와이맵(YMAP, Your Media Art Project) 대표로서 미디어 퍼포먼스 <춤 추며 산을 오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봄의 제전> 등을 통해 실험적인 안무와 연출력을 선보였으며, 김형수도 이들 작품에서 예술감독으로 협업해왔다. 김형수와 김효진의 협업은 무용과 영상



“사람이 서로 손을 잡듯이,  
스크린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은 세상을  
프레임에 가두지 않고 표현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미디어의 진화를  
예술의 진화, 나아가 인간의  
진화로 확장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이의 단순한 결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의 미디어 퍼포먼스는 춤을  
설명하기 위한 미디어가 아니며, 미디어를  
장식하기 위한 춤도 물론 아니다. 애초에  
예술로서 춤의 깊은 이상이 근대적 분과  
구조를 거치면서 스스로의 자유를 억누르는  
체제를 갖추었다는 사실은 김효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다. 그녀는 춤이  
가지는 생명력과 그 에너지를 떠받칠 수  
있는 인간적인 수용의 맥락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의 탐구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에서 인간-기계-예술의 새로운  
관계성을 찾고자 했던 남편 김형수의  
생각과 교집합을 만들게 된다.  
두 예술가의 멈춤 없는 협업의 향연은  
2013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도  
펼쳐질 계획이다. ‘문화 올림픽’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총감독 조너선 밀스(Jonathan  
Mills)는 시각예술 섹션에 김형수를, 무용  
섹션에 김효진을 초대했다. 김효진은  
작품 <자유 부인(Madame Freedom)>을  
가지고 간다. 무대의 벽은 인위적인 공간적  
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인식하고  
해체해야 하는 대상이다. 1950년대  
우리의 흑백영화 화면이 그곳에 투사된다.  
김효진은 우리 근대 여성의 정체성과 그

둘레의 신화에 대한 견해를 풀어놓는다.  
디지털 미디어에 의한 영상과 춤의 결합은  
관객들에게 예술적 경험의 상황성과  
그 효과를 지적으로 일깨울 수 있다.  
과거라는 시간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춤을 통해 에너지를 표출하는 그녀의  
운명에 비추어보면 당연할지 모르겠다.  
춤추는 몸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지나쳐버리면서 생기는 수많은 시간의  
허공은 예술가 김효진에게 미디어를 통한  
춤의 확장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미 사라진  
것과 곧 사라질 것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고궁에서의 공연으로 이어져 세간에 화제가  
된 바 있다.

올해 에든버러 페스티벌 참가작의 미디어 스킨 시뮬레이션.  
에든버러 아서 홀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김형수는 예술과 테크놀로지 융합의 역사적 두 기둥,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백남준의 작품들과 함께 시각예술 색션을 채운다. 김형수가 시도하는 테마는 '미디어 스킨(Media Skins)'이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고도(古都) 에든버러 시의 중심에서 실험적 소리와 역동적 공동체의 호흡을 숨쉬며 100년의 세월을 지켜온 어셔 홀(Usher Hall)은 김형수의 영상을 입게 된다. 김형수의 미디어 파사드는 한여름 어느 오래된 건물을 감싼다. 스킨이 되어 투사되는 영상의 주요 소스는 우리의 아리랑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백두산과 에든버러 등의 모습이다. 대형 LED 스크린은 테크놀로지의 현재를 일러주면서도 예술가에 의해 이루어진 기계와의 접합이 만들어낼 새로운 유형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김형수의 미디어 스킨 작품을 국내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모니터로 보이는 이미지는 각각 다르다. 모니터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고 누가 보는가의 문제는 미디어 장치의 엔지니어링 측면에 대한 지식 못지않게 비평적 촉각을 세워야 해결될 수 있다. 김형수는 이 부분에서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스스로 확인한다. 서울의 신촌 세브란스 병원 본관에는 55인치짜리 LFD(Large Format Display) 모니터가 8대, 한국항공우주원에는 64대가 전시되고 있다.

페스티벌 준비로 한창 바쁜 와중에 필자를 만난 두 예술가는 새롭게 도전할 세계에 대한 설렘과 희망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서로의 작품들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적 의제들, 미디어의 편협한 상업화 등에 대해 날 선 토의를 이어갔다.

예술과 테크놀로지는 서로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고 서로의 뜻을 억누르지 않을 때 진정한 융합을 이룰 수 있다. 그렇듯이, 김형수와 김효진 역시 서로의 의념과 뜻을 긍정적으로 읽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대화에 익숙해 보였다. 인류의 근대가 개인적 정감과 개체성에 충실할 것을 요구해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또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관습 역시 우리에게 무척 익숙하지만, 감각적인 신체와 비물질의 이미지가 영켜 공존성을 창조할 가능성은 오히려 무궁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일상에서 느끼고 산다. 그래서 더욱 김형수와 김효진 부부 예술가들이 서로에게서 얻는 미학적 역동성과 그것의 협업적 결과물이 궁금해진다.



## 재능기부를 둘러싼 직언직담

# 세상도, 예술도 기브앤테이크야

가치를 매기기 힘든 무형의 자원을 소유한 예술가들이 '올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재능기부, 좀 제대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쉽지 않아 보이는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 '재능기부'라는 명목 아래 활동 중인 4팀의 예술 단체가 모였다. 서울문화재단 문화나눔팀에서 재능기부를 주관했던 장오경 씨도 참가해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새겼다.



### 자기소개 좀 해달라.

**공새미 가족** 저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아빠, 엄마, 아들, 딸 가족으로 구성된 사물놀이패예요. 세계를 떠돌며 거리 공연을 했고, 현재도 공연을 계속하고 있지요.

**매직 플레이** 그림자쇼, 새도 아트를 하는 공연 기획사입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찾아가는 공연, 지자체 등과의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벨리퀸즈** 벨리댄스도 추고, 밴드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어요. 벨리댄스만 하기에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웃음)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이하 코리아 윈드)** 저희는 관현악 중심의 오케스트라입니다. 대중이 편하게 클래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팝과 접목된 공연도 많이 하고 있죠.

### 재단과 재능기부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되었나?

**공새미 가족** 2005년 서울문화재단의 청계천 거리 아티스트에 선정돼서 8년 이상 활동했어요. 지금은 시민청으로 자리를 옮겨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직 플레이** 서울 거리 아티스트로도 선정됐었고, <사랑의 문화나눔>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많이 했어요.

**벨리퀸즈** <문화나눔 행복 서울>의 일환으로 진행된 <친환경 극장>에 참여해 서울의 주요 공원 등에서 주말마다 공연을 했습니다.

**코리아 윈드**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장소를 돌며 주말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 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재능기부로 연결되어 있으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재능기부를 통해 얻은 것이 있나? 일단 훈훈한 이야기로 시작하자.

**공새미 가족** 청계천 거리 아티스트로 지정되며 주로 실외 공연을 많이 했어요. 저희 가족은 오히려 실외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장르와 딱 맞았다고나 할까. 처음엔 지하철 공연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관객의 호불호가 갈리는 장소라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시원하게 트인 청계천으로 나오게 되니 좋더라고요. 처음엔 한국 관객이 다수였지만 나중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70~80%에 달했지요.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알리며 저희도 에너지를 얻는다는 장점



**사물놀이패, 공새미 가족**

**김영기 (아빠), 강성미 (엄마)**

2004년에 온 가족이 전 세계를 돌며 우리 고유의 문화를 나누고 관객과의 소통에 나섰다. 전 세계 100개 도시에서 거리 공연을 했고, 청계천에 거리 공연이 생길 때부터 함께한 재능기부 1세대 격이다. 현재 시민청에서 공연을 지속 중이며 거리 아티스트로 8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가장 크죠. 저희를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진심을 전하는 과정이랄까. 재능기부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주로 거리문화의 특성과 잘 어울려서 저희는 이런저런 시너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요. 공연을 마치고 뒤돌아섰을 때 관객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힘을 줍니다.

**벨리퀸즈** 현실적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산은 어디서 나셨나요?

**공새미 가족** 저희는 예산 없이 했습니다. 가치를 지니고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벌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회에 우리가 가진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거리로 나선 것이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시다. 어려워도 멈추지 않았죠. 나름대로 무형의 자산을 끌어가고 있다는 긴 안목,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교류감 같은 것이랄까. 거리 아티스트 활동을 하며 단순히 공연에 대한 물질적인 부분, 개런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나 장소,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서울문화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은 셈이고요.

**벨리퀸즈** 이 대답을 섭외받고 생각해보았어요. 도대체 재능기부란 말이 언제부터 쓰인 거죠? 예전에 예술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찾는데, 예술가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주제로 쓰인 것은 없더라고요. 예술가는 도움을 받는 피동의 위치였어요, 항상. 그 이후로 예술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재능기부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공연할 수 있는 기회, 공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다만 힘들게 공부해서 얻은 재능인데 왜 사회는 기부만 원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기관이나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는 항상 도와달라, 기부하라고만 말해요. 다들 기부만 원하면 우리는 어디서 먹고살죠? 이걸 최근까지 친구들과 공유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공새미 가족** 저희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기본적으로 이것으로 먹고 살려는 취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공연을 하며 느끼는 점이 있다면,

지원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지가 공연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공연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관객에게도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힘도 안 나죠. 분명히 그런 건 있어요.

**매직플레이** 이게 다 인식의 차이로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재능은 무형의 존재'라는 인식. 무형의 가치를 쉽게 생각한다는 점이 큰 문제겠죠. 듣고 보면서 감정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는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는 생각보다 낮죠. 그래서 평가절하당하는 거고. 고생해서 공부한 것에 대해 아티스트는 스스로 값을 매기지만 관객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아해 하죠. '예술'의 가치에 대한 보편화된 인식이 없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도 예술가도 지자체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재능기부'에 대해 확고한 기준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가?**

**매직플레이** 재능기부 판단은 예술가들 스스로 해야겠죠. 저는 일단 이렇게 나눕니다. 큰 단체의 섭외 공연은 재능기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능기부를 빙자한 섭외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안목이 필요하죠. (일동 웃음) 참 기준이 애매하긴 해요. 거절하면 무대에 설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니까.

**코리아윈드** 재능기부를 직업적으로 하느냐, 순수하게 인도적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요. 예술가도 직업입니다. 물론 먹고살려고 하든 기부로 하든 받는 돈은 똑같겠지만. 직업이라면 기준이 있어야 할 테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매직플레이** 누구를 위한 재능기부인지를 먼저 생각해볼 때예요. 보는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인지. 보는 사람을 위한 기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 공

연이나 길거리 공연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적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면 예술가 스스로 그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곤란하죠. 재능기부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나요? 그럼 서로 힘들어져요. 예술가 스스로 정의,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코리아 윈드** 한 시간 정도 이야기했는데 재능기부가 뭔지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있네요.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는 태도를 지금이라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재능기부라 해도 이건 너무하다, 싶은 건?**

**벨리퀸즈** 주변 예술가들에게 요즘 먹고살 만하냐고 물어보면, 관공서가 주관하는 지역 축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참가한대요. 처음에 도와주면 다음에는 예산을 받아서 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달랑 30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그다음에 다시 섭외가 들어왔을 때 정당한 금액을 요청하면 못 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행사에 관련된 다른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을 텐데, 왜 예술가 섭외와 관련된 항목은 없죠? 그냥 '기부', '지출 없음'이라고 되어 있나요?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단원이 40명입니다. 우리는 지출이 커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을 전부 전문 단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사회자인 저는 안 받습니다. 나는 경제적인 부분을 초월했는지언정, 단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해요. 재능기부, 적게 받는 것 알죠. 그러나 개인의 사비까지 털어서 재능기부를 지속하는 건 좀...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되게 해줘야지. 재능을 기부하는데 내 실비도 기부하라고?

**벨리퀸즈**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 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물론 마이너스의 기준은 다르지만. 해당 재능이 직업적인 것이건 아니건 받는 돈은 똑같아요. 똑같이 적죠. 그렇다면 돈으로 매출



수 없는 다른 부분을 채워줄 장치가 필요해요. 유명세도 없고 돈도 못 받는 게 과연 그 예술가의 자리매김에 도움이 될까요? 정부에서 재능기부 제도를 보완할 때 고민해줬으면 해요. 현재 아마추어와 프로도 너무 섞여 있어요. 재능기부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오히려 프로에게는 좋지 않아요. 마음 편히 재능기부를 하려면 유명해지는 것이 먼저일까요?

**공세미 가족** 전 재능기부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재단 자체에서 재능기부할 사람을 모으죠. 아마추어부터 프로

까지. 몇 번의 재능기부를 통해 예술적 가치는 인정받는 대신 그 사람의 금액이 고정되죠. 요즘은 '재능기부=봉사활동'이라는 공식이 너무 당연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술은 점점 평가절하되고 저변화되고 있어요.

**벨리퀸즈** 돈을 적게 준다면 홍보라도 되어야죠. 심지어 분야별로 차별도 있어요. 재능기부 자체가 안 될 때가 있더군요. 그 기준도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선정하는지 궁금하네요. (사회자에게) 선정 기준이 뭐죠? 벨리퀸즈 공연팀은 운영이 힘들어요. 벨리퀸즈는 예술적이지 않다면서 열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

(위) 최종길 대표, (아래) 진항두 사무국장

1992년에 창단된 관악기 위주의 오케스트라. 클래식을 팔파  
접목한 공연으로 대중과 오케스트라의 접점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 정기공연 외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문화센터,  
쇼핑센터 등지에서 시민을 만난다.

외로 취급하거든요. 현대무용이나 발레 같은  
고상한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술의 기준은 그대로인가요? 업  
데이트 안 하나요?

**왜 재능기부를 두고 실비 운운할  
정도로 문제가 커졌다고 보는가.**

**코리아 윈드** 별려놓고 봉합은 못하고... 제대로  
된 팀에게 기회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벨리퀸즈** 지자체 여기저기에서 요청하기 시  
작하면서 공연은 으레 예술가의 재능기부로  
운영한다는 게 굳어져서있죠. 또 한 번이라  
도 무대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진 것도 문제고요.

**공새미 가족** 기획자가 끼어들면서 예술인을 재  
능기부라는 미명 하에 모집해서 도구화시키  
고 있죠. 결국 남는 건 진심밖에 없어요. 사  
람들이 얻어가는 에너지, 그게 재능기부의  
핵심이고 원천이에요. 문제는 돈이 없히고  
기관이 얽히면서 생겨요. 여기저기서 재능기  
부를 요청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면서 문제  
가 생긴 것 같아요.

**코리아 윈드** 사실 예술가 입장에서 정 책을 따  
라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  
도 예술가가 자기 돈을 쓰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와야죠.

**공새미 가족** 공감합니다. 최근에 시민청으로 옮  
겼는데, 공간 자체는 참 베스트예요. 근데 많  
은 아티스트들이 빠져나갔어요. 왜일까요?  
한 달에 한 번 서는 무대도 귀한 사람들인데,  
요지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  
하는 돈이 엄청난 수준이 아니라는 건 다 아  
시죠? 큰 공연료가 아니라 공평한 공연료.  
어떨 때는 참 서운해요. 재능기부라는 제도  
를 만들었으면 예술가에 대한 배려도 필요  
하잖아요. 지원금은 물론이고.

**코리아 윈드** 예술가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재능  
기부로 버는 돈과 다른 예술 활동으로 버는  
돈은 달라요. 그러니 다르게 접근해야죠. 재  
능기부의 취지를 기억해야 해요. 최소한 내  
돈이 안 들어가지만 하면 재능기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동참해야 재능기부 아닐까

요? 지원과 재능기부가 몽  
뚱그려져 생각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요. 보조금과 재능기부는  
별개의 문제죠.

**공새미 가족** 기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  
데 이게 참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 선생님께서도 '내가 하려  
고 했기 때문에 송고하게 가야 한다'고 말씀  
하시면서도 '그래도 인원이 40명이니 식사  
비는 나와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 두 가지  
를 조화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술가 스스로도, 심지어 저희는 그  
식사비도 없어요. 이게 허탈해요.

**코리아 윈드** 막상 공연 장소에 가서 공연을 못  
하는 때도 많아요. 제대로 연주되지 못하면  
그건 공연도 아니고 기부도 아니고 아무것  
도 아니죠.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세팅  
된 팀이 예술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죠.  
떡살 잡고 싸우는 지하철 안에서 무슨 공연  
이 되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소음이  
고 우리한테도 괴로운 거고...

**그런 경우가 반복되면 이용당한다는  
생각은 안 드나? 보고 싶어서 온  
사람과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은 집중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벨리퀸즈** 공새미 가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  
럼 재능기부를 빙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예요. 저도 물론 나보다 못한 소외계층을 위  
한 공연은 기부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해요. 그렇지만 현재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  
연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부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 두 가지 활동이 섞이면서 스스로  
도 혼란이 와요. 집중도를 떠나서 내가 여기  
서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기부의  
영역과 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일단 필요  
할 것 같네요.

**공새미 가족** 저희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만난다  
는 것 자체에 큰 가치를 두고 시작한 것이라  
관객이 있고 없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 공연이 다 그런 거고, 그런 매력으로 하

는 거죠, 뭐. 대신 너무 많은 재능기부가 종  
 황으로 뻗어 있다는 건 문제죠. 재능기부의  
 형태가 아니면 공연할 생각도 못하니.

**공연할 기회도 못 얻는 사람이  
 많은데,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도  
 생각한다.**

**벨리퀸즈** 아니, 아까부터 돈이 아니라 홍보  
 라도 되면 의심 없이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나요?

**사회자** 서울 거리 아티스트로 활동한 사람  
 중에 슈퍼스타K4에 나왔던 홍대광 씨가 있  
 습니다.

**벨리퀸즈** 그분이 슈퍼스타K4에 안 나왔다  
 면 그만큼 인지도가 올라갔을까요? 거리 아  
 티스트로 활동하다가 발탁된 것도 아니잖아  
 요. 거리 아티스트 백날 해봤자 방법이 없으  
 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가신 걸 테고.

**사회자** 그래도 인지도와 연관해서 생각하  
 는 시각도 있습니다. 보통 예술가들은 자기  
 돈으로 전시회를 열고 무료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리 아티스트 활동을 한다면, 적어  
 도 관객을 스스로 초청할 일은 없지 않나요?

**벨리퀸즈** 그런 시각이 문제 같은데요. 이 정  
 도면 감지덕지라는 식인데... 저희는 이거  
 직업이에요. 생활을 걸고 하는 거예요. 보람  
 도 좋지만 생계도 가능해야 하는데.

**코리아 윈드** 적어도 실비는 나와야...

**일동** (웃음) 그렇죠.

**사회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초창기에는  
 매직 플레이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리 공연을 하고 대외적으로 서울시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때가 부흥기였나요?

**매직 플레이** 아, 네, 좋았어요. 좋았고요.(웃음)  
 저희가 한 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된 건 사실  
 이에요. 이런 부분이 재능기부의 순기능이라  
 고 봐요.

**벨리퀸즈** 저도 어디 소속 아티스트라고 홍  
 보 자료에 다 기재해요. 프로로 활동하는 사  
 람이 아마추어랑 함께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건 불가능하죠. 함께 설 무대가 필요해요. 당  
 연히 프로와 아마추어를 다르게 대우해야



죠. 돈이 아니라 무대 위의 혜택으로 주어지  
 면 좋겠죠.

**코리아 윈드** 실비도 쉽지 않은데, 이런 것까지  
 될까?

**벨리퀸즈, 공세미 가족** 이게 실비보다 낫지 않을까요?

**다른 혜택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말하는가.**

**벨리퀸즈** 베니핏이 있어야 해요. 돈이든 홍보  
 든 뭐든. 공연의 퀄리티든 뭐든 하나는 확실  
 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드는 생각인데, 왜 예  
 술가한테만 기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음향

업체에도 기부받고, 조명 업체에도 기부받고.  
 그러면 안 돼요?

(일동 웃음)

**매직 플레이** 그 사람들은 안 해도 그만이겠죠.  
 예술가야 한 번이라도 무대에 서고 싶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업체들이야 이 기회  
 아니어도 할 일은 많을 테니까.

**벨리퀸즈** 왜 재능기부는 예술가만 해야 돼요?  
 왜!

**공세미 가족** 일단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말로



**벨리퀸즈 대표 김민선**

국제벨리퀸즈 협회장으로도 활동했던 그녀는 '벨리퀸즈'라는 벨리퀸즈 공연단을 운영 중이다. 벨리퀸즈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초기, 수년간은 공짜로도 무대에 서며 벨리퀸즈 알리기에 집중했다. 현재는 벨리퀸즈와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재능기부를 지속하고 있다.



**매직 플레이 대표 여성구**

매직 플레이는 스토리가 있는 그림자 쇼, 마술, 뮤지컬 갈라쇼 등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리가 어릴 때 흔히 하는 그림자놀이로 스토리를 붙여서 공연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SBS TV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해 3연승을 거뒀고 재단, 시청, 관공서를 대상으로 다수의 공연을 진행했다.

만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지 말고요. 예술가가 백번 양보해 기부를 했으면, 분위기나 환경이라도 만들어줘야죠.

**매직 플레이** 기업은 재능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보죠. 예술가들도 거의 1년 정도 고정적으로 재능기부를 합니다. 세금 혜택이라도 있으면 할 맛이 나지 않을까요.

**사회자** 사회 외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 간접 보상 시스템?

**매직 플레이** 그냥 상상해봤습니다. (웃음)

**벨리퀸즈** 재능기부의 경우에는 교통비, 식사비, 음향 설비, 이런 것에 값을 매기면 어때요? 예술가의 재능에 매기는 값이 아니라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니까.

**공새미 가족** 기본적으로 설비에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 문제죠. 단발성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한 번 하는 건 가능하죠. 이게 지속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시민청에 소속된 팀들도 다 선발된 거예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그 팀들에게만큼은 공평하게 뭐가 주어져야죠. 아까 말씀하신 실비? 마음을 담은 대우? 이런 거라도.

**만약 그 공평한 지원 없이 순수하게 '기부' 형태로 바뀐다면? 그래도 계속 하겠는가.**

**공새미 가족** 저희는 하고 있고, 그래도 할 거예요.

**코리아 윈드** 안 할 팀도 있겠고, 그래도 하는 팀도 있겠죠. 서울시의 후광을 입고 경력을 쌓으려는 사람들은 하겠죠, 뭐.

**매직 플레이** 진짜 실비만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면 얼마나 지원할까요? 신청할 단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뭘 얻을 것이 있다고, 저라면 안 할 것 같네요. 아주 솔직하게.

**간접지원의 형태라도 더해진다면?**

**일동** 네네, 그렇다면 하죠. 직접적인 돈 외에 다른 간접 형태에 대한 효과도 연구하나요?

**장오경** 담당하면서 모든 분이 비슷하게 느낄 텐데, 재능기부가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많이 해요. 실제 미

국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무대가 많아서 법률 지원이나 컨설팅도 제공하죠.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그 방향이 가장 맞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사회자** 예술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문 상담 센터나 매칭 프로그램이 생기면 좋겠죠.

**공새미 가족** 예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늘 공연을 계속하지만 예술가가 스스로 질을 높이기 위한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회에서 좀 메워주면 좋겠어요. 충전된 부분은 공연에서 다 드러나요.

**장오경** 다른 분야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예술가 본인의 발전 기회, 충전 기회도 되고요.

**벨리퀸즈** 그래야 기브앤테이크가 되죠.

**공새미 가족** 서울문화재단의 워크숍 같은 소통의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서로 충전할 수 있게요.

**코리아 윈드** 별개의 얘기인데, 서울문화재단은 올해 어떤 일을 하죠? 재능기부에 참여할 기회가 뭐가 있으려나. 오늘 대담에 참석한 단체들에 뭔가 베니핏이 주어져야 하지 않나요? 여기까지 열성적으로 왔는데!

(일동 웃음)

예술가와 예술강사 사이, 이영미의 삶

# 나는 매일 즐거운 시소를 탄다

예술가를 꿈꾸며 예술강사라는 현실의 직업을 택한 예술강사 이영미가 고백하는 삶. 돈으로 환산하지 않은 그녀의 밥그릇 안에는 예술가와 예술강사 사이의 쓰린 간극을 잊고도 남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

규정영

## 시소를 타본 적이 있나요?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놀이터에는 시소와 미끄럼틀, 그리고 그네만 달랑 있었다. 몇 가지 안 되는 놀이기구뿐이었음에도 난 시소는 거의 타지 않았다. 균형을 맞춘다는 것에 도대체 재미를 느낄 수 없어서였다. 비슷한 무게의 아이들이 주거나 받거나 콩닥거리야 즐거울 텐데, 그보다는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 킁킁거리거나 갑자기 상대편 아이가 일어나버리면 쿵 하는 충격이 온몸을 뒤흔드는 걸로 마무리되는 놀이였으니 재미보다는 긴장과 짜증의 되풀이였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난 시소에서 놀 땐 혼자서 더 좋았다.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놀이기구로 내 맘대로 바꿔버린 거다. 그 아련한 유년기의 시소가 떠오르는 직업이 바로 예술강사다.



올해로 9년차 예술강사인 나에게 '예술강사'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무게가 더해가는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다. 아주 어려서부터 나의 꿈은 작가였다. 그 외의 장래희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은 미취학 아동기부터 내내 작가였다. 작가라는 지칭이 나에게겐 성찬이었고 '이 작가'라는 부름은 숨사탕을 한입 베어 문 듯한 달콤함이었다. 작가라는 성찬을 위한 준비가 강사였다. 처음은 그랬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한 아르바이트 덕에 '선생님'은 일상의 단어였고 다행히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잘 맞았기에 보람 있고 즐겁기도 했다. 2년차까지도 그랬던 것 같다. 학교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의무와 행정 업무 없이 오로지 아이들과 마주하면 되고, 내가 주고 싶은 걸 마음대로 떠먹여 줄 수 있고, 즐거운 웃음까지 공유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 싶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술강사로서의 학교 수업은 놀이터의 즐거운 시간과도 같았다. 신나게 웃으며 더 멀리, 더 높이를 외치던 나는 갑작스러운 쿵 하는 충격음과 함께 모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얼얼한 엉덩이의 충격. 그네를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소였던 거다. 나는 나 자신이 예술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예술강사로서의 수업이 다른 수업보다 즐거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가였던 강사가 되고 있었다.

나는 누구지? 물론 나는 예술강사다. 나를 꽤 멋진 예술강사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예술강사가 되려면 예술가여야 하는데 현재 나는 예술가인가? '이 작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5년차, 7년차가 되면서 직업의 정체성이 헷갈리기 시작했다. 타이어가 망가진 시소를 타다가 엉덩방아를 찧은 아이들처럼 주변의 예술강사들이 엉거주춤 엉덩이를 움켜잡고 떠나갔다. 나는 팔을 벌리고 똑바로 서려고 노력한다. 3일 이상은 수업을 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이상 무언가를 배운다. 발표되지 못하더라도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그게 안 되면 서로 독려하며 예술가와의 만남이라도 지속한다. 예술강사에겐 균형 감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참 쉽지 않은 직업이다.



## 꿈 더 크면요~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이미 다 컸는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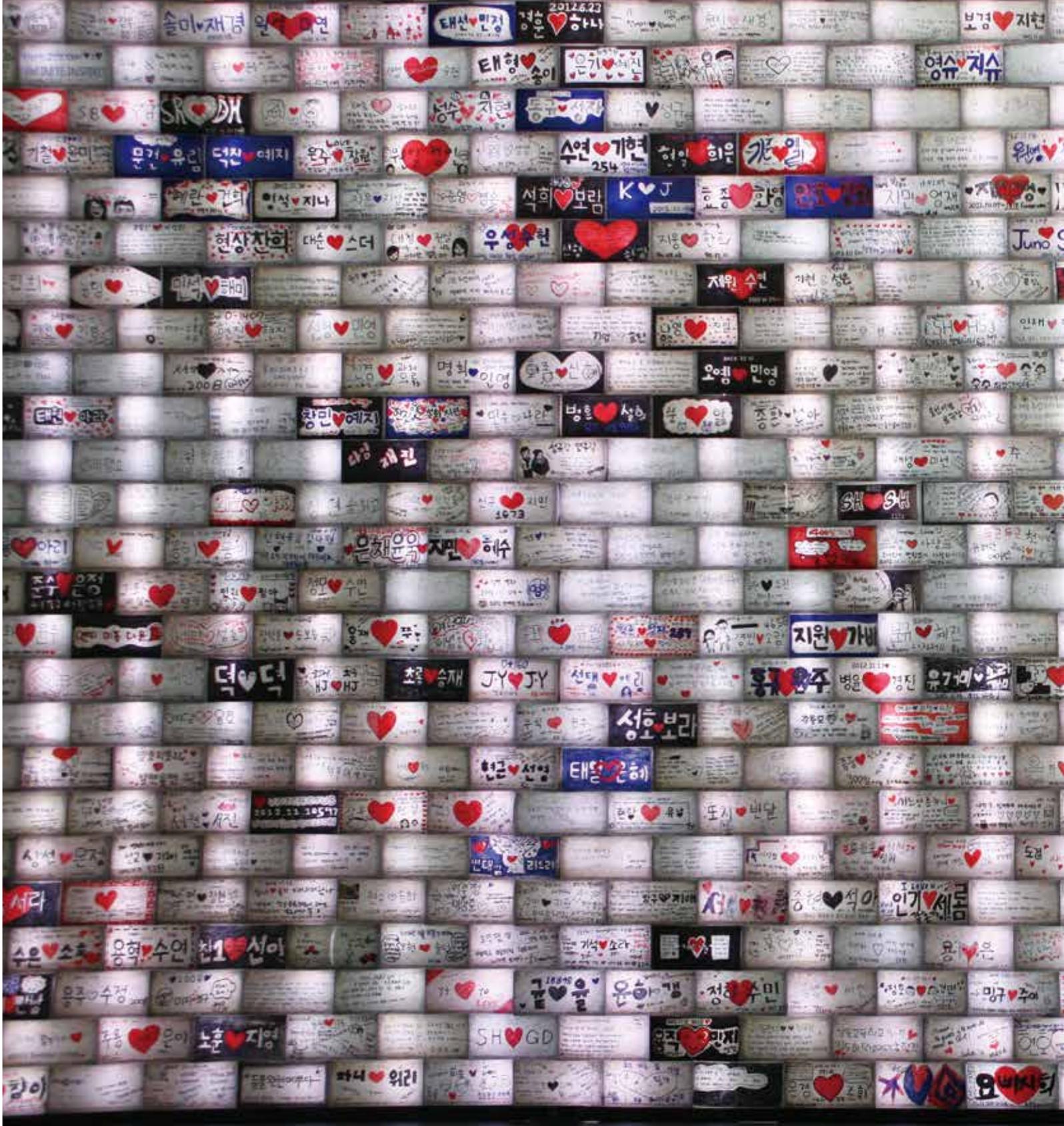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는 나에게 “아뇨, 더 크면요~”라고 진지하게 묻던 녀석이 있었다.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다. 그 당시 나는 대학 졸업 후 방송작가로 활동하다가 학습만화 스토리를 쓰고 연재도 좀 하며 이렇저렇한 잡지에 글도 기고하다가 20대 여자 혼자 프리랜서의 세계에 살아남는 것의 만만치 않음에 지쳐 학교로 돌아간 참이었다. 그런 내게 그 아이의 ‘더 크면요~’라는 말은 새삼스러운 깨달음이었다. 왜 까먹고 있었을까, 아직도 더 자랄 시간이 있다는 걸. 그 아이는 엄청나게 게으르고 매사에 흥미 없던 학생이었는데도 이 질문 하나로 내게 언제까지나 기억될 녀석이 되어버렸다. 그 후 내 마음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생각날 때마다 물을 주고 별을 쬐이며 바람도 보낸다. 시소타기에 지치면, 같이 타던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서 시소에 길게 누워 내 마음의 나무를 불러본다. 나는 더 크면 무엇이 될까? 예술강사라는 가지는 어디로 뻗어갈 수 있을까? 그 가지 중 하나가 자라 같은 수업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그 꽃’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되었다. 몇 개의 꽃송이가 피었고, 열매가 맺었고, 잎이 떨어졌다. 그리고 또 새로운 꽃을 피울 계절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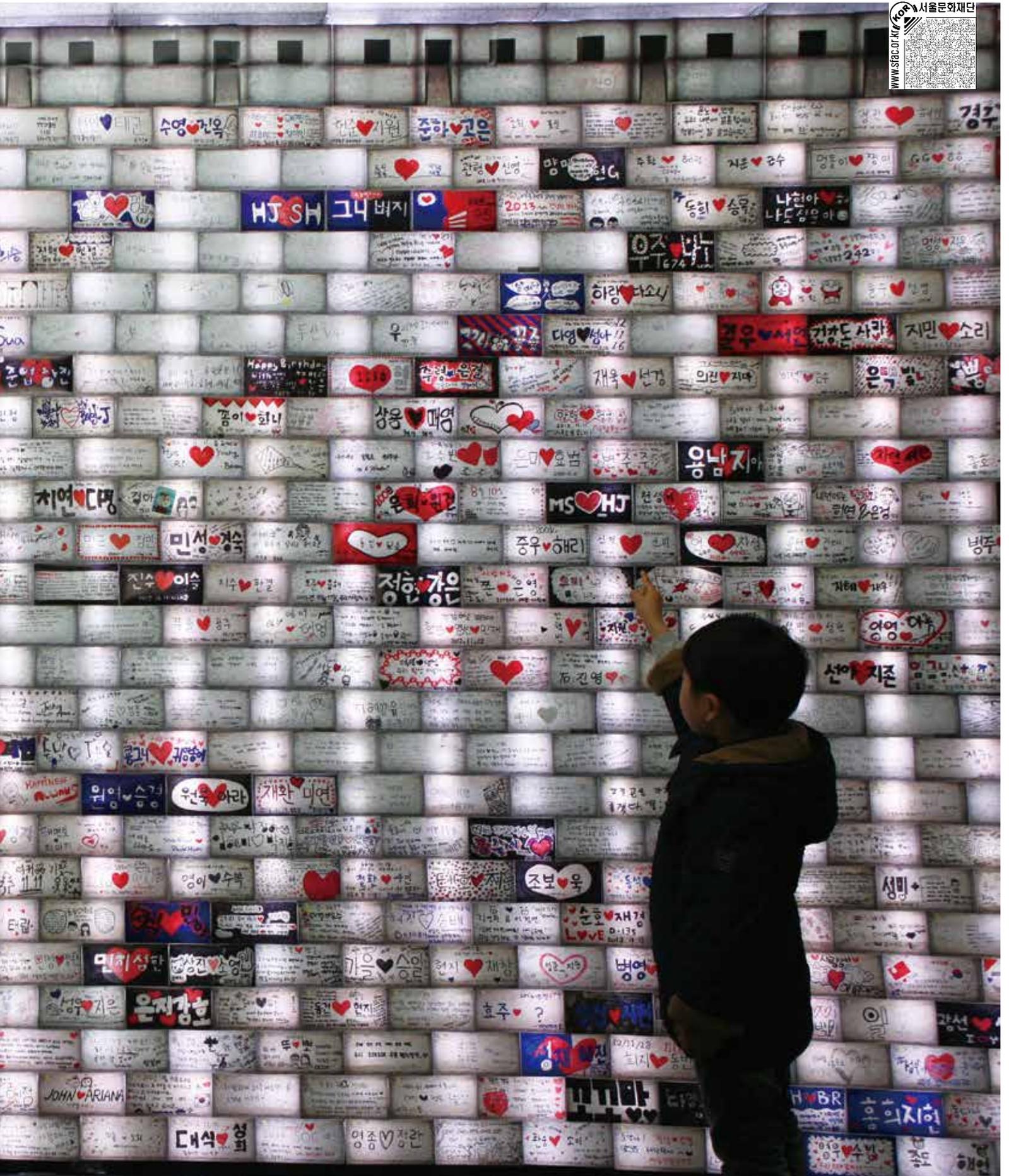


## 행복 1°의 변화를 바라며

“선생님, 오늘은 뭐해요?” 매 시간 지치지도 않고 물어보는 말. 우리 수업에서 무엇을 할지가 너무 궁금한 아이들. “ 쌤, 왜 이렇게 웃겨요?” 유머보다는 진지함이 더 많은 나에게 웃기다고 말해주는 아이들. 물론 다른 말도 많다. ‘쌤’은 어른 같지 않다. 달리기도 못할 것 같다. 가난해 보인다. 심지어 작년보다 더 늙어 보인다는 이야기도 한다. 옹골차게 솔직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사실이다. 예술강사로의 앞날은 자글거리는 내 얼굴처럼 참 막막하다. 하지만 행복해 보인다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 아이들과의 만남이 예술강사로 설 수 있는 원동력이다. 예술 수업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강사가 무언가를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성장하는 시간이다. 바로 지금, 아주 작은 1°의 변화로 미래를 꿈꾸는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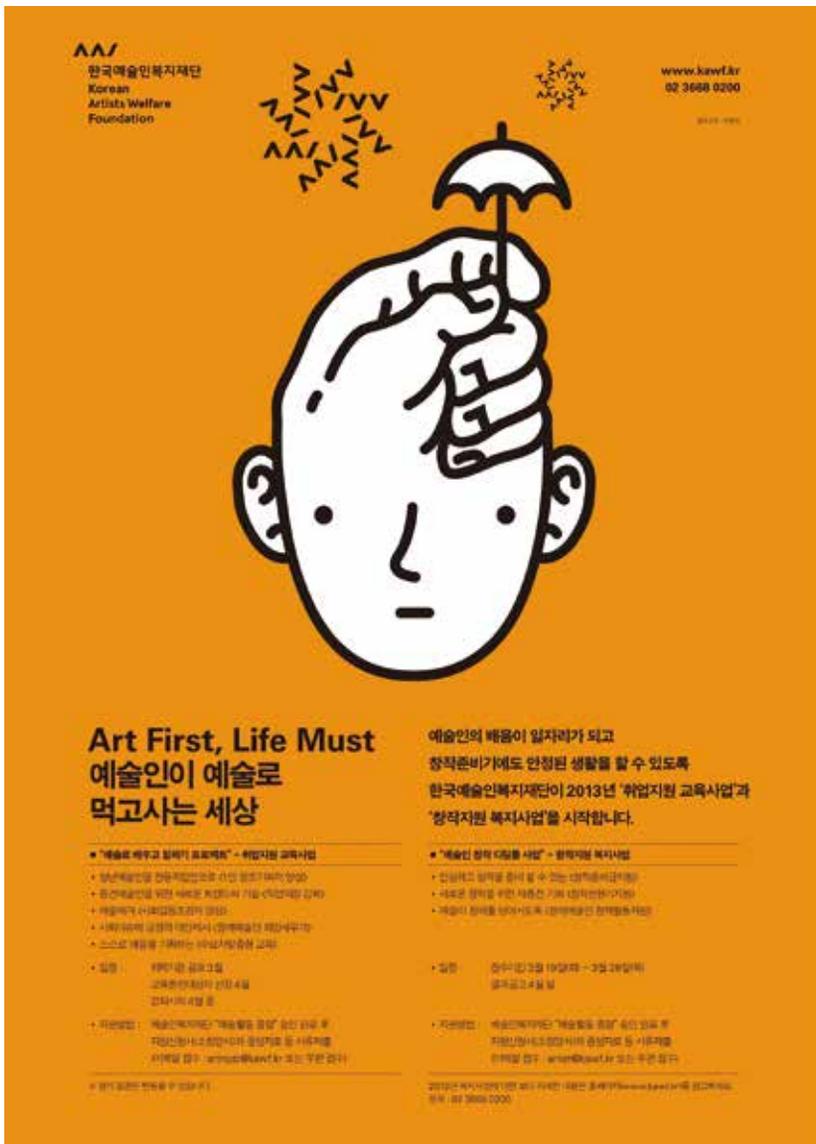
# 추억은 차곡차곡





# ‘예술인 복지법’ 왈가왈부

예술가는 항상 배고프고 서러워야 한다? 좋아하는 일 하고 사니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소외를 감당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바꾸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발효됐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물론 아쉬움은 남아 있다.



예술인 복지법 출범과 함께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13년 사업 설명. 취업지원 교육사업과 창작지원 복지사업 등을 진행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 10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년 만인 2012년 11월 18일 시행되었다. 오랫동안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예술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예술인 복지기금의 설치와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의제와 같은 조항들이 제외되면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예술인 복지법 출발! 그러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를 제도를 통해 인정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독특한 작업 환경(작업장 부재, 프리랜서), 직업적 특성(오페라, 영화 등의 단기 작업), 고용 형식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사진작가, 솔로 연주자, 화가, 시인)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나아가 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육체적 위험을 수반하는 예술적 행위를 펼치는 무용가나 무대 뒤에서 일하는 스태프 등은 이러한 재해보상의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신설하는 성과는 거두었지만 아직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모두가 적용되지는 못했지만 예술인들에 대한 안정적 사회보장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관리 주체 및 책임 기관도 명시됐다. 이는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인의 행위가 개인의 성취감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정부가 보호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임금 및 고용 기간에 대한 예술인 경력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예술인의 고용 기간을 공연 시간으로 한정하면서 공연 계약 이전의 준비 작업이나 공연 이후의 작업장 정리 등은 고용에 의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된 제도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시행에 필요한 명확한 근로시간과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와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예술이 밥 먹여 주려면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풀어가야 할 몇 가지 문제도 가지고 있다. 우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미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특히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첫해에 문화체육부가 요청한 355억 원의 예산이 70억 원으로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의 공감대를 얻는 데도 실패했다는 의미이고, 결국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현재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한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문예진흥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처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복지법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취약점이다. 일단 예술가의 사회보장 범위는 산재보험에 한정되어 있다.

복지법은 다른 사회보험과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히 공연 스태프들이나 무용가처럼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술가들에게 고용보험과 실업 급여 등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예술인 복지법의 한계다.

활동 영역에 따라 산재보험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약점이다. 산재보험은 고용자와 고용인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규정된 시간에 근로 활동을 하고 이

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화가, 작가, 음악가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공간에서 창작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고용관계와 근로시간을 명시할 수 없고, 따라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가장 애매한 부분은 예술가의 정의와 범주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술인들 모두 예술인의 정의가 느슨하고 모호해서 전문 예술가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잇속을 챙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는 법의 취지상 잠재적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예술인 증명'의 문턱을 낮추는 대신 심의와 평가를 통해 복지지원 사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많은 예술인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가 아닌 각 장르별로 전문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제시해 예술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예술인들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를 행정부처에서 정의하고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12년 11월 19일 설립됐다. 운영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많은 예술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는 물론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를 위해 예술인 모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술에 점수 매기기

# 예술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평점의 사전적 정의는 '학력을 평가해 매긴 점수'다. 누군가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지극히 '주관적'인 지표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관람객 개개인의 주관이 중요한 문화 콘텐츠마저 평점이 있고 평점에 의지한다.



1



온라인 포털이나 공연 전시 등의 티켓 예매 사이트는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평점'을 기록해둔다. 이 평점은 비관람객에게 관람 여부를 결정하기를 중용하며 타이틀 옆에 항상 붙어 있다. 남이 내린 평점 9점이 나에게도 9점일까? 이상한 일이다.

평점이 중요해진 분야는 영화다. 영화를 보러 가기 전 네이버 평점을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지금의 평점 문화를 정립시킨 사람은 미국의 영화 평론가 레너드 말틴(Leonard Maltin)으로 꼽힌다. 물론 그 전에 이를 시도한 사람은 있지만, 그는 1982년 미국 TV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해 영화평론을 하며 영화마다 0~4개의 별점을 줬다. 그 평점 매기기가 온라인으로 넘어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됐다. 평점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된 것도 온라인의 파급효과와 궤를 함께한다. 사용자의 즉각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온라인상의 평점을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 평점이 온라인상에서 사용자에게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축약된 형태로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것이 각종 공연이나 전시는 물론이고 TV 프로그램까지 등급을 매기고 전문가의 권위와 타인의 가치평가에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아 때로 씁쓸하다.

## 평점의 빛과 그림자

영화보다 평점 의존도가 낮지만, 공연과 전시 등 모든 문화 콘텐츠에도 어엿한 평점이 있다. 각종 공연의

홍보자료나 뉴스를 보면 '관객 평점 최고! 기립박수를 연발하게 된다'거나 '몇 주째 관객 평점 1위' 등의 문구가 있다. 실제로 관객이나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점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공연이었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흔든 보편타당한 정서가 잘 녹아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다. 그러나 평점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누구든 매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 정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르가

바로 영화다. 실제로 영화 <지슬>에 무차별적 평점 테러가 가해졌다. 이 경우, 평점 테러는 '빨갱이' 콘텐츠에 유독 민감한 우리 정서를 반영한다. 영화는 그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 제주도민 대학살이라는 역사 속의 사건을 보여준다. 영화 안에는 좌나 우를 가르는 가치 판단도, 선동도 없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점으로 공격한 것은 영화가 특정 진영을 옹호할 것이라 지레 짐작한 사람들의 과격한 의사표현이었다. 이런 조건반사적인 비난이나 찬사는 어떤 주제를 다루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많은 평론가와 전문가들이 영화 <26년>에 대해서도 지적했듯이 '영화의 짜임새가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가슴을 치는 평점과 평가가 달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때로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내야 할지를 미리 결정한다.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때 평점은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틀을 위협하는 것들에 답하는 도구가 된다.

하나의 소극으로 기억될 만한 <영웅



1. 역시 공연 예매 사이트 랭킹 1위는 <레미제라블> 평점도 8.9점에 달한다. 그러나 공연과 전시 등의 정보에 '랭킹'이라는 단어를 붙이니 어색하기 짝이 없다.
2. 뮤지컬 <그날들>. 4월 26일 인터파크 예매 사이트에서 일간 랭킹 2위, 평점 8.6점을 기록했다. 나쁘지 않은 평점이나 345명이 모두 좋은 점수만 매긴 것은 아니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공연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3. <뮤지컬 옥탑방 고양이>. 한일 매체의 공연 소개 기사에는 '인터파크 관객 평점 9.6점'이라는 대목이 전면 부각되어 있다.

2



3



: <샐러맨더의 비밀>에 보낸 네티즌의 찬사를 보자. 별 4~5개의 후한 점수를 준 네티즌들은 한 줄 평에 이 말을 곧잘 덧붙였다. “으리다... 으리”. 배우 김보성이 TV에 출연해 곧잘 강조하던 바로 그 ‘으리’의 별인 게다. 이들 역시 영화를 보지 않았음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이걸 그냥 해프닝이고 네티즌이 새롭게 콘텐츠를 대하는 방식 중 하나다. 사람들이 김보성의 영화에 보낸 지지는 저 혼자서 과거에 사는 듯한 남자의 순정에 대한 조롱이자 나름의 화답이었다. <지슬>에 무시무시하게 달린 공격적인 평점이, 여기서는 그저 네티즌의 유쾌한 놀이로 바뀐다. ‘으리한 번 보여주자’며 무한한 호의로 평점과 영화평을 작성한 것은 그냥 재미로 봐야 한다.

온라인 평점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 별을 매기고 평을 남길 수 있다.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도 있고, 무조건적인 지지도 가능하다. 심각할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평점이다.

## 평점을 민지 마세요

문제는 평점 논란이 공론화되는 순간, 가치 판단에 의해 악의적으로 남용되는 순간 발생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평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잣대라는 가치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좋았다고 평한 콘텐츠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언론의 보도를 통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더 크다. 아무래도 <오페라의 유령>이나 <레미제라블> 같은 화려한 공연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공연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예술에 대한 절대평가는 어디에도 없으며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 그저 참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점 테러를 당한 작품의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명한다. 평점이 콘텐츠를 홍보하는 주요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평점 놀이가 기삿거리가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평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그 증명이 작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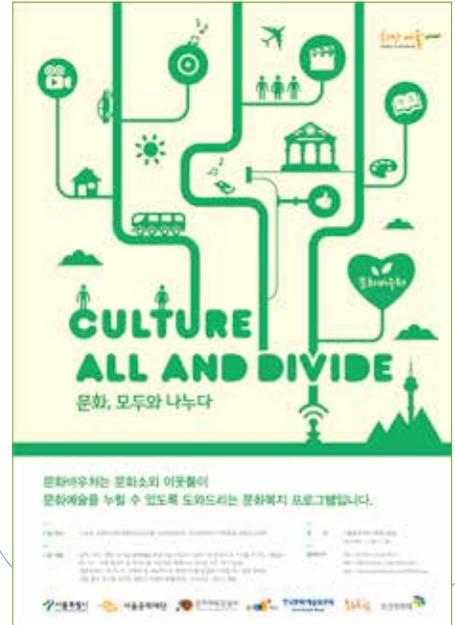
가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술은 특이한 콘텐츠다.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동일한 공연을 보지만 개개인의 감성과 가치관, 기준에 따라 그 가치는 편이하게 다르게 기억된다. 나에게 최고였으니, 너에게도 최고일 거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기준을 배려하지 않은 억압에 가깝다. 작품 자체에 대한 내밀한 평가 없이 단순히 평점이 좋다, 어느 대회에서 수상했다, 그러니 좋다는 사고방식은 다분히 도식적이다.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열린 콘텐츠라는 점이 예술이라는 장르의 특징이다. 평점이 특정 목적을 위해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지나친 가치 부여를 받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평점은 내가 아닌 남이 매긴 점수일 뿐,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 예술에 절대적인 잣대 따위는 없다. 재미로 보고 참고만 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잣대로 격상시키지는 말자. 평점은 그냥 평점이다.

글 유나리 사진 중앙포토

# 불경기 문화 충전 필살기

‘문화생활=돈’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문화생활 매뉴얼이 있다. 조금만 부지런해지면 방법은 많다. 올봄, 문화생활 한 번 즐겨보려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불경기 문화생활 대처 매뉴얼을 활용하자.



## 무료공연 즐기기

‘티몬’이나 ‘쿠팡’ 같은 소셜 마켓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보다 더 할인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정보만 모아서 알려주는 ‘무료문화정보 앱’이면 스마트한 취사선택이 가능하다. 양질의 문화정보가 수시로 업데이트되니 나들이 전 확인은 필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무료문화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 사업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6월 16일까지 <한국-대만 교류전 대만현대미술 : Rolling! Visual Arts in Taiwan>을 개최한다. 회화부터 미디어 설치까지 총 32점의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대만 미술의 현주소를 기늠할 수 있다. 전시를 관람하고

근처 정동길을 걸으며 문화의 여운을 곱씹는 것도 좋은 방법. 광화문까지 그대로 걸어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도 볼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외 5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 미술을 잘 모른다 해도 부담 없이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 혜화동 호서아트홀에서 진행되는 무료 개그 창작 공연 ‘개그와의 전쟁’은 신진 개그맨을 육성한다는 모토로, 27명의 개그맨이 관객 앞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친다. 개그맨 김준호, 김준현 등이 소속된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연간 무료 창작 개그 공연으로 시기에 따라 장소를 바꿔서 진행되기도 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자.

기업에서 진행하는 무료 공연도 공략 대상이다. 특히 음악과 관련된 기업은 아티스트의 무료 공연을 종종 펼치니 관심 있게 살펴볼 요량이다. 이번에 주목할 무료

공연은 아마하뮤직코리아에서 진행하는 ‘2013 콘서트 살롱 시리즈’. 코엑스 1층의 아마하 전시장 내 콘서트 살롱에서 피아노 미니 콘서트가 열린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 할인 티켓 공략하기

전시나 영화에 비해 가격이 높은 뮤지컬이나 연극을 저렴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다. 바로 프리뷰 공연을 보는 것.

프리뷰 공연은 본 공연 전 관객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일종의 리허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다고 공연의 질이 떨어지거나 허술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 것. 관객의 반응을 평가해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이니 본 공연과 같은 무게로 진행된다. 대신 20~30%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할인율이 50%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머니 가벼운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연인이나 부부가 함께 즐기기

## May

### <5월 볼 만한 무료 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및 장소	문의
한국-대만 교류전 대만현대미술 : Rolling! Visual Arts in Taiwan	~6월 16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02-2124-8800 sema.seoul.go.kr
광화문 국제아트 페스티벌	~5월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02-723-9484, 9468 www.giaf.co.kr
개그와의 전쟁	연중 진행, 호서아트홀	010-6243-1127 cafe.naver.com/gaejasiks
2013 콘서트 살롱 시리즈	5월 2·11일, 6월 18일 코엑스 1층 아마하 전시장	02-6000-2555, http://kr.yamaha.com



좋은 뮤지컬 <광화문 연가2>는 5월 17~19일까지 프리뷰 공연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전쟁의 비극을 유쾌하게 풀어낸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 역시 5월 3~19일까지 프리뷰 티켓으로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다.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해를 품은 달> 역시 6월 8~23일까지 프리뷰 공연을 진행하니 관심이 있다면 기억해두자. 이외에도 조기예매, 직장인 할인, 평일 할인 등 생각보다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니 제값 주고 공연을 보는 우를 범하지 말자. 다만 프리뷰 공연은 본 공연에 임박해 진행되는 만큼 수시로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는 부지런함은 필수.

#### 광화문 연가2

5월 17~19일 오후 6시 프리뷰 공연 50% 할인

#### 여신님이 보고계셔

5월 3~19일 프리뷰 공연 30~40% 할인

#### 해를 품은 달

6월 8~23일 프리뷰 공연 30% 할인

### 문화이용권 활용하기

지난해까지 '문화 바우처'로 불렸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관람 지원 프로그램이

'문화이용권'으로 이름을 바꿨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문화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5만 원 상당이 충전된 문화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프라인, 온라인 가맹점을 확인한 후 해당 장소에서 현금처럼 결제해 공연, 영화, 연극 등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섭렵할 수 있다. 카드 소지자가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도 시기별로 선별해 게시되니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방문해 수시로 정보를 확인하자.

금액만큼 차감되는 문화카드와 달리 문화카드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눔티켓도 잊지 말자. 티켓을 사용하면 최대 50~8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예술의전당에서 볼 수 있는 <톨스토이의 부활> 같은 경우, 정상가에서 50% 할인된 1만 5,000원이면 관람 가능하다. 나눔티켓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용법 및 무료 공연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문화이용권 홈페이지

www.cvoucher.or.kr

#### 블로그

cafe.naver.com/shareculture

#### 나눔티켓 홈페이지

www.nanumticke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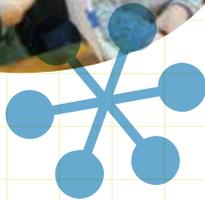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창작공방 <내가 만드는 책 '북 아트'>

이 책은요,  
별똥별이 만들었어요!



JUPITER

40개의 눈동자가 반짝인다. 모두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을 만드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일순간 시끌벅적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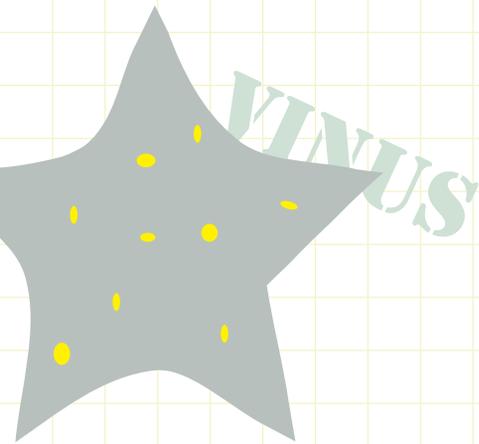
#### 엄마와 아이, 함께 작가가 되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진행된 관악창작공방 <내가 만드는 책 '북 아트'>의 현장. 엄마와 아이가 2인 1조로 참여해 종이를 실로 꿰고 자르고 색칠하기에 한창이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20명의 수강생은 우리나라 전통 책 유품 기법인 '오침안정법'을 이용해 '나만의 책'을 만들고 있다. 오침안정법은 우리가 흔히 인사동 골목에 위치한 문구점이나 사극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보았을 바로 그 전통 노트의 양식이다. 종이를 실로 묶는 것으로 실과 바늘만 있으면 책 한 권이 똑딱이다. 북아트 예술가인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 안경희 선생님의 노련한 코치에 따르는 이 사랑스러운 커플들은 오늘만큼은 어엿한 작가요, 예술가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만드는 것은 책이지만 완성되는 것은 그보다 큰 추억이다. 오늘 만들어낸 책은 모두 똑같은 형태이지만, 함께 채워나가며 10권의 새로운 책으로 탄생할 것이다. 아이도, 엄마도 모두 설레고 들뜬 표정이다.

"자, 바늘을 이렇게 조심히 꿰매보세요. 이제 마지막 땀입니다!"

강의를 맡은 안경희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진다. 바닥에 누워 비행기를 날리던 아이도, 남의 작업을 새침하게 결눈질하던 아이도 실을 꿰는 순간만큼은 진중한 예술가가 된다. "이쪽이 삐뚤어졌다", "저쪽이 더 길다"는 엄마의 열혈 코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딱딱하고 경직된 수업은 이곳에 없다. 오히려 경직된 것은 엄마 쪽이다. 아이가 바늘에 찔리지는 않을까, 선이 삐뚤어질까 연신 걱정이다. 아이들에게는 이 공간도 작업도 너무나 자연스럽다. 드디어 제분이 끝났다. 한 권의 책이 모양을 갖췄다. 책상 앞에 놓인 책을 들고 아이들은 연신 함박웃음을 짓는다.

"책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쉽네요." 엄마도 대만족. 책 한 번, 엄마 한 번 바라보는 아이와 그런 아이에게 대견한 눈빛을 보내주는 엄마의 이 아름다운 상호작용. 천방지축 아이들을 상대로 한 혈기왕성한 수업이지만 안경희 선생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 관악창작공방 <내가 만드는 책 '북 아트'>

<내가 만드는 책 '북 아트'> 수업은 5월까지 진행되며, 6월부터는 금속으로 이름표를 만드는 새로운 수업이 진행된다. 참여 방법과 시간은 아래와 동일하나, 금속을 다루는 특성상 8~13세로 나이 제한이 다르다.

#### 기간

~5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1시

#### 대상

6~12세 어린이와 보호자 2인 1조 기준 총 12조

#### 참여 방법

서울시 창작공간  
 홈페이지(www.seoulartspace.or.kr) 예약 접수

#### 참가비

1,000원

#### 문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02-871-7400

### 한 권의 책, 한 권의 추억이 되다

“이 동화책 표지에 뭐가 있죠? 우리도 한 번 책 제목과 출판사, 작가, 가격을 정해볼까요?” 제목을 정하라는 말에 아이들의 눈초리가 제법 샅쭉해진다. 신이 나서 연신 색을 칠하고 글자를 적는 아이도 있는 반면 울상인 아이도 있다. 한참을 고민하던 아이가 드디어 제목을 지었다. “추억의 책이에요.” “아니, 넌 벌써 추억을 말할 나이인 거니?” 모두 웃음이 터진다. 책 제목과 출판사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영 어려운 모양이다. 안경희 선생님이 나서서 완성한 아이의 것을 읽어주며 힌트를 준다.

“이 책은 별뿔별 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 “왜 별뿔별이니?” “제 출판사는 별뿔별을 만드는 곳이니깐요!” 선문답이 오가는 와중에 아이들의 손놀림도 제법 바빠진다. 제목과 출판사, 가격까지 다 정하고 앞에 나와 자신의 책을 판매하는 시간도 갖는다.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나가서 광고해볼래?” 물으니 “엄마, 광고가 뭐야?” 되묻는다. 아, 아무래도 판매까지는 힘들 모양이다. “제가 만든 책은 <팔죽할멈>이고요, 작가는 김태현이고, 200원에 팔게요.” 팔죽색깔 할멈과 호랑이까지 곱게 그려 넣은 고품질의 책이건만 안타깝게도 판매는 실패. 그래도 엄마는 너무 싸다며 연신 웃는다. 1,000만 원에 팔겠다더니, 막상 앞에 나와서는 ‘1,000원’을 부르는 아이도 있다. 왜냐고 물으니 ‘0이 너무 많아서 그리기가 어렵’단다. 모두들 다시 한 번 폭소. 아이와 엄마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살갑다.

책 한 권의 기틀을 만드는 것으로 한 시간의 수업은 쏠살같이 지나갔다. 공식적인 수업은 끝났지만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계속될 예정이다. 나머지 빈 종이는 온전히 아이와 엄마가 함께 채워야 할 공동의 몫이다. 수업이 끝났건만 아이들은 여전히 코를 파묻은 채 그리고 지운다. 이 빈 종이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채워질지 모르긴 해도 엄마와 함께한 추억 한 페이지는 마음속에 확실히 쓰였을 게다. 열린 가능성이 반짝인 책 수업은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됐다. 이 짧은 한 시간의 기억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더 즐겁고 흥미진진하지 않은가.

글 유나리 사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문래 58번지 철공소 골목에서 이루어진 전시 <문래 58번지 골목을 아시나요>.

## 수상한 그 공장, 문래예술공장 사용설명서

**전시장도 아니고, 공연장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라고요?**

“이번 주말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전시가 있나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체험할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번 달에는 어떤 공연이 있나요?” 문래예술공장에 근무하는 동안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들이다. 수십 번 반복했건만 당최 간단하게 대답해 지지 않는다. ‘네가 일하는 곳이 뭐하는 곳이야’는 친구들의 질문에도 시원스레 답해본 기억이 없다. “전시장도 아니고, 공연장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면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이 꼬리를 문다.

답은 질문의 언저리에 있는 법. 질문의 답은 ‘문래예술공장’이라는 명칭에 있다. 이곳은 예술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공장(간)이다. 이곳에는 미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예술가)가 있고, 노동에 필요한 도구(음향·영상촬영·녹음 장비, 각종 공구, 무용 연습장, 공동 작업실)들이 준비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이곳의 도구를 활용해 재화와 시간으로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한 특이한(?) 제품을 만든다. 생산라인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에 개발 단계에서 멈춰버린 제품도 있고, 현실적인 여건에 맞지 않아 고객의 손까지 전해지지 않은 제품도 있다. 운이 좋으면 만들어진 제품(공연, 전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문래예술공장 전경.



### 문래예술공장의 만형 문래창작촌



위 :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 지원사업 MAP> 결과 발표 공연 중인 온앤오프 무용단.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 이곳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 아래 : 이곳은 벽화도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제작된다. 찌든 먼지와 때를 벗겨 새긴 엄유정 작가의 <먼지세김>.

문래예술공장은 자생적 예술작업실 마을로 알려진 '문래창작촌'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센터다.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가들은 문래예술공장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곳에서 작업실을 꾸려가고 있었다. 문래창작촌은 예술가들의 작업실 부락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로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문화예술 마을과는 거리가 멀다. 평일 낮에는 영락없는 철공 단지다. 엔지니어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기계 소리만 가득하다. 예술가들은 저마다 문 닫힌 작업실 안에서 창작에 열중할 뿐이다. 해질 무렵 혹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어야 이곳저곳에서 예술행위가 펼쳐진다. 문래창작촌은 지역 상공인과 주민 그리고 예술가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곳이다.

많은 방문객들이 문래창작촌을 인사동 같은 전시구역으로 오인한다. 그래서 뽀족한 굽의 구두를 신고 말끔한 정장차림으로 쾌적한 관람을 상상하며 문래창작촌을 찾는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기대하고 이곳을 방문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약간의 탐험정신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골목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벽화와 조형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다리와 편한 복장도 필수다. 소규모 공연과 전시를 감상하며 예술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일정과 약도 체크도 필요하다. 조금만 준비한다면 철공소 거리에서 펼쳐지는 공연에 같이 참여할 수도,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다. 뜻하지 않게 골목골목에서 예술 행위를 목격할 수도 있다.

### 문래예술공장 사용설명서 - 실전 응용 세트

봄이 오면 문래동은 기지개를 편다. 철공 엔지니어들은 발주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예술가들은 그동안 구상했던 작품들을 조금씩 공개한다. 문래예술공장도 겨우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예술가들의 창작 결과를 펼쳐낸다.

오는 5월 4일에는 대형 기획사나 대자본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음악가들이 직접 기획한 '51+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 지원사업 MAP>의 결과물이 공개된다. '화이트 큐브'에서 벗어나 '블랙 박스'에서 공연을 펼치는 미술가의 작품, 무대에서 벗어나 전시장과 개방된 공간에 진입하는 공연예술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거리에서는 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4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신세계 백화점과 문래예술공장의 협력 하에 기획된 '문래창작촌 헬로우 문래와 함께하는 ART FESTIVAL'이 백화점 1층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예술작품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워크숍과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에도 '헬로우 문래(www.hellomullae.co.kr)'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문래창작촌 일대에서 진행된다. 사 진공간 빛타래(bittarae.com)에서는 5월 6일까지 <꿈꾸는 카메라 in 차드> 전시가 계속된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1회용 필름카메라를 선물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찍은 사진들을 전시한다. 전시 수익금은 아이들을 돕는 기부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대안공간 정다방 프로젝트(www.jungdabang.com)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문래아트데이'를 진행한다. 간단한 예약 접수를 거친다면 아이들과 함께 예술 체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잠시 쉴 곳을 찾는다면 플랫폼(FLATFIC, www.flatfic.com)이라는 공간이 제격이다. 주인이 손수 만든 차와 커피가 일품이다. '60-40 project store'라고 하여 60×40cm의 공간을 외부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음반, 책, 옷, 회화, 사진, 수공예품 등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도 예정되어 있다. 목도 축이고 다양한 전시 품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의 기회다.

문래예술공장의 박스씨어터.



문래예술공장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30 문의 02-2676-4300 www.seoulartspace.or.kr/G05\_mullae/main.asp





1. <농담>의 투견장은 희망이라고는 없는, 오직 죽음으로 완성되는 삶의 막다른 지점이다.
2. <레미제라블>의 바리케이드에도 삶의 막다른 곳에 봉착한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들은 희망을 무기로 <농담>과는 다른 결말을 맺는다.

죽었을 때 비로소 그 비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장용학의 소설 <요한시집>이나 손창섭의 <인간 동물원 초(抄)>라는 소설이 생각났던 무대였다.

**<레미제라블>,  
그래도 꽃은 핀다**

<레미제라블>(4월 6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도 투견장 같은 '막장'의 공간이 나온다. 바로 바리케이드 장면이다. <농담>의 투견장이나 <레미제라블>의 바리케이드나 같 곳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른 점도 있다. 버려져서 갈 곳 없는, 낯고 하찮은 그들이 뭉치는 이유는 혁명에 대한 아름다운 욕망 때문이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막장'인 바리케이드에서는 권력에 대항하는 이들이 단결해 희망의 꽃을 피운다. 폐쇄된 투견장에서 욕심과 권력으로 서로를 죽이는 <농담>의 '막장'과는 확연히 다른 공간인 셈이다.

1부의 막이 내리고 인터미션 이후 2부에 나오는 바리케이드 장면에는 그간 나왔던 모든 인물이 동시에 등장하여 다양한 사건을 빚어낸다. 이는 음악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다들 톰 후퍼 감독의 영화를 통해 알고 있겠지만 영화에는 주인공들이 등장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음악이 있다. 마치 <황야의 무법자>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등장할 때마다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잠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레미제라블>은 뮤지컬의 옷을 입고 있지만 몸통은 작곡가 바그너(1813~1883)가 자신의 오페라를 위해 고안하고 사용한 라이트모티프(Leitmotiv) 기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라이트모티프는 극 중의 주요 인물이나 사물, 특정한 감정이 나올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음악을 등장시키는 기법이다. 생각해보면 자베르 경관, 장발장, 그의 딸 코제트, 그녀의 사랑 마리우스, 그리고 코제트의 양부모는 '각자의 선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바리케이드 장면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주제 음악들이 변주되고 전조되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얽힌다.

자베르 경관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그를 풀어주는 장발장의 미덕도 참 답답하고, 이상하게 보인다. 하지만 결론은 해피엔딩. 그래서 '막장'으로서의 바리케이드는 희망의 꽃을 피우는 생산적인 공간, 즉 '발'이나 '논'과 같은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농담>과 <레미제라블>의 다른 점은 단순히 장르적으로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로맨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명의 부작용과 비이성으로 점철된 '막장'에서 서로가 물어뜯다가 동물처럼 죽느냐, 아니면 인간으로서 최대치의 희망을 쟁취하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글 송현민  
공연 보고 이야기하는 남자(악칭 '공연 보이남'). 제13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고 이리저런 무대연구소를 운영하며 공연장을 횡단한다.

## 예술이 된 책과 예술이 된 장난감

# Art Book & Toy



꽃피는 봄날, 따뜻한 햇살과 상큼한 꽃내음에 저절로 마음이 일렁인다. 파란 하늘을 머리에 이고 몰랐던 봄기운을 양 볼에 느끼며 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들뜬다. 나들이 갈 거리를 찾는다면 전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여기 예술이 된 책과 장난감이 있다. 예술이 된 책과 장난감? 약간은 엉뚱해 보이는 이 새로운 시각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읽어보자.

### 예술이 된 장난감, 이 발칙한 상상! - Art T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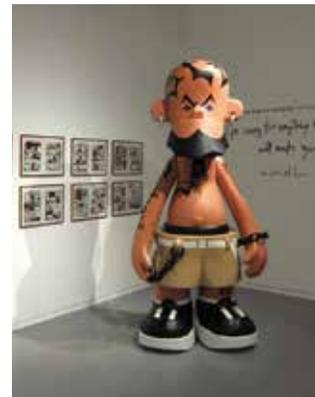
어릴 적 가지고 놀던, 관절을 움직여서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장난감을 기억하는가? 대체적으로 남자들에게는 건담이었을 것이고 여자들에게는 라라공주였을 이 친근한 장난감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가졌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지난달 14일 두 달간의 대장정을 마친 <아트토이(Art Toy)>전은 3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였더니 예술이냐 아니냐의 논쟁을 차지한다면 놀라운 성과다.

피규어 아티스트 마이클 라우는 본 전시를 통해서 113점의 피규어와 함께 이들이 완성되기까지 바탕이 되는 스케치, 원형물, 페인팅 등 총 1,000여 점의 작업을 선보였다. 그는 화가, 소원도 디자이너, 광고대행사 직원, 유휴 복원가 등 다양한 예술적 경험의 소유자로 소개되고 있다. 전통적인 예술가와 행보가 달라서 그런지 그의 작업은 기존의 시각에서 본다면 다소 엉뚱하고 비형식적이며 도발적으로

보인다. 낙서하듯 그려진 페인팅이며 각 피규어가 보여주는 문신한 인물들, 스포츠 영웅, 그리고 힙합 복장을 한 10대들은 특별히 아름다울 것 없는 우리 주변의 인물에 가깝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기존의 아름다움에 충실하기보다는 전통적인 미적 질서에 다분히 반항적인 기질이다.

시각예술에서 새로운 이즘과 아름다움의 형식은 기존의 미적 질서를 거부하고 부인하면서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적 감성을 품은 예술적 시도들은 기존의 미적 질서를 거부하며 항상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시각에서 마이클 라우가 만드는 장난감은 이 시대적 인물의 특성과 삶의 단면을 어느 작업보다도 더 잘 포착하고 있다. 요절한 천재 낙서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도 논란이 많았지만 현대미술에서는 검은 피카소의 위치를 점령했다. 그의 작업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마이클 라우의 피규어 작업과 페인팅을 굳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장난감으로서, 잡지의 이미지로서 너무나 친근하게 접해서 일상의 오브제로 여기는

시각을 우선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나이키와 소니는 물론 디젤, 카시오, 맥도널드 등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으로 인해 그의 작업은 광범위하게 우리의 시각을 즐겁게 해주고 있으며 이미 우리의 패션까지 리드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예술이 된 것이다. 그가 만든 피규어들은 현대미술이 품기에 어색하지 않은 장난감이다.



마이클 라우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가드너 시리즈 중 '타투' 피규어.



슈타이들 전시장 전경. 우리가 아는 책의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작업물이 설치되어 있다.

## 예술로서의 책, 이 새로운 시선의 도전! - Art Book

근자에는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 웹서핑을 통해 얻는다. 이처럼 전자정보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자 인터페이스가 종이책을 대체할 듯 느껴지는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많은 이들은 종이에 인쇄된 책을 선호하고 있다. 여전히, 현재까지는 정보와 지식 수용 매개체로 종이 책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읽어서일까? 대림미술관이 준비한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슈타이들>전은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마치 새로움을 넘어 완벽한 대안인 것처럼 제시되는 이 시대에 슈타이들은 종이라는 바탕체에 인쇄와 출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책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책이 예술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겠지만, 전시를 통해 슈타이들이 진행해온

책을 위한 새로운 형식적 도전과 다양한 제작 방법의 시도들을 경험한다면 책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게 될 것이다. 전시장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표지 디자인, 다양한 패션 실험들과 같이해온 새로운 형식적 시도들, 회화와 판화 작품을 더욱더 정교하게 재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내뿜는 에너지는 예술작품의 에너지만큼 강렬하다. 게다가 더욱 세련된 느낌으로 동시대의 타 예술작품보다 더욱 현대적인 감각마저 느껴진다.

이러한 감각과 더불어 느껴지는 작가주의적 고집스러움은 슈타이들이 만드는 책에 예술이라는 이름을 허락했다. “디지털은 잊기 위함이고, 아날로그는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진가 로버트 폴리도리의 말처럼 전시에 제시된 아날로그식 종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사진 작업이 되고 때론 판화 작업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예술에서 개념 작업의 과정과 동일하다. 디지털 매체의 무한재생은 소중함을 마비시키지만, 종이라는 아날로그식 매체에 저장된 기록을 토대로 제작된 한 권의 책은 치열한 노동의 집결에

의한 결과물의 유한성 때문에 절대적 소중함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숭고한 소중함을 만드는 슈타이들의 노력이 그가 출판한 모든 책들을 예술로 기억하게 하는 힘을 부여한다.

본 전시는 전시 타이틀 <How to make a Book with steidl: 슈타이들>처럼 슈타이들을 통해 책이 만들어지는 단계적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듯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종이의 질감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한 체험 코너와 갓 인쇄된 향을 후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품화한 향수 ‘페이퍼 패션’의 체험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관람객을 전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자매체 범람에 찌든 이 시점에 종이 책이 갖는 예술성을 눈으로 보고, 향으로 즐기며,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한다.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전시다.

글 이정훈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세종문화회관, 대림미술관



전시장을 나온 미술  
미술이 넘치는 거리

## 마음속 별이 빛나는 밤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기특한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에 소개할 프로젝트 참여 작품은 이은열 작가의 사진 작품 <별이 빛나는 밤-별이 빛나는>이다.



별이 빛나는 밤-별이  
빛나는(Starry Night-Starry),  
2011, Archival Pigment print  
with Face mount, 100×120cm,  
Ed.1/5, 300만 원

‘은은하게 빛나다’라는 이름처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형상화한 작품을 선보인 이은열 작가는 이번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마음 속 별은 어디에 있냐’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갈라진 논바닥을 통해 그려낸 이 작품은 하늘을 볼 여유도 없이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작가의 거대한 질문이자 아이러니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기는 서로 다른 수많은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처럼 작품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찾아낸 빛을 제시한다.

언젠가 본 가뭄으로 쪼쪼 갈라진 논바닥 풍경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고, 허리 펴고 밤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 없이 사는 우리의 내면을 떠올리게

했다. 한때 바다였지만 간척 사업으로 더 이상 바다도 아니고 활용도가 높은 평범한 땅도 아니게 되어버린 이 갈라진 틈 사이에 그녀는 일일이 전구를 밀어 넣었다. 그 전구가 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밝혀질 순간을 기록하려고.

‘바람난 미술’이 거리를 스치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걸리게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그녀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려 했는지는 꽤 자명하다. 삭막한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의 틈을 주고, 그 틈 사이에서 잊었던 감정과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갈라진 논바닥이 밝게 빛나는 장면은 분명 우리 내면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예술을 지향하는 '바람난 미술'의 취지의 동감해 2011년 작업한 작품을 출품했다.

관객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은 지난달 소개한 홍보대사 조민기와 같으면서도 다르다. 조민기가 "서울시청,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 날것의 자연을 끌어왔다"고 밝히며 연출되지 않은, 순수한 찰나의 순간을 담은 작품을 출품한 것과 달리 그녀는 만들어진, 연출된 상황을 선택했다. 그녀는 논바닥에 일일이 조명을 설치하며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작품으로 살려냈다. '날것의 자연'과 가장 반대된 작품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끌어내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녀는 논바닥에 하루 종일 전구를 밀어 넣으며 이 빛이 우리 삶에 필요하나 잊었던 무언가를 건드리기를 바랐다. 삭막한 삶 속에서 잊히는 것들을 소환한 그녀의 작품은 관람객에게 작은 질문을 던진다. '이 말라비틀어진 땅에도 빛이 있는데, 당신 마음속에는 어떤 빛이 숨어 있느냐'고. 그녀는 이 작품을 본 사람이 마음속 어딘가에 묻혀 있던 작은 기억 하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한다. 이 작품이 누구를 만나 어디에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잠시 하늘 한 번 보고, 마음속 별 하나를 꺼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잠시 삶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주는 것, 가장 농밀한 내면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아마 예술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이 작품이, 그리고 '바람난 미술'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 이달의 바람난 작품

### 1. 이곤

Sp-88 (서울역), Sp-88 (Seoul Station), 2012, Mixed Materials on Korean paper, 100 × 180cm, 600만 원

〈Sp-88 (서울역)〉은 'Seoul Place 88'을 줄인 작품명으로 88은 서울역의 나이를 뜻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특정한 장소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추억한다. 이는 각기 다른 공간과 시간들의 이야기일 것이며 각자가 지니고 있는 역사다. 〈Sp-88 (서울역)〉은 우리의 문화인 한지 특유의 질감과 색상을 우연성에 기대 빛어낸 뒤 도자이크 식으로 화면을 구성했다. 작가는 본 작품을 통해 서울역이라는 장소와 그 기억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에 기록하고자 했다.



### 2. 한조영

검은 풍경-서울, Darkview-Seoul, 2011, Mixed media on canvas, 100×100cm, 500만 원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겪게 되었던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도시는 곧 현실 자체의 불안전함, 거기에 내재된 결핍에서 오는 인식의 반영이다. 작품은 하늘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듯한 파노라마적 시각으로, 스티커 조각을 붙이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스티커는 도시의 불빛을 대신하여 야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으며,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물들의 입체감과 규모만을 나타낸다. 도시라는 공간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과 정서를 탐구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고 현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다.



### INFO

####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팀(02-3290-7146)으로 문의하세요!



www.facebook.com/artwing.seoul



www.youtube.com/artwingseoul

##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에 올려주신  
시민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웹상에서 지면으로 공간을 넓혀왔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우아하게 해결하는  
날까지 응원해주시고 어떤 질문도 서슴지  
말아주세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magicpuppy@sfac.or.kr](mailto:magicpuppy@sfac.or.kr)  
메일을 보내주세요.

*Ahreum  
Kim*

요즘처럼 청년 백수가 늘어나는 각박한 생활  
속에서 여유를 가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경쟁적으로 달리다가도 매우  
허탈할 때가 많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더욱더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던 것을 소개합니다.  
무엇이냐고요? 바로 철학책이에요! 그중에도 특히 '니체'였어요. 물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보다 보면 참 허탈하죠. 하지만 거기에 자극을 받아 앞으로  
나갈 힘을 느꼈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니체는 나체다>라는 아주  
쉽고 유익한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는 '나력'을 강조해요.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나의 힘, 그런 나 자신의 힘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요즘 세상은 학력  
등의 간판, 개인적 허물, 부모님, 직업, 이런 것들로 나와 남을 규정하고 차별하죠.  
하지만 모든 허물을 벗어버린 채 온전한 나 자신으로 세상과 맞닥뜨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 자신으로 부딪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시대에 괴로워하는 청년들일수록 '나력', 모든 허물을 벗어버린  
자기의 힘을 발견하시고 거기에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팀장 한지연

*Eussain  
Chen*

남편이 전시회를 싫어해요. 함께 공감하고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대부분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곳은 자주 못 가게 되네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예술, 미술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다른 남자분이랑 가시면 남편분이 바로  
쫓아옵니... 농담입니다. (웃음) 대중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전시회부터 시작하면서  
천천히 접점을 맞추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흥미로워하지요. 유명한 <팀 버튼>  
전이나 지금 아트선재에서 진행 중인 <20세기  
만화대작전>처럼 한국 만화의 희귀한 초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같은 건 어떨까요.  
일단 재미있는 테마를 찾는 데 주력해보세요.  
재미있는 테마의 전시를 찾아가면서 '이런  
전시회도 재미있네'하고 남편이 생각하게  
된다면 문턱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예술을  
감상하는 취향은 넓어질 겁니다!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본부장 김영호

*박민재*

늘 항상 혼자  
있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아이가  
있어요. 영화나  
공연을 볼 때도  
늘 혼자서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더 어울리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고 싶다는 건 그분이 밝아지고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하신 듯한데, 영화나 공연을 혼자 본다는 건 사실 그분의 취향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영화나 공연을 혼자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화는 모를까  
 공연은 티켓 값이 일단 비싸잖아요. 그래서 더치페이하기도 그렇고, 내가 표  
 샀으니 네가 밥 사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지출도 커지고... 수입이 많지 않은  
 20대다 보니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요, 옆 사람과 속삭속삭 이야기하는 거  
 말고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에 충실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좋은 공연을 본  
 날에는 그 감흥이나 기분을 오랫동안 간직해서 제 안에 잘 갈무리하고 싶은데  
 같이 본 사람과 조잘조잘 떠들다 보면 그런 기분이 연기처럼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다음부터는 영화나 공연은 혼자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분도 그런 이유일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감각을 더 소중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를 끌어내려고 하는 게 그  
 친구와 친해지고 싶은 당신의 욕심이 아닌지. 그렇다면 살면서 그 친구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면 될 테고요. 정말 외로워 보이면 한 번 물어보세요. 혼자서 하는  
 게 좋은지. 진심을 담아서 물어보면 대답해주지 않을까요?

트래블러스 맵 여행기획자 이다솔

남산예술센터 신시컴퍼니 2013시즌 공동제작프로그램  
 2011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 연출상 | 2011 올해의 연극 베스트3  
 2012년 공연 전회매진에 빛나는 수작!

연극

# 푸르르 날에



오월의 꽃바람 다하도록 죽지 않은 사랑...



2013.5.4~6.2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출연 김희성 | 홍다음 | 정승원 | 이광희 | 호산 | 이명행 | 조유미 | 조영규 | 김정현 | 유병훈 | 이정훈 | 김명기 | 권민성 | 김성현 | 손고영 | 남승기 | 홍익준 | 김영노 | 강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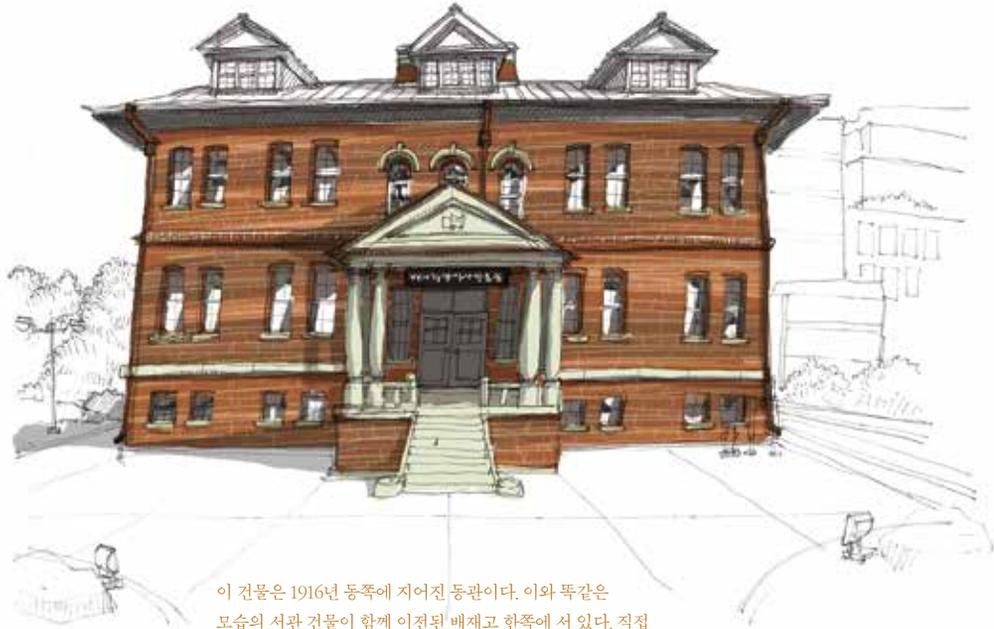
작 감독 정 | 각색 연출 조승원 | 무대 이문수 | 조명 장영섭 | 음악 김태근 | 의상 정경희 | 소품 강민숙 | 분장 장경숙 | 무대감독 김동식 | 조연출 이재은

무대 서민사당에 무대 대우방송에 무대 MBC에 무대 JTBC에 제작 남산예술센터 후 신시컴퍼니 후원 D&M 예술의 길 1544-1555 02-758-2150 한국 푸르른 날에

# 서울의 오래된 고등학교들

## 배재고 培材高

오늘날 서울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다. 현재의 학교는 근대에 이르러 도입된 신학문 교육을 위한 모습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최초의 사학 중등교육기관인 배재학당이 설립된 것이 1885년의 일이니 대략 130여 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진 셈이다. 오래된 학교들은 대부분 조선의 도읍이었던 한양에 몰려 있어 지금의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밀집해 있다. 이번 스케치 여행에서는 귀중한 근대 건축유산으로 남은 오래된 고등학교들의 모습을 담았다.



이 건물은 1916년 동쪽에 지어진 동관이다. 이와 똑같은 모습의 서관 건물이 함께 이전된 배재고 한쪽에 서 있다. 직접 찾아가 보면 생동기 같은 모습에 기시감마저 느껴지는데 막상 활용되지 못한 채 폐쇄되어 있는 듯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내부에 소장되어 있는 옛 편액  
'유용한 인재'라는 의미의 '배재'라는  
학교명은 교육을 높이 평가했던 고종이  
직접 지었다.



1887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단층 벽돌 학교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배재**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학교다. 당시 열강의 집합지였던 덕수궁 근처에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사실상 이질적인 선교 활동에 앞서 교육과 의료를 먼저 소개하던 한 과정이기도 했다. 최초의 근대식 학교답게 이승만, 서재필, 김소월, 윤치호, 주시경 등 역사의 한 부분을 채웠던 많은 인물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배재학당을 전신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배재고등학교는 원래의 자리인 정동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1970~80년대 서울 중심부 인구분산정책에 의해 이전된 여러 학교들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1984년 이사를 간 배재고등학교는 이후 강동구 고덕동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그나마 오래된 건물 하나는 남겨두고 떠나 정동에서 옛 자취를 찾아볼 수 있어 다행스럽다. 더군다나 남은 건물이 박물관이 되었다는 점은 정동이라는 역사적인 산책길에 더

없이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배재학당을 나와 작은 언덕을 내려가는 길에 그 옛날 교문이 있었던 자리에 멈추어 섰다. 건물 옆에 서서 큰 가지를 뺏어낸 향나무의 초록빛에도 봄빛이 서려 있다. 학교는 떠났지만, 변함없이 찾아오는 새봄을 맞으며 배재학당 길을 지켜 줄 오래된 나무. 그런 든든한 벗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홀로 남은 건물은 결코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 배화여고 培花女高



이항복 집터 표시석      필운대 각자      이윤희의 시조      낙석 위험 표시      정채불명의 글

이항복의 후손 이윤희는  
이 자리에서 느꼈던  
감회를 시로 담아 벽에  
새겨놓기도 했다.



배화여고 생활관  
1916년 선교사 거주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니 거의  
100년이 다 된 오래된 건물이다.

배화여고 본관



**배재** 고등학교가 감리회의 남자 선교사가 만든 남학교라면 그리 멀지 않은 필운동에는 감리회의 여선교사가 만든 여학교가 있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남자에게 배우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얼마 동안은 여선교사들로만 구성된 선생님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문만은 부득이 남자 선생님이 맡았다고 하는데 이때 수업 시간에는 돌아앉아 가르치거나 아예 병풍을 쳤다고 하니 생경한 그 시절의 수업 현상이 흥미롭게만 느껴진다. 배화여고에는 많은 근대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고풍스럽지만, 바위벽에 필운대(弼雲臺)라는 각자가 새겨진 이항복의 흔적도 남아 있어 장소의 의미까지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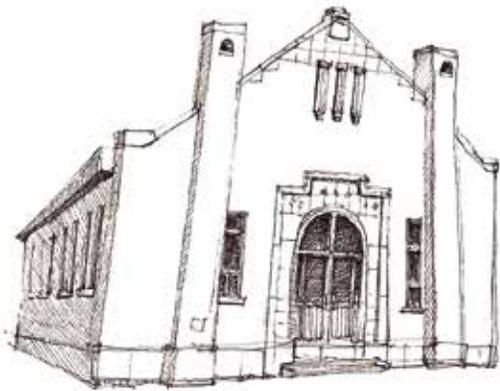
‘필운’이란 우필운용(右弼雲龍), 즉 임금을 우측에서 보필한다는 뜻에서 온 말이다. 명나라 사신 공용경이 서울에 왔을 때 중종은 경희루에 올라 후하게 대접했다고 한다. 옛날 접객 풍습에 손님에게 지명이나 산, 누각의 이름을 직접 지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최고의 대접 중 하나였는데, 이름 하나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던 우리 풍속으로 보면 실로 중대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실 이는 단지 확대하는 수단일 뿐, 실제 개명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날 공용경은 북악산과 인왕산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북악산은 공북산, 인왕산은 필운산이라 지었다. 인왕산이 경복궁의 우측에 서서 임금을 돕는다는 의미. 그런데 이 필운이라는 이름이 선인들도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산 아래

계곡의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해왔고, 이곳에 살았던 이항복은 이를 자신의 별호로 정하여 집 뒤에 있던 석벽에 직접 ‘필운대’ 석 자를 써놓았다고 한다. 비록 지금 남은 각자는 고종 때 그의 후손으로 영의정을 지낸 이윤희가 다시 새긴 것이라고는 해도, 여전히 운치가 깊고 남다르다. 하지만 그 앞에 서서 이항복의 집 터를 상상하며 뒤를 돌아보면 턱 하고 가로막힌 육중한 학교 건물에 한숨만 절로 나온다. 조선 중기의 학자로 정승을 지낸 청백리 이항복. 그가 살았던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지금의 학생들은 그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그의 옛 일화들을 떠올리며 필운대 계곡에서 즐거운 사색을 즐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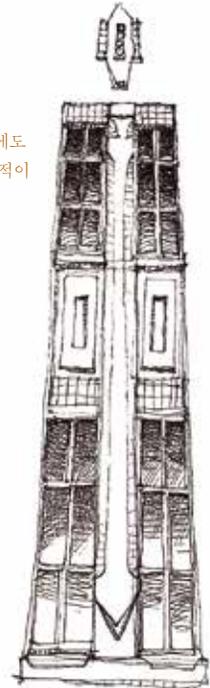
# 경기상고 京畿商高



붉은 소나무들이 마치 불춤을 추는 듯하다.



청송관  
경사지붕과 곳곳에 사용된 화강암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 단순한 고딕풍의  
건물이다.



창문 하나의 장식에도  
무척 공을 들인 흔적이  
엿보인다.

**오래** 된 흔적의 대명사로 역시 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경북궁 근처의  
경기상고 교정은 근사한 나무들의 향연에 폭  
젖을 만한 근사한 곳이다. 본관 앞에 줄지어 선  
소나무들은 마치 불타오르는 듯 붉은 표피를  
뽐내고 있다. 그 사이를 걷는 느낌은 학생들의  
젊은 열정만큼이나 뜨거운 나무들의 축하 사열을  
받는 것만 같다. 그 기분은 본관을 돌아 널찍한  
등나무 그늘이 하늘을 가린 뒤뜰을 거닐어 보면  
묘하게 차분해진다. 이 부근에 대학자 청송  
성수침의 독서당이 있었던 까닭일까. 성수침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 조광조의 제자였다. 시대를  
뒤바꿀 수 있었던 개혁가 중 한 명이었던 조광조의  
정책이 기묘사화로 물거품이 되자 그 역시 모든  
걸 내려놓고 두문불출 들어앉아 공부만 했다.  
독서당이었던 곳이 지금은 학교가 되었으니  
장소의 내력이 이토록 딱 들어맞는 계승이 또  
있을까. 독서당의 이름은 자신의 호를 따서  
청송당(聽松堂)이라 지었다. 소나무의 소리를  
들으라는 의미였을까. 다가왔은 북악산 숲 숲의  
기세가 감미롭기만 하다. 바람이 불자 일렁이는 숲.  
가만히 소나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았다.

# 정독도서관 (경기고京畿高)



흰색으로 재단장한 건물이 파란 하늘 아래 산뜻해 보인다. 운동장을 꾸민 도서관 앞뜰에는 거대한 보호수 회화나무를 비롯해 많은 꽃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거닐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이다. 건축물은 전반적으로 과다한 장식적이지 않은 모더니즘의 성격을 갖고 있고, 중앙을 강조하기 위해 돌출된 탑과 포지만이 눈에 띈다. 1938년 당시에는 벽돌과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지고 스팀 난방시설까지 갖춘 최신타 학교였다고 하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교정** 스케치 마지막은 정독도서관이다. 고등학교 스케치에 웬 도서관이냐는 의문을 가질 독자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화동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원래 경기고등학교 건물이었다. 지금은 학교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도서관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재학생부터 졸업한 동문까지 이전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세 배나 넓은 강남으로 옮기는 데다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준다지만, 막상 고향 같은 처음의 터를 떠나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결국 화동에 있는 교사는 허물지 않고 도서관으로 사용하겠다는 타협안이 수용되어 국립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이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커다란 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아마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 풍경 그윽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책 한 번 펼쳐 보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밟길기 끊이지 않는 곳이다. 차선책으로서 가장 긍정적인 용도의 변화가 아니었을까.

도서관이 되면서 교정 안에는 조선의 종친부 기와건물도 들어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 종친부란 조선 역대 제왕의 어보와 어진을 보관하고 종친 간의 인사문제와 갈등을 조정하던 곳. 원래 경복궁 옆 옛 국군기무사령부 부지 내에 있었던 것을 1981년 이 자리로 옮겨온 것이다. 하지만 사령부가 미술관으로 바뀌면서 2012년에 건물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지금은 텅 빈 공간이 되었다. 말 그대로 문화재 홀대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었던 장소였다. 익숙했던 풍경의 변화. 이제 그 너른 잔디밭에는 무엇이 들어설까. 마침 봄비가 막 그치고 맑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유난히 늦은 울봄의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던 오후, 나는 학생들이 뛰어 놀던 운동장에 조성된 도서관 앞뜰의 벤치에 앉아 간단하게 스케치를 담고 책을 펼쳐 들었다. 그리고 따스한 봄 햇살을 음미하며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지금은 휴게실로 쓰이는 이 독립적인 건물은 원래 강당이였다. 수직적인 느낌을 강하게 담은 4개의 전면 기둥은 건물을 더욱 견고하고 강압적으로 보이게 한다.



글·그림 이정희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뉴욕에서 일러스트를 공부했다. 각종 매체에 일러스트와 사진, 칼럼 등을 실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 <풍경과 함께 한 스케치 여행-뉴욕>, <아메리카, 천 개의 자유를 만나다>,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가 있다. 홈페이지 www.tthat.com

서울은 나쁜 애인 같아. 몇 년 전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다. 어쩌다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럴듯했다. 어, 나쁜 애인. 너는 그(녀)를 사랑해. 아주 매력적이지. 아마 엄청 보기 좋은 사람일 거야. 인기가 많아. 웃도 잘 입을 거고. 그만큼 까다로울 거야. 새로 생긴 근사한 식당이나 술집에 대해서도 빠삭해. 만날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사들였을 거고. 한마디로 돈을 좀 쓸 줄 아는 거지. 근데/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모두 하나같이 매끄러운 얼굴로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데. 그럴수록 더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네 눈 앞에서 근사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해도 오늘 아침에 그(녀)가 뭘 했을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아니,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야.

반대로 대단히 솔직해. 그런데 비밀이 많아 보여. 만나면 아주 즐거운데 헤어지고 나면 허무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언제나 혼란에 빠져. 뭔가에 홀렸던 것 같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친구들한테 말하면 어쩐지 수상하다며 헤어지라고 해. 좋은 상대가 아니야. 힘들어질 거야. 불행해질 거야. 골치가 아파질걸. 있잖아, 애인이라는 건, 착하고 순한 게 최고야. 너만 바라보고 아껴주는, 다정한 사람. 좀 지루하지, 그지. 그래도 결국 그런 사람이 제일이야. 알잖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말이 맞다니까. 두고 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녀)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 네 말이 맞아. (한숨) 나 요새 힘들어. 너는 언제나 옳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런데 문제가 뭘지 알아? 나쁜 애인은 언제나 좋은 애인보다 더 좋아 보인다는 거다. 더 즐겁고, 더 신나고, 더 화려하고, 한마디로, 갖고 싶게 해. 그리고 나쁜 애인은 언제나 도시 출신이다. 나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 그러니 서울이란 도시가 나쁜 애인처럼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도시 전체가. 아주. 나쁜 매력을. 풍긴다. 나쁜 애인. 몇 번이나 헤어졌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번엔 진짜 잊겠다 다짐하지만 그럴 때마다 전화를 걸어와 달콤한 목소리로 처음 들었던 카테일의 이름을 읊어서 호기심에 따라 나서게 만드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를까. 궁금하다면 구글에 물어보자. 단 1초면 수천 개의 답이 뜰 테니까. 첫 번째로 뜬 인기 블로거의 심리상담에 귀 기울여보자. 물론 예상한 대로. 당장 그 관계를 끊으세요. 당신은 지금 최악의 상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어, 나도 알아.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늦은 밤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처량한 목소리를 들으며 슬퍼할 일이 없이지않아. 야, 그게 바로 너의 문제야. 밤에는 잠을 자야지!

소설가 김사과가 서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 나쁜 애인



사람들은 서울로 온다. 돈을 벌려고. 성공을 위해. 좋은 학교에 가려고. 그(녀)를 만나려고. 쇼핑을 하려고. 요즘 최고 인기라는 클럽에 가려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음악회에 가려고. 아니, 그냥, 다, 서울에 있으니까. 상품이,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즐거움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내, 오래된 기억이. 혹은 단순히 좋으니까. 뭔가 항상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로 온다. 그 비싸고 더러운 도시로. 그 성깔 있고 오만한 도시로. 새것과, 새것처럼 반짝거리는 사람들로 꽉 찬, 미치게 바쁜, 거대한 선물상자 같은 그 도시로. 그러고는 떠나지를 못한다. 욕을 하면서도 되돌아온다. 모든 것이 자꾸만 그 안으로 기어들어간다. 돈과 상품과 사람들이. 도시는 계절스럽게 그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끝없이 부풀어오른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절대로 이 나쁜 애인을 손에 넣을 수 없을 거라는 거. 왜냐하면 그(녀)와 사랑에 빠진 나와 같은 멍청이가 한둘이 아닐 테니까. 왜냐하면 내 손에 넣기에 이 도시는 너무 크고, 오늘도 나날이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터져버리지는 않을지.)

거 봐, 내 말이 맞지? 괜찮아, 잊어버려. 내가 더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근데 진짜 문제가 뭐지 알아? 더 좋은 사람 따위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나쁜 애인한테서 못 벗어나는지 알아? 나쁜 애인은 환상을 만족시켜주거든. 네가 가장 원하는 그 꿈을, 손에 잡히도록 선명하게 만들어서 꼭 채워주거든. 그건 좋은 애인이 절대 못하는 거야. 좋은 애인은 아마도 그 환상에 맛이 가버린 나를 치유해주겠지. 환상 따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지. 근데, 그게 말이 돼? 인간은 환상 없이 살 수 없어. 환상만으로 살 수 없는 것만큼, 환상 없이 살 수 없다구. 솔직히 말해봐. 넌 환상 없이 살 수 있어? 정말? 하지만 환상은 널 죽일지도 모른다고?

근데 있잖아, 결국 우리는 모두 죽어.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 도시로 모여든다. 그러나 나에게, 오히려 여기서 모두가 죽어간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 그 유명한 시인이 오래전에 그렇게 말했어. 근데, 그래서? 그게 대체 무슨 문제야? 결국 우리는 다 죽어. 그게 지금까지 발견된, 인간에 관한 유일한 진실이야. 그러니 사람들이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더욱 철저히 추구하기 위해 이 끔찍하게 매혹적인 도시로 온다면, 과연 그것보다 더 진실된 행위가 있을까? 난 모르겠어.

그리하여,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도 서울로 간다.



글 김사과  
2005년 <영아>로 제8회 참비신인소설상 수상.  
장편소설 <미나>, <풀이 늙는다>, <나&책>,  
<테러의 시>, 단편집으로 <02>가 있다.

그림 김남희  
콜라주를 이용한 독특하고 유쾌한 작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 5월의 꽃, 메이퀸이 사라진 이유

지금은 사라졌지만 해마다 5월이면 대학가는 축제를 열고 메이퀸을 뽑는 달뜬 분위기에 휩싸였다. 절세 지성으로 꼽힌 5월의 그녀들, 이제는 사라진 메이퀸을 추억하다.

2007년 대통령 선거운동 중에 뜬금없이 '메이퀸' 논쟁이 일어났다. 이명박 당시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메이퀸이었다, 아니었다 하는 것이었는데 올해에는 청문회에도 못 가보고 낙마한 김용준 총리 후보의 부인 서채원 여사도 메이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고 뜨악해했지만 주변의 아부쟁이, 과잉 충성파들은 기어코 그들이 메이퀸이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들은 메이퀸이 아니라 학과 퀸으로서 들러리 시너 역을 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쓴웃음을 짓게 했다(학과 퀸이었다는 것도 명확치 않다). 메이퀸과 학과 퀸은 천양지차라는 것을 모르는 해프닝이었다.

## 당대 최고의 유명인, 메이퀸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화여자대학의 '메이퀸'은 그야말로 장안의 최고 유명인이었다. 그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요즘의 아이돌 스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았다. 그래서 5월 31일, 그날 신촌의 모든 골목은 오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화여대의 정문과 후문은 물론이고 연세대, 신촌시장, 신촌 로터리 근방으로부터 남녀 대학생들과 젊은 회사원들이 모여들



한양대 메이퀸 선발 모습. 인파와 행사 규모를 보면 메이퀸 선발이 주요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메이퀸 탄생을 알리는 왕관 수여식.



고, 만나고, 물려다녔다. 이날은 이화여대의 개교기념일인 메이데이. 그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메이퀸 선발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개교기념일 쌍쌍파티에는 초대장이 필요했지만 초대장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과 구경꾼들도 이대 근방에 속속 모여들어 그야말로 이날 신촌 일대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교내에서도 각종 전시회, 발표회, 세미나가 열려 이날만은 ‘금남의 집’인 이대가 개방되고 일반인들의 교내 출입도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날은 학교라기보다는 비밀의 정원에서 꽃놀이를 하게 되는 특별한 공간이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뛰니 뛰니 해도 이 축제날의 절정은 메이퀸 선발과 대관식이었다.

“여왕이 나타나자 들떠 있던 소란은 한순간에 뚝 그쳤다. 주변을 가득 메운 8,000여 명의 시선이 한곳으로 쏠렸다. 하얀 배꽃처럼 흰 한복을 입은 여왕, 그리고 꽃술이 되어 그 뒤를 따르는 분홍색 한복차림의 학과 퀸인 29명의 시녀들. 해군 군악대

의 주악에 맞춰 붉은 카펫이 깔린 21개의 계단을 사뿐사뿐 오르던 여왕은 잠시 멈춰서는 듯하더니 뒤돌아서 미소를 머금고 사철나무와 장미 송이로 장식된 ‘5월의 궁’에 들어섰다. 여왕이 우아하게 치마를 고르며 자리에 앉자 배꽃을 수놓은 메이퀸 화관이 씌워졌다. 이때 식장 위를 선회하던 언론사 헬리콥터에서 축하화환이 던져지고 오색 종이기가 쏟아졌다. 일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젊음과 신록이 넘쳐나는 캠퍼스에는 박수, 함성, 오색 색종이 꽃가루가 가득해지고 새 여왕의 탄생을 기리는 ‘이화의 노래’가 신촌 골에 울려 퍼졌다.” (1965년 5월 31일자 신문)

이것은 1960년대 중반 이화여대 개교기념 축제인 ‘이화잔치’의 하이라이트, 메이퀸 대관식 정경을 보도한 유력 일간지의 거의 대동소이한 기사 내용이다.

대학 축제 중에도 단연 인기 최고였던 이대 메이퀸 대관식은 당시에는 단순히 이화여대만의 행사가 아니었다. 서울의 남자 대학생이나 초년의 남자 회사원이라면 누

1972년 이대 메이퀸.



구나 그곳 대관식과 이어서 열린 쌍쌍파티에 초대받고 싶어했다. 5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이 축제는 당시 서울의 10여 군데 이상의 대학에서 벌어지는 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상징성이 있었다.

또한 당시의 여왕 선발대회는 모든 신문의 사회면 톱픽 기사거리였다. 인물사진과 함께 개인의 학교 성적과 일상사는 물론 가족관계, 취미까지 소개되었다. 이대 메이퀸 선발의 경우, 며칠 전부터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대관식의 세세한 모습과 에피소드까지 생중계하듯 보도됐다.

### 대학가를 뒤덮은 메이퀸 선발 대회

당시 메이퀸 선발이 이대에만 있었던 행사는 아니었다. 숙명여대, 덕성여대, 수도권여자 사범대 등 여자대학은 물론 연세대, 한양대, 단국대 등 남녀공학의 대학들에서도 메이퀸을 뽑았다. 일부 여고에서도 대학을 흉내내 메이퀸을 뽑았지만 그 모든 대학과 여고의 메이퀸은 이대의 메이퀸만큼 주목받지 못했다. 그것은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또 이미 1908년부터 메이퀸을 선발했던 전통이 어우러져 ‘메이퀸 하면 이대’라는 인식이 굳어진 탓이었다.

1967년 이대 메이퀸은 각 과에서 뽑힌 후보 40명이 4,000명 학생이 들어찬 대강당에서 1분 스피치, 몸맵시, 걸음걸이 등 일종의 뷰티 콘테스트를 거쳐 선발되었다. 1차로 학과에서 선발된 후보들은 B학점 이상, 기독교인, 키 160cm 이상의 재원이었다. 학교 측이 꼭 그렇다고 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적, 품행 외에도 외모는 중요한 선발기준이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학교건 사회건 모두가 메이퀸 하면 그 학교의 간판 얼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해 연세대학은 이대와는 다르게 메이퀸을 뽑았다. 여학생들이 추천한 14명의 후보를 남학생 대표 250명이 3명으로 압축하고 이를 다시 교수 15인 선정위원회에



각 대학 메이퀸 좌담회.  
당시 이들은 미와 지성의 사절단이었다.

서 가리는 절차를 거쳤다. 선출 방식이 조금 복잡해 제법 공정한 듯하지만 여학생들은 기초자료만 제공하고 선발권은 사실상 남학생들에게 있는 셈이었다. 그래서 결국 ‘남성들 눈에 맞는 미인을 선발하는 것’ 아니냐는 편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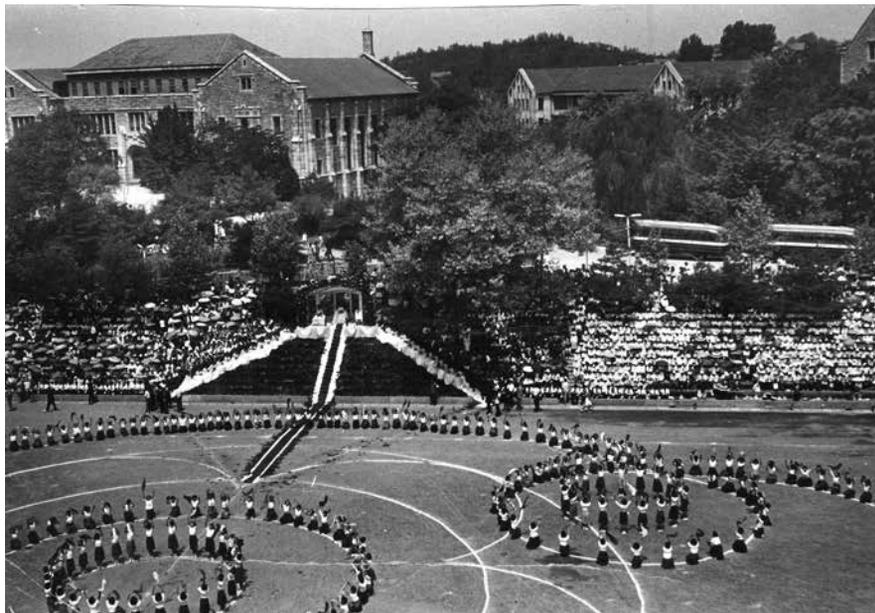
### 불미스러운 비극 그 이후

5월의 모든 축제가 끝나면 시내 대학가에서는 쌍쌍파티의 무용담과 미인대회에서 만난 파트너 얘기, 메이퀸의 중고등학교 시절 족보 캐기에 여념이 없었다. 각 대학의 호사가들은 그해 메이퀸 대회 종합 품평회를 열었고 일부 과에선 몇몇 메이퀸을 놓고 인기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도 했다.

메이퀸으로 뽑힌 여학생들은 대학학보에는 물론 각종 잡지, 신문에 사진이 실렸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정보를 취합할 수 있었다(총각들이 많은 회사에서도 대학가의 메이퀸 대회가 더할 나위 없는 인

기 예상 게임이었다).

대학은 물론이고 사회에까지 이런 화제를 제공했던 메이퀸 선발대회는 1971년 커다란 위기를 맞는다. 그해 6월 30일 밤 11시 반경 서울 충무로의 한 호텔에서 모 대학 메이퀸이 17층 객실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녀는 이날 저녁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오빠 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강제로 객실로 끌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오빠 친구의 결혼 신청을 거부하다 메이퀸 스스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추후에 살인사건으로 밝혀져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우선 언론이 ‘메이퀸 살인사건’과는 별개로 “미녀선발, 육체미대회로 전락한 대학의 메이퀸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정희경 이화여고 교장은 동아일보 칼럼에서 “가슴,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을 수량적으로 규격화하여 다양



메이퀸 대관식 후 마스크게임 등의 대규모  
부대행사가 이어졌다.

한 개성미보다 육감적이고 외향적인 미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어느 대학 교수는, “학업에 전념해야 할 여대생들이 메이퀸으로 선발되기 위하여 의상이다, 화장이다 하여 들이는 액수가 엄청난 데 대해 개탄에 앞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런 비판과 함께 1970년대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관심도 ‘우리 것과는 별 상관 없는’ 메이퀸 선발 행사에서 멀어져갔다. 여기에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등 시국 상황은 대학생들에게 세상과 무관한 여왕 뽑기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을 주었다. 여왕 대관식을 지켜보던 학생들도 하나둘씩 축제 현장을 떠나 민주화 데모에 나섰다. 일부 학생들은 메이퀸 선발식장에 들어가 “학우들이 최루탄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외치는데 미인대회가 무엇이나!”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1975년 5월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 발동으로 손과 입이

묶여 1978년 폐지될 때까지 이대의 5월 축제에서는 여전히 대관식이 치러졌고 메이퀸 선발 또한 이날의 최고 인기 행사로 진행됐다.

#### 추억으로 남은 메이퀸

메이퀸 선발은 1908년 이화학당의 스물두 번째 개교 기념식에서 창립자 스크랜턴 부인에게 ‘메이퀸’이라는 명칭을 헌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자운영 풀로 엮은 화관, 사철나무 잎사귀로 엮은 휘장을 어깨에 두르고 운동장을 도는, 그야말로 소박하고, 정겹고, 알뜰한 교내 축제였다. 그래서 메이퀸의 왕관은 일제강점기부터 교정예쁜 생화를 사용했고 70주년이 되기까지 여왕의 화관은 장미로 엮은 생화를 썼다.

한국 여성교육의 선각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에서 시작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5월 대학 축제 문화의 상징 메이퀸 선발대회. 비록 메이퀸이 쓰던 왕관은 이제

역사관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화려했던 메이퀸 신화는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게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또 다른 5월은 여전히 그때의 설렘과 향기로 남아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에서 웬 미인대회?’라고 생뚱맞은 인식을 가질 만하지만.

글 김광만

시인으로 출발해 다큐멘터리 작가를 거쳐 현재는 독립프로덕션 PD로 활동 중이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은 역사, 쉬 드러나지 않은 진실, 잊히고 숨겨진 것의 정체를 끝끝내 밝히는 일을 즐긴다.

사진 중앙포토

인디밴드 지원센터를  
건설하신다고요?

# 그런 지원 말고 이런 지원 말입니다

인디밴드 지원센터도 건설하는 ‘좋은’ 세상입니다. 이 ‘좋은’ 세상 조금 더 좋게, 제대로 만들기 위해 현역 예술가가 직접 진짜 예술가들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책 결정자분들, 괜한 탁상공론으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이 글을 읽어주세요.



최근에 한 자치단체에서 인디밴드를 위한 시설을 만들겠다 하여 자문회의에 나갔습니다. 반가운 얼굴, 오래된 인연들과 안부를 물으며 너스레를 떨다 보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인디밴드 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나이트 클럽만이 할 수 있는 옛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때는(우리 때라고 하면 현재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각하가 살아계실 때와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던 시기를 말합니다) 밴드라고 하면 나이트클럽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실 수 있도록 춤추기 좋은 곡을 연주하는 나이트 ‘밴드’와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에 나가기 위해 연습하던 좁 사는 집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그룹사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대학가요제였고 대학에 못 가면 강변가요제라도 나가기 위해 교회 연습실이나 동네 합주실에서 열심히 연습했고,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부대효과로 친구 아버지들을 헬크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저 역시도 가출을 하는 등의 소소한 저항을 시도해봤지만 느는 것은 부서진 기타뿐이라 결국엔 백기투항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재수를 거쳐 대학을 갔죠. 이런 시절을 지낸 저로서는 인디밴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선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나 할까요? 격세지감? 감개가 무량하다고나 할까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인디밴드의 조상이 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지원시설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재능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기타 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경제적인 이유 탓에 그나마 잘하는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든 큰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던 간에 이유를 막론하고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요. 안타까운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지만 늘어놓겠습니다.

## 예술가가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오래전에 한 일본 친구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나름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었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젊은이답게 암전했고, 그림은 뭐 대단치 않은, 당시 유행하던 애플 낙서 같은 그림이었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가 다니는 회사 이야기였습니다. 철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로 예술가들이 많이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개인전이나 해외 전시나 레지던스에 참가하면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사장님이 아티스트 출신이냐고 물어보니가 그건 아니고 일본이 버블경제로 인건비가 비싸지고 용접이라는 일이 워낙 힘들어 하려는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업으로 빠져나가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쓰셨는데 일하는 것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고 불량이 많아서 고민하던 중 우연하게 한 전시에서



대부분이 아티스트입니다. 이 회사가 좋은 디자인에 재활용 자재로 가방을 만들어서 성공했다고만 알려져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어놓고 못 팔고 계신데 프라이탁이라는 회사는 한마디로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를 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그 회사는 입사시험이 "How creative you are?"입니다. 최대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기 위해 잠시 거친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마디로 '니가 얼마나 또라이인지, 얼마나 멋진지를 보여줘'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 자신이 만든 가방 개수만큼 임금을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기본급이나 수당 같은 최소한의 근무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 만든 만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엔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놀입니다. 회사가 작업실이고 놀이터라고요.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내고 그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은 사업화시키고 돈이 벌리면 또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고요. 유럽의 젊은이들이 프라이탁 가방을 샀던 이유는 가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회사가 하는 짓이 멋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세상에 더 많아지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식적 소비(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2008년에 제가 연락해보니 회사가 완전히 돈만 아는 조직으로 바뀌었다라고요). 여기서 젠트리피케이션(한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돈밖에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 장사판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네요.

### 아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제언

이야기가 산으로 갔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서울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으면 규모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1%가 조금 안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돈으로 내도 되나 봅니다. 덕분에 대학의 조소과 교수님들이 잘살게 되었고 그 기금은 앞으로도 미술인들의 것이니 그 돈을 나눠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공공 건축물을 계획할 때부터 그 건물의 디자인뿐 아니라 그 건물의 음악, 그 건물의 시, 그 건물의 공간을 이용한 공연, 그 건물과 주변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영화 등을 함께 계획하면 어떨까요? 건물의 현상설계에서 선정된 건축가와 문화재단에서 추천한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곡과 작시만 한다면 개관행사 때 와인 값만 아껴도 가능할 것 같고 공연 비용은 어차피 개관 비용으로 잡혀 있을 테고 홍보비가 있으니 단편영화

한 편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공공이 선도한다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기대되는 사회적 효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아이 돌 잔치에 쓸 곡을 의뢰해서 만드는 문화가 생길 수도 있겠고 친구 집들이 선물로 시인에게 의뢰해 정성스레 지은 시 한 수를 선물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효과가 행정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V에서 본 이야기로 끝맺겠습니다. 화려한 플라멩코 댄서의 춤과 가수의 노래, 기타리스트의 연주가 나왔는데, 이 기타리스트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제법 규모가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네 플라멩코 클럽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와. 바로 이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디뮤지션의 삶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인디밴드 지원센터를 만들 때 꼭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넣겠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만 되어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밴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시급 4,860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는 사진작가 분은 도배를 하십니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작가가 아니라 좋은 작업을 꾸준히 하시는 진짜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작가 분은 평소에는 커피공을 볶으시고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에어컨 기사 일을 하시지요. 그리고 보니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디하신 강태환 선생님께서는 피아노 조율사로 가장 노릇을 하셨고 아들, 딸 다 조율사 자격증을 따게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요.

철 조각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을 보고 감동받으신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응접해놓은 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작가를 찾아서 물어보니 작가라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위해서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다수의 작가들은 직장이 없고 생계는 여러 가지 파트타임 일들을 하며 해결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자 작가는 자신은 전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럼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은 근무시간을 조정해주는 것으로 하여 그 작가 이외에도 많은 조각가들이 일자리를 찾았고 그 공장 출신으로 유명해진 작가도 몇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소과 출신들이 많긴 하지만 자기처럼 다른 분야의 작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트럭 포장막을 재활용한 가방으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스위스의 프라이탁(Freitag)도 직원



글·사진 조윤석  
홍대 앞 사람. 이제 곧 실버보험에 들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오래전에 밴드 이름을 '황신해'라고 짓고 베이스를 쳤다. 요즘은 아나킨 프로젝트에서 2집 준비를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제공하려는 제공건축에서 근무하고 있다. 건축도장기능사. 비계기능사.

**인터뷰** 내내 색소폰 주자 이정식 씨를, 그는 '선생님'이라 불렀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그는 최상의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셈이다. 그 피아니스트, 이발차(31)는 사실 '선생님'의 딸이다.

'선생님'과 함께 4월 프랑스 예술 채널 아르테 TV를 통해 펼친 무대는 그 행운아의 근황을 인상 깊게 각인시켰다. 부전여전(父傳女傳)이라고나 해야 할까. 그들은 득음, 즉 언외별전의 경지를 펼쳐 보였다. 긴밀한 인터플레이의 예술, 재즈에서 잼(Jam·거칠게 '즉흥 협연'이라 옮겨두자)의 가장 큰 전제는 협연자들이 가진 기량은 물론 상상력이 엇비슷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사하는 용어와 개념의 수준이 서로 버금갈 때 생산적 담론이 이뤄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젊은 재즈 뮤지션들이 하듯 퓨전 아니면 포스트모던 재즈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비밥 같은 모던 재즈도 아니었다. 한참 세월을 소급해갔다. 옛 스윙 재즈라니! 베니 굿맨, 레스터 영... 1930년대 스윙 시대의 거장들이다. 이름은 알 것 같은데 그 음악은 가물가물한 사람들이다. 특히 '선생님'의 색소폰과 듀엣을 할 때, 이발차의 어깨는 부쩍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도시적 감성을 스윙에 엮은 바로 그 피아니스트란 말인가. (여기서 '스윙'이란 말에 대해 한 가지 짚어두기로 한다. 앞서 나온 첫 번째의 스윙이란 1930년대를 풍미했던 스윙 재즈라는 특정 스타일을 가리킨다. 두 번째의 스윙이란 재즈 특유의 박자감을 일컫는다. 여기서는 당연히 역사적 의미의 스윙이다.)

악보에 막대로 표시된 정규 박자를 마음껏 넘나드는 스윙감(Swing Feel)은 이발차가 진짜 재즈 뮤지션이라는 신뢰감을 주기에 족했다.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밥 먹다가도 맞춰봤던 곡이에요. 너무 많이 선생님한테서 배운 거죠." 이날 아버지와 함께 듀엣으로 들려준 'April In Paris'는 나이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능란한 스윙으로 귀를 호강시켰다. 언필칭 재즈 뮤지션이라면서 박자를 또박또박 지켜가며, 클래식 뮤지션들이 악보 보며 연주하듯, 연주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 당혹스러웠던 기억을 상기시킨다면 고맙기까지 할 지경이었다. 참 제대로 배웠구나, 싶다. 가장 확실한 증표로 발표한 음반과 발표할 음반을 보자.

2010년 발표한 <한밤의 라테(Late Night Latte)>가 첫 앨범이다. 유학했던 뉴욕 퍼체이스 칼리지의 교수가 인연을 맺어준 케니 워싱턴(드럼), 토드 콜먼(베이스) 그리고 자신이 참여한 전형적 재즈 트리오 편성의 연주다. 거의 하드밥(Hard Bop·1950년대 유행하기 시작한 재즈의 한 장르로 세련되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며, 블루스와 가스펠

## #1

### 피아니스트 이발차

한국일보 장병욱과 함께 지금 이 시대 한국 재즈계를 짊어질 젊은 뮤지션들을 찾아가다. 그가 만난 첫 번째 뮤지션은 넘치는 스윙감으로 확고한 자기 색깔을 구축하고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 이발차다. 그녀는 오래 젊은 재즈 뮤지션들이 취하는 퓨전이나 포스트모던 장르 대신 과거 정통 재즈를 현재에 소환해낸다.

# Lee Balcha

등의 장르도 녹아 있다)에 유사한 빠른 템포의 곡들로 특히 'Alone Together'는 최근 그곳에서 유행하는, 피아노-베이스 듀엣의 합주(Unison)가 인상적이다. 수시로 변화하는 왼손의 리듬, 약동하는 오른손의 선율은 브래드 멜다우를 연상시킬 정도다. 한편 자작곡 'Foggy Night'는 빌 에반스나 키스 재렛의 음악을 듣는 듯 청량하다. 굳이 비교하면 팻 메시니의 'Are You Going With Me?'의 피아노 버전이라고나 할까.

재즈 공부로 익숙해진 뉴욕의 녹음 엔지니어들이 각기 구사해내는 사운드의 특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재즈에서 피아노 트리오란 장르는 솔리스트가 숨을 데 없는, 일종의 정점이다. 사비를 다 털어 제작한 그 음반을 통해 이정식 밴드의



피아니스트라는 이미지를 불식하고 완전 독립을 선언한 셈이다.

그가 수학한 뉴욕의 퍼체이스 칼리지는 한국인들의 유학이 드물다.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고 그는 그곳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존 애버크롬비, 칩 코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할 갤퍼(Hal Galper) 등이 교수진이라는 점도 큰 이유다. “재즈 명문이라며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는 한국인들끼리 교류하기 십상이죠.”

그는 이제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다. 말하자면 한국은 재즈를 화두로 한 제2의 격전장이 될 것이다. “돌아와서 지금은 단국대, 백제예술대 등지에서 열심히 보따리 장사 중이죠. 다시 미국에 가서 앨범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2월, 아버지와 뉴욕의 맨해튼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4곡에 대해 말한다. “포스트모던 재즈, 자작곡, ‘선생님’의 곡 등등이에요.” 그는 아르테홀 공연 당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Song #1’(가칭)을 주목하라고 한다. “베이스 클라리넷, 트롬본, 색소폰 등 관악기 앙상블이 아주 서정적이죠.”

현재 그가 확보해둔 자작곡 50여 편을 근거 삼아 그는 말했다. “미국 무대에 서도 손색없는 유학파들이 속속 귀국해요. 한국서는 체감되지 않는 미국 등 새 재즈 스타일의 선두에 제가 서고 싶어요.” 앞으로 꼭 한국에 있으면서 앨범을 계속 낼 생각이다. 그는 5년만 지나면 한국 재즈의 판세는 뒤집힐 거라고 확신한다. “특히 일본 재즈와 비길 때 젊은 뮤지션들의 역량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아버지는 최고의 멘토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그는 수년 전 장충체육관에서 가졌던 아버지와 무대에 대해 이야기한다. “게스트 없이 이정식 밴드만으로 진행된 공연이었죠. 큰 사고 때문에 잊을 수 없어요.”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며 색소폰을 불던 이 씨가 홀연 모습을 감췄던 것이다. 단 아래로 떨어져 ‘쿵’ 소리가 날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선생님은 멀쩡했어요.” 이 씨는 무대로 다시 나와 마저 다 연주를 했다. 실은 요행히 그 자리에 있던 휠체어를 타고 나오긴 했지만, 이발차가 잊을 수 없는 이유는 거기서 화려한 무대의 이면을 절절히 체감한 때문이다.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고 만감이 교차했다.

완전한 자기 류(流·Style)에의 꿈은 그를 매혹하고 있다. “아버지의 연주는 설명 없이 들어도 아버지의 연주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스타일을 확립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인정받을 거예요. 건성으로 ‘잘한다’ 차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의 재즈란 무엇일까? “재즈와 국악의 어설픈 퓨전이 아니라 한국적 재즈의 정수를 찾아서 한국적 사운드를 기막히게 퓨전화하는, 진정한 퓨전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더 큰 그늘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우선 아르테 TV에서 선 보였던 것과 꼭 같은 스윙 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LIG아트홀(20일), 부산 LIG아트홀(28일)에서 여는 연주회가 어쩌면 그 시험대가 될지 모른다.

# Before I Die



## 공동체의 삶, 희망을 나누기 시작하다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의 빈 집 외벽이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적힌 칠판으로 가득 메워졌다. 일기장에 혼자만 적어 내려가던 꿈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 있게 커다란 일기장을 설치한 ‘비포아이다이(Before I Die)’ 프로젝트 덕분이다.

폐가의 외벽에 “Before I die I want to \_\_\_”라는 문장이 쓰인 커다란 칠판을 걸어두고 주민이 직접 뒷부분을 채울 수 있게 분필을 걸어둔다. 이것이 프로젝트 ‘비포아이다이(www.beforeidie.cc)’의 전부다. 나머지는 오가는 주민들이 직접 채워야 한다. 2011년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도시 계획자이자 예술가 캔디 창(Candy Chang)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버려진 집이 늘 아쉬웠던 그녀는 이 잉여 공간이 주민에게 뜻 깊은 곳으로 바뀌기를 바랐다. 그렇게 공리를 거듭하다가 그녀는 과거에 자신을 변화시켰던 한 질문을 기억해냈다. 그 질문이 바로 외벽 칠판에 쓰인 그 문구다. 죽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과연 누가 참여해줄 것인지, 누가 자신의 내밀한 꿈을 많은 사람에게 공개할 것인지 두려웠다. 걱정은 기우였다. 주민들은 곧 분필을 집어 들고 장난 섞인 꿈부터 가슴 뭉클한 희망까지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칠판은 곧 다수의 꿈으로 뒤덮였고 프로젝트는 뉴올리언스를 넘어 현재 포르투갈,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호주, 카자흐스탄 등지까지 확산됐다. 세계의 곳곳에 희망의 벽이 세워져 있다.

### 삶을 지탱하게 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질문

기쁨은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 명확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를테면 이 프로젝트의 질문 같은 것이다.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구체화시켜놓고 이를 목표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때야 잠시 고민해보게 된다. 지금의 내 삶이 유한하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가슴속에 숨겨왔던 버킷 리스트의 가장 뒷줄을 차지한 것은 무엇인지, 만약 원하는 것 없이 살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리해보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캔디 창은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비견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었다. 그녀는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기억이 있고, 그 경험은 ‘삶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삶이란 얼마나 짧고 비극적이며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일련의 사건, 계기가 생겨야 깨닫게 된다. 그녀는 그 경험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 그래서 공공의 장소에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이 덧씌워져 나쁜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죽기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싶다”  
 “죽기 전에 나의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죽기 전에 내 집을 갖고 싶다”  
 “죽기 전에 망가진 나의 인생을 바로잡고 싶다”  
 “죽기 전에 온전히 나 자신이고 싶다”  
 “죽기 전에 부모가 되고 싶다”



### 공공예술이 가진 힘을 증명하다

우리는 개인의 삶을 살지만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자식이며, 부하직원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으며, 지역 주민이다. 어딘가에 속해 있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개인의 내밀한 꿈에 집중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는 공공예술이 가진 힘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쉼없는 칠판만 남긴 채 실패할까 봐 두려워했지만 처음 뉴올리언스에 세워진 벽은 24시간 안에 모두 채워졌다. 공공장소에 자신의 메시지를 남길 기회는 생각보다 흔치 않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나의 이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드물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꿈을 가진 개인이 모인 공동체를 아우른다는 장점을 지녔다.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을 적으며 다른 사람의 희망을 읽고 감동하거나 웃거나 자신의 꿈을 다시 되돌아보기도 한다. 얼굴도 모른 채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꿈은 이렇게나 다양하고 다르다.

내 의견을 물어달라 조르지 않아도 공동의 메시지가 이렇게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은 놀랍다.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완성되는 이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사람들의 내밀한 꿈을 들여다보는 데 성공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는 '세상을 살리는 아이디어'라는 측면에 가장 잘 부합된다. 참여하기 쉽고 어렵지 않은 이 프로젝트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설치 비용도 비싸지 않을 것이다. 고고한 것, 이름난 작가의 값비싼 예술품으로도 매워질 수 없는 부분을 이 프로젝트는 정확하게 간파했다. 지금 공동의 삶을 사는 우리가 가장 돌아봐야 할 것을 꿰뚫은 덕분에 프로젝트는 널리 퍼질 수 있었다. 어느 나라, 어느 동네를 가든 구성원의 희망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프로젝트의 유례 없는 성공에 힘입어 '비포아이디어' 프로젝트 팀은 원하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스스로 벽을 설치하도록 돕는 툴 키트(Toolkit)도 만들었다. 칠판에 질문을 표기할 수 있는 스티커 세트와 가이드북, 분필과 홀더 세트, 장갑으로 이뤄져 있다. 만드는 방법, 참 간단하다. 희망을 나누고 삶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방증이다.

## 직접 프로젝트 실행해보기

### 1. 장소 선택하기

사람의 통행이 활발한 적당한 장소를 미리 모색한다. '비포아이디어' 팀은 빌딩 측면이나 벽, 공사 중인 건물장벽 등을 추천한다.

### 2. 허가받기

모두를 위한 공공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니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건물 소유주나 지역 커뮤니티 그룹, 사업자 등에게 허가를 받고, 시마다 공공예술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시에 확인을 받도록 하자.

### 3. 세상에 알리기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 세상에 알릴 차례. 소셜 미디어는 이럴 때 좋은 홍보 수단이 된다.

### 4. 벽 설치하기

'비포아이디어' 팀의 툴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의 재료는 문구점이나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이다. 사이트에서 스티커 문구와 설치 가이드북을 내려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타 궁금증은 hello@beforeidie.cc를 통해 질문하자.

### 5. 유지 관리하기

프로젝트가 성황을 이룬다면 벽은 금세 소망과 꿈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수시로 사진을 찍어 공유하고 벽을 지워 다른 구성원들이 채울 수 있게 관리하자.

# 5월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b>1</b></p> <p>달토끼, 서울을 그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ncers in Seoul Art Space</li> <li>• Inter-view 꿈을 묶다</li> <li>* 잠실창작스튜디오 - 2013 장애아동 창작지원 사업 '프로젝트 A'</li> </ul>	<p><b>2</b></p>	<p><b>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회 어린이 와우북 페스티벌</li> <li>• 시민영어강좌</li> <li>•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lt;문학의 밤&gt;</li> </ul>	<p><b>4</b></p> <p>서울댄스프로젝트 &lt;게릴라 춤판&gt;</p>
<p><b>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청아카데미 &lt;어린이극장&gt;</li> <li>• 시민청아카데미 &lt;동그란놀이터(5월 : 색채심리)&gt;</li> <li>* 2013 서교예술실험센터 작은예술지원사업 '소액多컬'</li> </ul>	<p><b>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공모 지원사업 '예술창작지원 - 문학' ~24일(금)까지</li> </ul>	<p><b>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체험프로젝트 '씨' &lt;꿈이 자라는 예술 텃밭&gt;</li> </ul>	<p><b>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랑방위크숍 &lt;독립영화제작&gt;</li> </ul>	<p><b>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민대학</li> </ul>	<p><b>1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메세나 특목 콘서트</li> <li>• 이상한 수호천사</li> </ul>	<p><b>1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순우 옛집 시민축제 &lt;봄날 최나무 골짜기 아래&gt;</li> <li>• 바스락콘서트</li> </ul>
<p><b>12</b></p> <p>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선포식</p>	<p><b>13</b></p>	<p><b>14</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li> </ul>	<p><b>15</b></p>	<p><b>16</b></p>	<p><b>17</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팔라루나</li> </ul>	<p><b>18</b></p>
<p><b>1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학동별곡, 100인 이야기</li> </ul>	<p><b>20</b></p>	<p><b>2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과 함께하는 시민연극3 - 그림자극 발표회</li> </ul>	<p><b>22</b></p>	<p><b>2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지널 뮤지컬 &lt;어린이 캣츠&gt;</li> <li>• 금천예술공장 &lt;2013년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gt;</li> </ul>	<p><b>24</b></p>	<p><b>2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관악명랑방석극장 &lt;파란 운동화&gt;</li> </ul>
<p><b>26</b></p>	<p><b>27</b></p>	<p><b>28</b></p>	<p><b>29</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크 콘서트 - 가수 조덕배</li> </ul>	<p><b>3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화동1번지 5기 동인 2013 볼페스티벌 &lt;국가보안법&gt;</li> </ul>	<p><b>31</b></p> <p>금천예술공장 예술재능 나누기 아티스트 인 스쿨 &lt;몸으로 말해요&gt;</p>	

1 wed

## 무용과 사진의 만남 〈Dancers in Seoul Art Space〉

서울시창작공간 흥은예술창작센터는 시민청에 이어 가든파이프 갤러리에서 〈무용과 사진의 만남 'Dancers in Seoul Art Space'〉 전시를 진행합니다. 신체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움직임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무용단체 '유빈댄스(Ubindance · 대표 : 이나현)'와, 중국과 대만에서 주로 활동하며 일본을 비롯하여 홍콩, 독일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현지인의 삶의 모습과 문화를 담은 사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채유 리(Chaiyu Lee)'는 지난 2013년 1월 흥은예술창작센터 입주 예술가로 처음 만난 후 서울시창작공간 매력 포인트 발굴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창작공간 내 예술가들이 작업해왔던 작업실 외에도 전시실, 창고, 지하실 등 익숙한 풍경부터 무뚝뚝하고 거칠기만 한 숨겨진 공간까지 예기치 못한 생소한 모습으로 재해석된 풍경들이 무용수들의 생생한 신체언어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무대로 변신합니다.

2013년 4월 현재, 서울에는 흥은예술창작센터를 비롯하여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등 총 11개의 창작공간이 있습니다. 각 공간의 숨겨진 매력 포인트를 찾고, 무용수의 몸과 장소가 하나가 된 풍경을 담은 사진 작업 〈Dancers in Seoul Art Space〉는 4월 2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가든파이프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시 : ~5월 19일(일)까지  
장소 : 가든파이프 갤러리  
문의 : 02-2157-8776

### 활력콘서트

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기획된 콘서트로, 시민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청의 대표 상설 공연입니다. 누구에게나 문턱을 낮춘 기본 좋은 공연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시 : 상설공연  
장소 : 시민청 1층 활짝라운지  
문의 : 02-739-5815

### 〈달토끼, 서울을 그리다〉

서울을 주제로 한 박재동, 이희재, 김광성 등 만화가가 23인의 전시가 시민청에서 열립니다. 달토끼가 그린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지금 시민청에 들려주세요. 어른에게는 잊고 있던 동심을 일깨워주고, 아이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기간 : ~5월 19일(일)까지  
장소 : 시민청 지하 1층 시민청갤러리  
문의 : 02-871-7400

### 〈Inter-view 꿈을 뚫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꿈'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채집하여 사운드 아트로 구현한 독특한 형식의 전시입니다. 과연 수많은 서울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꿈은 어떤 것일까요? 당신의 숨은 꿈은 또 어떤 것인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삭막한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 아름다운 꿈 한 조각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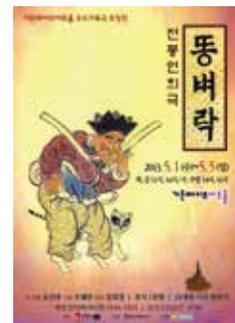


기간 : ~6월 30일(일)까지  
장소 : 시민청 지하 1층 소리갤러리  
문의 : 02-871-7400

### 전통연희극 〈똥벼락〉

관객과 배우가 '모내기'를 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어린이들이 농사의 소중함을 체험하도록 도와줄 공연입니다.

기간 : ~5월 5일(일)까지  
장소 : 가든파이프 아트홀  
문의 : 02-2157-8774



## 서울연극제

2010년 이후 창작극 활성화라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명실상부의 최고 연극제로서의 자리매김한 서울연극제는 공식참가작, 미래야 솟아라, 기획초정작, 자유참가작, 프린지 부문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기간 : ~5월 12일(일)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소극장, 예술공간 서울, 설치극장 정미술

문의 : 02-765-7500, www.stf.or.kr



## 2013년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관악창작공방 <내가 만드는 책 '북 아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서울시창작공간의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와 함께 창작공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공방프로그램은 스킵피를 이용한 브로치 만들기부터 유리, 칠보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해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올 4월부터 새롭게 문을 여는 창작공방은 우리나라 전통 바인딩 기술인 '오침안정법'을 응용하여 나만의 드로잉 북을 만드는 작업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워 일상생활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바인딩 기술은 그림책 또는 가족 앨범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방면에 응용 가능합니다. 6~12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참여비는 1,000원입니다.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하세요.

기간 : ~5월 29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1시

대상 : 6~12세 어린이와 보호자

장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쌩'

참여비 : 1,000원

참여 방법 :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www.seoulartspace.or.kr) 예약 접수

문의 : 02-871-7400

## 상설체험프로그램 <패션 디자인>

<패션 디자인> 프로그램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운영 시간 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상설체험 프로그램입니다. 3월까지 진행된 <스티커 디자인>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되는 <패션 디자인>은 내가 디자이너가 되어 직접 옷을 디자인해보는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자칫 개성을 잃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나만의 옷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활동지 위에 색종이와 크레파스 등의 재료를 이용해 패턴을 만들고, 색을 입혀 나만의 개성 넘치는 옷을 디자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완성된 작품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내에 전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념으로 참여자가 소장 하셔도 괜찮습니다. 참여비는 자율적으로 재료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령과 관계없이 체험 가능합니다.

기간 : ~6월 29일(토)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대상 : 방문객 누구나

장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쌩'

참여비 : 자율적 재료비

문의 : 02-871-7400

## 3 fri

## 이상한 책나라로 탐험여행 함께 가요!

### <제2회 어린이 와우북 페스티벌>

<제2회 어린이 와우북 페스티벌>이 5월 3일부터 5월 5일(일)까지 3일간, 홍익대 주차장 거리와 갤러리, 북

카페 등에서 개최됩니다. 약 40여 개의 출판사가 자신들의 책을 들고 축제에 참여하며 30여 명의 작가와 아티스트, 시민단체 등도 출판사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50여 개의 책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지적인 축제입니다.

축제 행사장인 홍대 거리 전역에서는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책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해 책을 통한 올바른 사고와 교육적 효과를 높여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을 '탐험'하면서 곳곳에서 자신만의 보물을 발견한다면 아이들 스스로가 멋진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겠죠.

이외에도 축제 공간 실내의 곳곳에 다채로운 책 관련 프로그램이 꾸며지며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콘텐츠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두성 In the Paper 갤러리를 중심으로 서교예술실험센터, 갤러리 뚝, 요기거표현갤러리와 실외 홍대 앞 주차장 거리의 어린이책놀이터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섹션들이 열립니다. 이 공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맑은 목소리를 가진 방송인들로 구성된 북캐스터의 '북캐스터가 읽어주는 동화', 아프리카와 몽골의 다문화 어머님들의 자국어로 읽어주는 낭독 '만나라 이야기 두비두비', 종이로 만들어보는 '뚝뚝뚝! 종이가구 만들기', 책 속의 이야기를 그림자극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스토리 그림자 인형극', 알록달록한 책의 마술을 맛볼 수 있는 '신기한 팝업북 만들기', 엄마와 함께 하는 '옛놀이 체험',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세상' 등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풍부하답니다.

기간 : 5월 3일(금)~5일(일)까지

장소 : 홍익대 주차장 거리, 갤러리, 북카페 등

문의 : 02-333-0246

## 시민영어강좌 <세계 도시를 그리다>

(사)한국영어영문학회에서 진행하는 봄학기 시민영어강좌로, 영문학과 영화, 그리고 도시를 주제로 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배움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을 지니신 시민분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기간 : 5월 3·10·24·31일(매주 금요일)

장소 :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

문의 : 02-2171-2429

##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문학의 밤>

가장 낭만적인 밤 중의 하나로 꿈을 만하죠. 탄생 100주년을 맞은 문인들의 작품을 재해석하는 문학의 밤에 오시면 문학과 낭만, 아름다웠던 과거의 선율이 주옥 같이 펼쳐질 겁니다.

일시 : 5월 3일 오후 7시~9시

장소 : 연희문학창작촌

문의 : 02-324-4690

4 sat

### 서울댄스프로젝트 <게릴라 춤판>

춤단이 벌이는 시민참여형 춤판(회당 15~20분)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게릴라 춤판이라는 비밀스럽고 수상한 이름답게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갑작스레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기간 : 5월 4일(토)~31일(금)까지, 매주 금·토요일, 10일, 11일, 17일 제외(공연 없음)

장소 : 금요일 오후 - 지하철, 토요일 오후 - 동호대교, 서울역, 청계천, 신촌 등

문의 : 02-3290-7166

#### 서울댄스프로젝트\_게릴라 춤판 일정

회차	공연일	시간	장소	내용	비고
1	5. 4(토)	4~6시	동호대교	대교댄스 : 뽕튀기 라인댄스	
2	5. 18(토)	2시, 3시	서울역	역전댄스 : 허그몽치댄스	
3	5. 24(금)	8시30분~10시	지하철	미러볼과 함께하는 메트로댄스	
4	5. 25(토)	4시, 7시	신촌, 홍대	야외이동클럽	DJ부스 운영, 1시간 공연
5	5. 31(금)	8시30분~10시	지하철	미러볼과 함께하는 메트로댄스	
6	6. 1(토)	6시30분~9시	예당육교 (건널목, 육교)	예당육교 교습소	1시간 공연
7	6. 7(금)	8시30분~10시	지하철	미러볼과 함께하는 메트로댄스	
8	6. 8(토)	3~6시	북촌마을	북촌 숨은 춤 찾기	
9	6. 14(금)	8시30분~10시	지하철	미러볼과 함께하는 메트로댄스	
10	6. 16(일)	2시, 3시	광화문광장	서클댄스, 테마댄스	
11	6. 22(토)	7시	청계천/청계광장	천변댄스 및 서클댄스 테마댄스 및 클럽댄스 타임	DJ부스 운영, 1시간 공연
12	7월 초	미정	시청(신청사)	시청습격 오픈 리허설	
13	7월 중순	미정	시청(신청사)	시청습격	DJ부스 운영

\* 세부 스케줄은 추후 서울댄스프로젝트 공식사이트/페이스북을 통해 공지

\* 상기 일정은 수정/변경 가능합니다.

### <51+>

4번째 열리는 한국의 대표 언더그라운드 페스티벌입니다.

일시 : 5월 4일(토)

장소 : 문래예술공장

입장료 : 35,000원(현매)

문의 : 02-2676-4333



### 가든파이프 <아트마켓>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가 참여하는 아트마켓이 가든파이프에서 펼쳐집니다.

기간 : 5월 4일(토)~5일(일)까지

장소 : 가든파이프

문의 : 02-2232-8833



5 sun

### 시민청아카데미 <어린이극장>

매주 일요일 다양한 장르의 가족 애니메이션을 상영합니다. 5월의 테마는 동물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일시 : 5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 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미방

문의 : 02-739-5811



### 시민청아카데미

#### <동그라미놀이터(5월 : 색채심리)>

매주 일요일 시민청 예술가들이 자화상 그리는 법, 미술치료 교육 등을 친절하게 가르쳐드립니다. 어린이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예술 교육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참여해주세요.

일시 : 5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6시(8주 과정)

장소 : 시민청 지하2층 동그라미방

문의 : 02-739-5811

#### 시민청아카데미 <말하는 책방>

책 읽지 않는 아이, 어떻게 하면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시민청에서 매주 일요일 책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을 높여주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동화 구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읽으라고 강요하기보다 어머니 아빠가 함께 참여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해보세요.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장소 : 시민청 지하1층 서울책방

문의 : 02-739-5811

7 tue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체험프로젝트 '씨' <꿈이 자라는 예술 텃밭>

서울시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예술가와 어린이의 매개자로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지원과 실행'에 초점을 둔 예술가 중심의 예술 체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가 및 단체들은 자유제안형, 지역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연계형으로 5~11월에 걸쳐 총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와유스튜디오'가 진행하게 될 <꿈이 자라는 예술 텃밭>은 원예 디자이너이자 동시에 시각예술 체험도 가능합니다. 어린이들은 옥상과 담벼락, 창가 등의 공간을 이용하여 채소와 꽃을 기르는 원예 활동과 함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며 농사와 예술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원예와 환경교육, 예술을 결합한 체험 활동을 통해 주변의 생활공간을 생산적이고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이자 취지입니다. 자연과 예술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9~10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기간 : 5월 7일(화)~7월 9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대상 : 9~10세 어린이  
장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밭', 3층 '별'  
참여비 : 무료  
참여 방법 : 신청서 접수(E-mail 및 방문)  
문의 : 02-871-7400

### 잠실창작스튜디오 장애아동 창작지원 '프로젝트 A'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장애아동 미술 일일 멘토링 공모 이벤트>

어린이날을 맞아 잠실창작스튜디오와 팍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장애아동 미술 일일 멘토링 공모 이벤트

일시 : 5월 7일 오후 1~5시  
장소 : 시민청 태평홀  
문의 : 02-423-6674



8 wed

### 사랑방워크숍 <독립영화제작>

시민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를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제작해보는 워크숍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립대와 연계해 '서울 그리고 도시'를 주제로 영화 제작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영화와 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매일 2·4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  
참여 방법 : 홈페이지 신청  
문의 : 02-739-5812

9 thu

### 서울시민대학

서울평생교육과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적 교양 강의 및 특강입니다.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 참석해주세요.

일시 : 5월 매주 화·목요일(화요일 : 5월 14일 개강, 목요일: 5월 9일 개강, 5주 진행)  
장소 : 시민청 지하 2층 워크숍룸 및 태평홀  
문의 : 02-2133-3968

10 fri

### 서울메세나 특독 콘서트

가장 예술적인 분위기에서 민간예술계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소통과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시민들이 '예술' 및 '예술 후원'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게 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일시 : 5월 10일(금)  
장소 : 연희문학창작촌  
문의 : 02-3290-7057, 02-324-4690

### 이상한 수호천사

사랑에 빠져버린 귀여운 악마의 사랑 이야기!  
다양한 오브제의 앙상블로 인형극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동화나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기간 : 5월 10일(금)~12일(일)까지  
장소 : 가든파이프 아트홀  
문의 : 02-2157-8774



11 sat

### 최순우 옛집 시민축제 <봄날 회나무 골짜기 아래>

시민들의 힘으로 보전한 시민문화유산1호 최순우 옛집에서 <봄날 회나무 골짜기 아래> 축제(후원: 서울문화재단)를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합니다. 최순우 옛집은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를 아끼고 널리 알린 최순우 선생님의 안목과 숨결, 문화유산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노력이 담겨 있는 뜻 깊은 곳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집, 마을, 사람'을 주제로 한 시민참여 전시와 재능기부 공연인 '뒤뜰 작은 음악회'가 열리며 근대미술(강사: 조은정, 이충렬)과 건축(임형남, 노은주), 사진(김재경) 등을 주제로 한 문화강좌, 성북동과 원서동 답사, 휴먼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경험과 추억, 지식을 독자와 직접 만나 나누는 휴먼라이브러리에서는 박준호(건축가), 이장희(일러스트 작가), 김남식(현대무용가), 호원숙(수필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는 전문가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동화읽기 강연, 스케치 답사(강사: 이용규) 프로그램은 어린이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간 : 5월 11일(토)~31일(금)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 월요일 휴관  
장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5길 9 '최순우 옛집'  
주최 :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http://cafe.naver.com/ntchfund>  
후원 : 서울문화재단  
문의 : 02-3675-3401~2(상세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 바스락콘서트

시민청에서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날짜별로 각기 다른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물론 무료입니다. 시민청 홈페이지에서 관람 신청을 하시거나 공연 당일 시민청 안내데스크에서 정오부터 나눠주는 무료 티켓을 받으시면 됩니다.

5월 11일(토) : 톨앤제리오카리나, 더뮤즈 오카리나의 오카리나 연주 공연

5월 18일(토)~19일(일) : 어린이 국악뮤지컬 <아기돼지 꼬꿈이> 공연

일시 : 5월 11일(토), 18일(토)~19일(일) 오후 4시~5시 30분

장소 :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문의 : 02-739-5812, www.seoulcitizenshall.kr

## \* 12 sun

###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선포식

아침 차게 준비한 <서울댄스프로젝트>가 그 시원한 막을 올리는 날입니다.

오프닝, 홍보대사

위촉식, 축하공연, 시민춤 등 거대한 댄스장을 도모할 선포식 이후 모든 시민이 춤바람 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일시 : 5월 12일(일) 오후 3시~4시 30분

장소 : 시민청 지하 1층 활짝라운지

문의 : 02-3290-7166



## 14 tue

### 2013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음악을 통한  
우정'이라는  
이상을 기반

으로 한 국내 정상급 실내악 중심 클래식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SF)는 2006년 "음악을 통한 우정"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세계 최정상급 실내악 중심 클래식 음악축제를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SSF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합니다. 첫째는 '문화도시'로서 서울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문화시민'으로서 서울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과 품격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문화복지'로서 고급 문화예술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부담 없이 향유하는 시대를 희망합니다. 특히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문화예술의 사회공익적 측면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야외음악회, 고궁음악회, 시민들을 위한 콘서트, 프린지 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문화배달 서비스 등과 같은 무료공연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나무를 위한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마스터 클래스 운영도 포함됩니다.

기간 : 5월 14일(화)~26일(일)까지  
장소 : 세종체임버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덕수궁 등  
문의 : 02-712-4879



## 17 fri

### 랄라루나

달의 관리인이 어두워진 달을 다시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비현실적이고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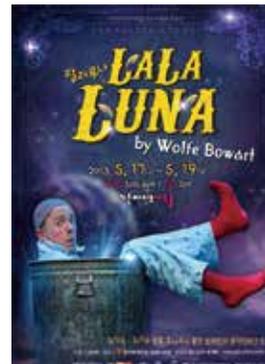
혹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연극이 구현

하는 아름다운 상상력이 펼쳐집니다.

기간 : 5월 17일(금)~19일(일)까지

장소 : 가든파빌 아트홀

문의 : 02-2157-8774



## 19 sun

### 황학동별곡, 100인 이야기

신당 중앙시장 상인 100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특징 등 삶의 단면을 집필한 독특한 전시를 경험해보세요.

기간 : 5월 19일(일)~25일(토)까지

장소 : 중앙시장 내

문의 : 02-2232-8833



## 21 tue

### 노숙인과 함께하는 시민연극3 - 그림자극 발표회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와 노숙인 및 홈리스들의 자활을 돕는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아마추어 극단 '연필통'의 창작 그림자극 공연이 열립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문화예술활성화 사업을 통해 진행된 이번 발표회에서 노숙인 참여자들은 전문 그림자극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짧은 그림자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2010년 프락시스는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와 종로구 쪽방촌 사람들과 함께 교육연극 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2년 '노숙인과 함께하는 시민연극2'에서는 <이문동네 사람들>과 <연필통 사람들>이라는 공동창작으로 상하반기 총 5회의 대학로 소극장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자발적으로 노숙인 아마추어 극단 '연필통(연극으로 필이 통하는 사람들)'이 결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3년 프락시스의 '노숙인과 함께하는 시민연극3'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통해 나타난 노숙인 참여자들의 적극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총 4주에 걸쳐 전문 강사에게 지도를 받아 짧은 '그림자극'을 창작,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사무실로 문의주세요.

일시 : 5월 21일(화)

장소 :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다목적실

문의 : 02-333-0246

23<sup>thu</sup>

**오리지널 뮤지컬 <어린이 캣츠>**

귀가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 최고의 춤

과 음악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무대! 새로운 상상과 감동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갑니다. 뮤지컬 최고의 작품 중 하나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다시 태어났습니다. <캣츠>의 그 감동 그대로, 아이와 함께 경험하실 가족을 기다립니다.

기간 : 5월 23일(목)~6월 16일(일)까지

장소 : 가든파이버 아트홀

문의 : 02-2157-8774



**금천예술공장 <2013년 오픈스튜디오 및 기획전>**

예술가의 작업실로 놀러 오세요. 예술가의 작업실을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가 금천예술공장에서 5월 23일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그간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과연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궁금증을 가져 오셨다면 주저 말고 엿보기에 동참해주세요.

기간 : 오픈스튜디오 5월 23일(목)~26일(일),

기획전시 5월 23일(목)~6월 21일(금)

장소 : 금천예술공장

문의 : 02-807-4135

25<sup>sat</sup>

**5월 관악명랑방석극장 <파란 운동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관악명랑방석극

장에서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유쾌한 현대무용인 온앤오프 무용단의 <파란 운동화>를 공연합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무용을 우리 주위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파란 운동화와 파란 통을 오브제로 풀어내 현대무용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린 착한 작품입니다. 무용수들의 신명 나는 몸짓은 때론 관객들이 놀랄 만큼 중형무진 무대를 채우며 관객들을 매료합니다.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온라인 예약 후 추첨을 통해 관람 가능 여부가 선정되며, 관람료는 3,000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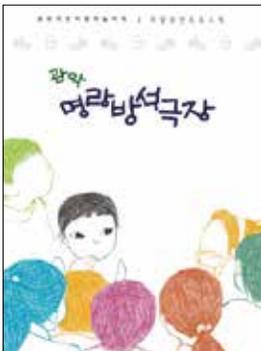
일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장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3층 '별'

참가비 : 3,000원

참여 방법 :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www.seoulartspace.or.kr) 예약 접수

문의 : 02-871-7400, www.seoulartspace.or.kr



29<sup>wed</sup>

**토크 콘서트 - 가수 조덕배**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삶과 음악에 얽힌 이야기를 관객과 나누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토크 콘서트>가 5월의 초대 손님으로 가수 조덕배 님을 모십니다. 그가 질

곡의 인생사를 통해 찾아낸 소중한 무언가를 듣고 싶으시거나 그의 주옥 같은 음악을 기억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일시 : 5월 29일(수)

장소 : 시민청 지하2층 이벤트홀

문의 : 02-739-5811

30<sup>thu</sup>

**혜화동1번지 5기 동인 2013 봄페스티벌 <국가보안법>**

혜화동1번지 5기 동인 페스티벌은

국내에 유일한 연출가 중심의 동인 연극 페스티벌입니다. 젊은 연출가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페스티벌의 이번 주제는 국가보안법이에요. 무언가 재미있는 작품이 오를 것 같지 않으신가요?

기간 : 5월 30일(목)~8월 4일(일)까지

장소 :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문의 : 02-922-0826



31<sup>fri</sup>

**금천예술공장 예술재능 나누기 아티스트 인 스쿨 <몸으로 말해요>**

우리가 쉽게 잊곤 하는 노동의 가치를 움직임의 통해 해석하고 깨달아보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아티스트가 직접 참여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예술재능 나누기' 프로그램의 하나로, 강지윤, 장극희 작가가 워크숍 강사로 나섭니다. 일상의 동작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세세한 동작과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해 일상에 길들여져 둔감해져 있는 우리 몸을 깨워보는 시간이 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움직임이 조합된 사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찾아낸 동작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도 가능해됩니다. 독특한 이번 워크숍 참여를 원하시면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다운로드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5월 31일(금)~6월 21일(금)까지, 총 4회 진행

장소 : 금천예술공장

신청 방법 : 서울시창작공간 홈페이지(www.seoulartspace.or.kr) 내 금천예술공장

공지사항에서 지원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www.seoulartspace.or.kr) 접수

문의 : 02-807-4122, 금천예술공장 블로그(http://blog.naver.com/sas\_g)

# 재단 공모 사업 가이드

~ 1 wed

## 잠실창작스튜디오 - 2013 장애아동 창작지원 사업 '프로젝트 A'

잠실창작스튜디오는 팝아티스트 마리킴을 주축으로 찰스장, 아트눔, 임지빈, 라오미 총 5명의 아티스트가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장애아동 미술 일일 멘토링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3 장애아동 창작지원 사업 '프로젝트 A'>의 일환으로, 공모와 일일 멘토링 체험 이벤트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는 55명 중 멘티 5명을 선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진 후 예술가-장애아동 공동 아트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 이벤트행사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과 기념품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5명의 장애아동이 만들어낸 아트워크 결과물은 후원사 조아제약(주)의 디자인 패키지로 상품화되고, 11월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장애아동 미술 일일 멘토링 공모 이벤트]

**대상** : 서울·경기 거주 장애아동(만18세까지), 장애 유형 제약 없음

※증빙자료 : 장애인복지카드

**서류 접수 기간** : 4월 22일(월) ~ 5월 1일(수) 10일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발표** : 5월 3일(금) 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일시** : 5월 7일(화) 오후 1~5시

**장소** : 서울시 신청사 B 2F 태평홀

### ['프로젝트 A' 멘토-멘티 결연식]

**일시** : 5월10일(금) 오후 3~4시

**장소** : 서울시 신청사 시민청 B 2F 동그라미방

**멘토** : 마리킴, 찰스장, 아트눔, 임지빈, 라오미(총 5명)

**멘티** : 내부 심사 후 5명 선정, 개별 연락

**신청 및 문의** : 02-423-6673-5

~ 24 fri

## 2013 예술창작지원 - 문학

문학 분야의 우수한 창작 작품 발간과 작가의 작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학의 창작 활성화 및 한국문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에서 2013 정기공모 지원사업 '예술창작지원-문학'을 진행합니다. 시, 시조, 소설, 평론, 희곡, 동시, 동화 분야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작품집 발간을 지원하오니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5월 6일(월)~24일(금)까지

**신청 자격** :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 중인 문인으로서

등단 10년 이하(2002년 12월 31일 이후 등단)인 문인

- 신춘문예, 문예지 추천, 신인문학상, 개인작품집 발간 등으로 등단

- 희곡은 공연 실적이 있는 경우도 가능

**신청 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fac.artskorea.or.kr) 공지사항 참고

**문의**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2-758-2167, 2171

~ 5 sun

## 2013 서교예술실험센터 작은예술지원사업 '소액다کم'

2013년 4월 15일부터 새 봄을 맞이한

서울시창작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이색 예술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예술지원사업의 경우 형식이 다소 엄중하고 딱딱하여 다양한 예술가 층을 품기 어려웠던 점에 착안하여 준비한 '소액다کم'은 지원금과 지원대상, 선정과정까지 어느 것 하나 기존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되지 않는 점이 없습니다. 단 하나, 지역 문화예술의 잠재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예술지원사업이라는 점만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소액다کم'의 차별화는 첫째, 지원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사업의 지원금 규모와 형식에 맞지 않아 배제되어온 매우 작은 규모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둘째, 지원과정은 소소한 프로젝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순하게 고안되었습니다. 작고 실험적인 프로젝트에 알맞게 각종 구비서류를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또한 지원자들의 아이디어가 행정 중심의 지원양식에 얽매이지 않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좀 더 아날로그적인 지원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라디오에 사연을 쓰듯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꿈과 아이디어, 열정을 자유롭게 염세에 담아 보내도록 하여, 기획력과 트렌드가 중시되는 현재의 문화예술계에서 창작자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셋째, 심사위원단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지원자들 스스로가 최종 심사위원이 됩니다. 심사결과만을 통보받는 닫힌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자들이 다 함께 모여 각자의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평가하는 열린 심사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심사과정 자체가 예술가들을 위한 견문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단 한 번의 기회로 흥망이 결정되는 기존의 지원사업들과는 다르게 상반기, 하반기 각 두 번씩 총 네 번의 기회를 제안하여, 문화예술의 잠재력이 되어주는 다양한 예술적 실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작지만 이색적인 서울시창작공간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시도가 현실성 있는 예술지원사업의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청 기간** : ~5월 5일(일)까지 우편 접수

**신청 문의** : 서교예술실험센터 02-333-0246



## 어떤 소식이든 올려드립니다

강좌 안내, 스터디 모임 모집, 밴드나 극단 멤버 모집, 공연 홍보 혹은 마을공동체 행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나누고 싶은 문화예술 소식을 게재해드립니다. 단, 지나친 상업성이나 홍보성이 없고 일정 정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소식에 한합니다. magicpuppy@sfac.or.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 소리꾼을 기다립니다

제7회 과천 전국 경기소리 경창대회가 경기소리의 가치를 널리 알리게 해줄 소리꾼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남녀 및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명창부로 나눠 참가자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일반부 참가자 중 기존에 도지사상 이상을 수상했던 사람이나 대학생은 제외되며, 명창부에 참가하시는 분 중 타 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와 전년도 대회에서 동일 부문 대상수상자 역시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참가 곡목은 경기12절가와 경기민요 중 선정해야 합니다. 예선과 본선에서는 반드시 다른 곡을 선택해야 하고요. 수상하시면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의 상금도 수여됩니다. 대회는 5월 23일 경기소리 전수관과 과천문화원에서 참가 부문별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서 교부 기간 : 5월 1~15일

접수 기간 : 5월 6~22일

참가 방법 : 이메일 접수 : 경기소리전수관(www.gsih.or.kr)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접수

우편 접수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89-12 경기소리전수관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사무국

문의 : 02-507-5825, www.gsih.or.kr

### 같이 춤추실 분!

'서정춤세상'이 신규 단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한국무용 전공자 중 좋은 춤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말아주세요. 단원이 되시면 2013년 '서정춤세상'의 주관사업에 출연하는 기회와 주간 연습 1회 참여, 외부 공연 기회가 있을 때 우선 추천해드립니다. 공연 후 소정의 출연료도 지급합니다. 단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한국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분야별 1작품씩 독무를 추는 동영상과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응시 방법 : 이력서, 동영상 및 사진이 첨부된 포트폴리오 제출

응시 기한 : 수시 모집

1차 오디션 : 한국 전통무용, 창작무용 독무 1작품씩 촬영 동영상

2차 오디션 및 결과 통지 : 개별 연락

응시 방법 : 이메일(sjchoom@hanmail.net) 접수

문의 : 010-8712-3438

### 농부의 시장, 함께 만드실 분을 찾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농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축제, '서울 농부의 시장'이 올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농촌의 농부와 도시의 숨은 농부가 만나 공들여 가꾼 농산품을

사고팔며, 예술가와 시민까지 함께 참여해 단순한 시장이 아닌, 공동체의 장터를 도모합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를 나누고 공유하는 것 역시 시장의 주요한 기능임을 느끼게 하는 좋은 행사입니다. 농촌 농부, 도시 농부, 이야기 농부, 농부 스타일, 고맙습니다 농부, 다섯 가지 다양한 농부가 되어 참가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가 선정하는 농촌 농부를 제외한 4가지 부문에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북서울 꿈의 숲, 보라매공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기간 : ~11월 16일까지 (7, 8월 쪽염기는 휴장), 매주 토 일

장소 : 북서울 꿈의 숲, 보라매공원, 광화문 광장

참가 신청 :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 양식 다운로드 후 접수

문의 : www.seoulfarmersmarket.com

### 극장을 빌려드립니다

동숭무대 소극장에서 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올 6월부터 극장이 필요하신 극단이라면 주목해주세요. 넓이는 가로 8m, 세로 7m의 소극장으로, 보조석을 포함해 110석 규모를 갖췄고 남녀 분장실 각 1실, 냉장고, 정수기, 온풍기, 에어컨 등의 제반 시설도 있습니다. 혜화동 로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 장기 대관 신청도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해주세요.

대관 일정 : 6월~

대관료 : 전화 문의

위치 : 혜화동 로터리

문의 : 010-3711-7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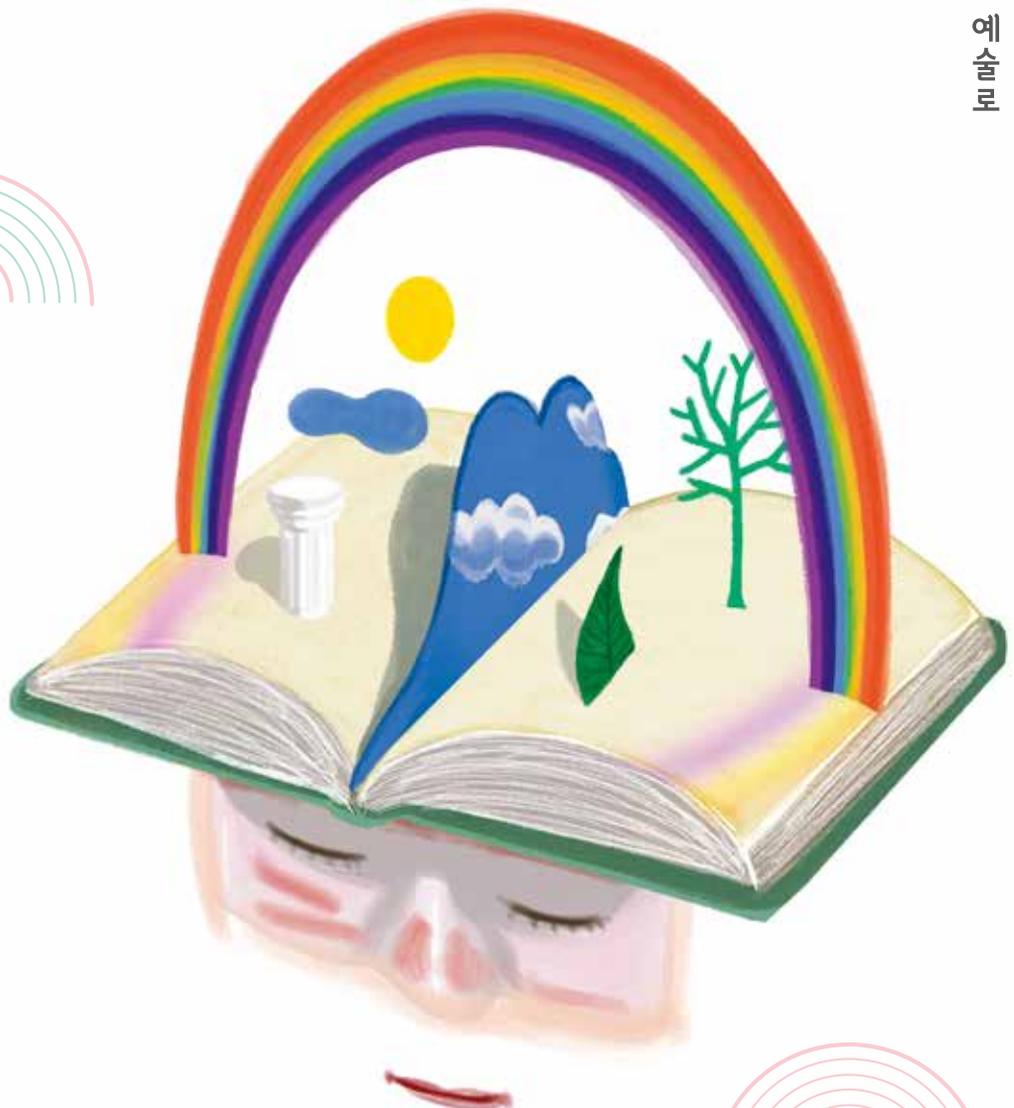
2013년 서울문화재단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지원사업

# 예술로 돌봄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



## 기간

2013년 4월~11월

## 대상

서울시 35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학교는 매년 2월 공모 선정

## 시간/횟수

방과 후 70분 수업, 총 24주(주 1회)

## 내용

무용,연극,시각예술 기반의 통합예술교육  
저학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과정중심의 예술참여와 놀이

## 문의

(재)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www.sfac.or.kr)

희망서울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의 꿈

서울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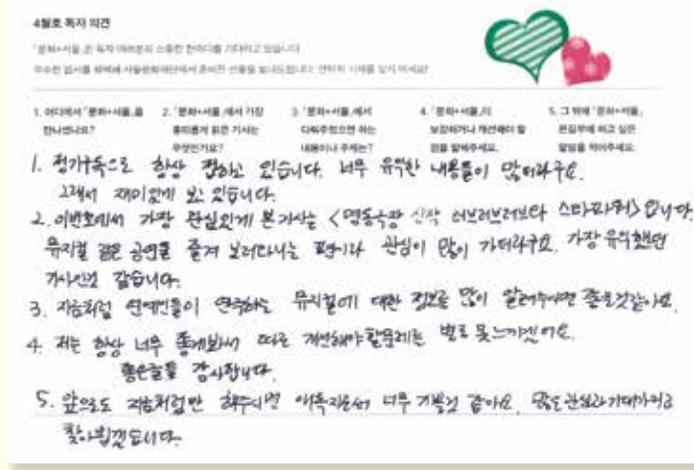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

#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www.sfac.or.kr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으신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서슴지 말고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한 분께 CGV 영화 무료관람권 2매를 보내드립니다.



「문화+서울」은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배포처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카데미,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화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잠실창작스튜디오, 흥은예술창작센터, 가든파이프 외

## 편집부

발간을 산고라고 하지 않았던가?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개월간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아직도 만족할  
만한 옥동자를 위해서 8개월이 남은 건  
아닌지... 모두 파이팅합시다!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이규승

봄바람에 꽃잎이 휘날리는 모습을 느낀  
순간 어느덧 마음이네요. 다시 투명한  
5월 하늘 아래 꽃놀이를 꿈꾸며 다음 호를  
봄빛으로 주저리주저리 엮어줄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이정훈

활기차고 화사한 봄기운과 에너지를  
전해드리려 이번 달도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셨습니다. 다음 달도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  
제이콘텐츠리 편집부 유나리

마감 중인 기자가 '봄을 즐겼다'고 하면  
사치일지 모르지만, 까만 밤하늘 가운데  
있어 더 빛나는 하얀 꽃들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당신은 포근한 오후 바람을  
맞으며 책을 감상해주세요.  
제이콘텐츠리 편집부 안순연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0년 연속수상  
(2004년~2013년)

# 쓰면 살아납니다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도  
소중한 지구와 소외된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국내 최초 친환경 재생아트지 출시 기술 없이는 환경을 말할 수 없습니다.

### 〈한솔의 환경사랑〉

- 1970년 국내 최초 폐지 재활용 시작
- 1992년 신문용지, 그린백상지 환경마크 획득
- 2007년 국내 최초 친환경 고급인쇄용지 출시
- 2008년 FSC 인증 획득
- 2010년 국내 최초 친환경 아트지 출시
- 2012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제품상] 수상

### ○ 한솔제지 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제품인 Hi-Q 듀오매트블루, 뉴백상블루 (미색포함), 뉴플러스블루는 축적된 한솔의 노하우로 최적의 원료 배합과 특수 코팅과정을 통해 최고의 품질을 구현합니다.



아트지: Hi-Q 듀오매트블루	100~300g/m <sup>2</sup>
백상지: 뉴백상블루(미색포함)	60~100g/m <sup>2</sup>
MFC: 뉴플러스블루	70~120g/m <sup>2</sup>

### ○ 종이, 그 이상의 가치

한솔제지는 친환경 재생용지 판매수익금의 1%를 매월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문화+서울」은 한솔제지의 친환경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 테마 토크

일상을 축제로, 생활을 예술로

## 사람과 사람

김윤진 서울댄스프로젝트 기획감독

## 결정적 순간

5월의 꽃, 메이퀸이 사라진 이유

## 조운석의 설(設)

인디밴드 지원센터를 건설하신다고요?

## 문화 체험

이 책은요, 별뿔별이 만들었어요!

## 예술 공간소

수상한 그 공장, 문래예술공장 사용설명서

서울문화매뉴얼